

1969년 11월 25일 인쇄

1969년 11월 30일 발행

# 공판

<제 113 호>

1969



### 151부대 창설

9월 23일 ○○기지에서 박 정희 대통령 임석리, 공군 제 151부대 창설식을 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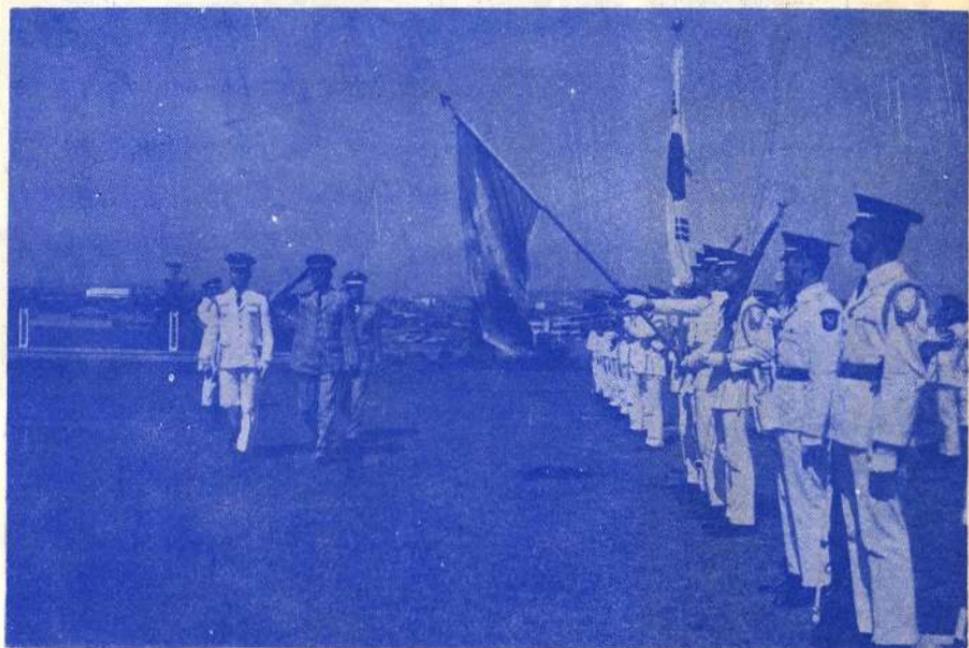
### 공중 사격대회 시상식

9월 19일 ○○기지에서 공중 사격대회 시상식을 거행.



「미」 UN군 사령관 공본 예방

신임 UN군 사령관 「미켈리스」 대장은 인사차 9월 22일 김 성룡  
총장을 예방.



「노」 육군참모차장 공본 예방

신임 육군참모차장 노재현 중장은 9월 8일 신임 인사차  
김 성룡총장을 예방.

ABM망 설치와 동·서국방전성 결 (4)

특집: 군과 인간관계

인간관계의 본질.....	지 승 통 (28)
상경하에론.....	이 영 렬 (37)
상관론.....	최 홍 길 (44)
부하론.....	김 국 창 (52)
내가 바라는 상관.....	우 재 성 (58)
내가 바라는 부하.....	김 상 호 (61)
내가 잊지 못하는 상관.....	김 인 두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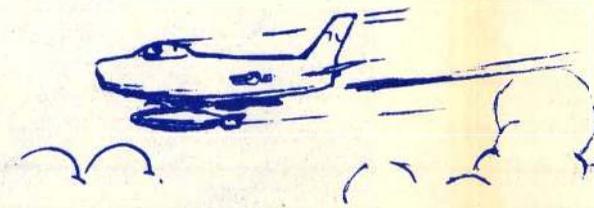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박 동 균 (67)

레이저(LASER)란 무엇인가..... 박 천 규 (84)

수상 내일·사생관·나의 생명..... <예비> 손 홍 준 (91)

알찬 보람이 있었던 날..... 문 중 진 (103)

[공동제목] F-86F 단독비행 유감 <1> 김 종 환 (107)



<2> 강 철 수 (110)

<3> 최 명 상 (112)

<4> 김 희 동 (115)

특집: 평신도 영웅

평신도운동의 성서적근거..... 김 재 준 (118)

평신도운동의 발자취..... 박 광 재 (129)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 이 상 철 (136)

<좌담회>

기독교교회 활동..... > 사회 이 영 렬 군무 (143)

신우회 활동..... >

혈통적 고백..... 이 영 렬 (150)

참조주의 하나님 <성서연구>..... 최 원 진 (151)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 <5분 설교>..... 김 두 식 (155)

소련의 군사 전략 ⑦..... 이 종 학 (157)

암흑을 뚫고 ②..... 이 상 욱 (170)

moos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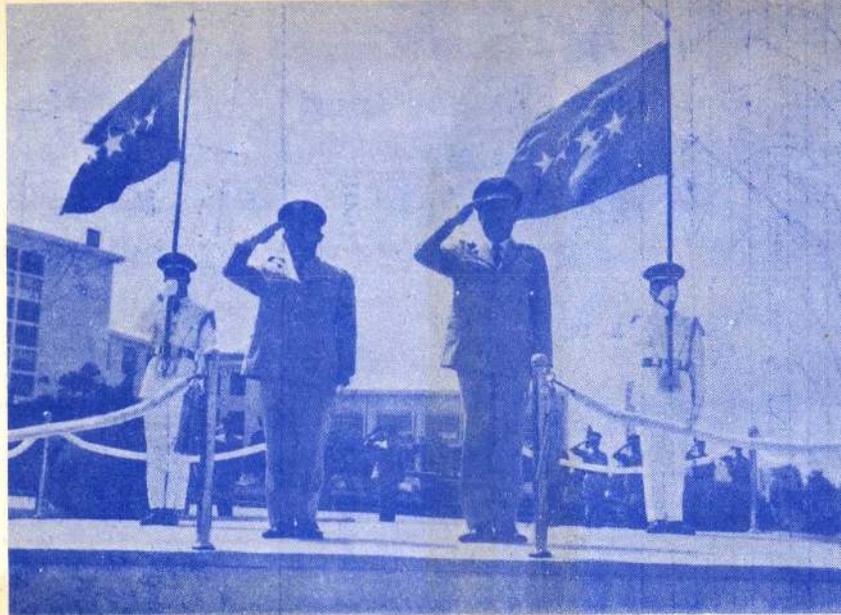
## 국민 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자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중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김 계원 대장 공본 예방

김 계원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일 인사차 8월 28일 김 성룡 총장을 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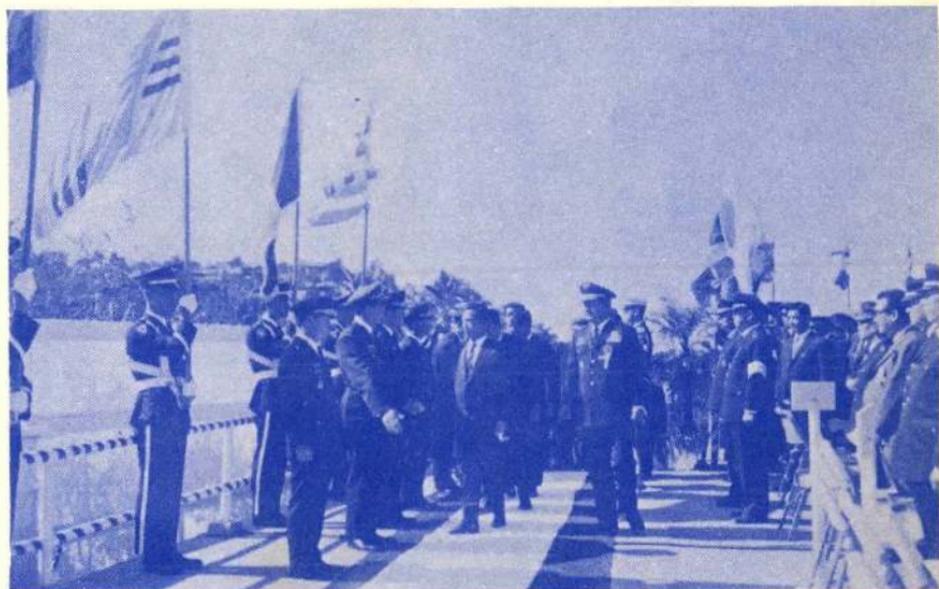


건군 제 21주년 정기 포상식

10월 10일 건군 제 21주년 정기 포상 수여식이 본부 광장에서 거행.

# 공군전력과시! 수십만 시민 참관티...

건군 21주년을 경축하는 공중전시 행사가 10월 2일 한강 백사장에서 박 정희 대통령 임석리, 내외귀빈과 수십만 시민이 참관하는 가운데 성대히 거행, 「팬텀 공군」의 전력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사열대에 오르고 있는 박 정희 대통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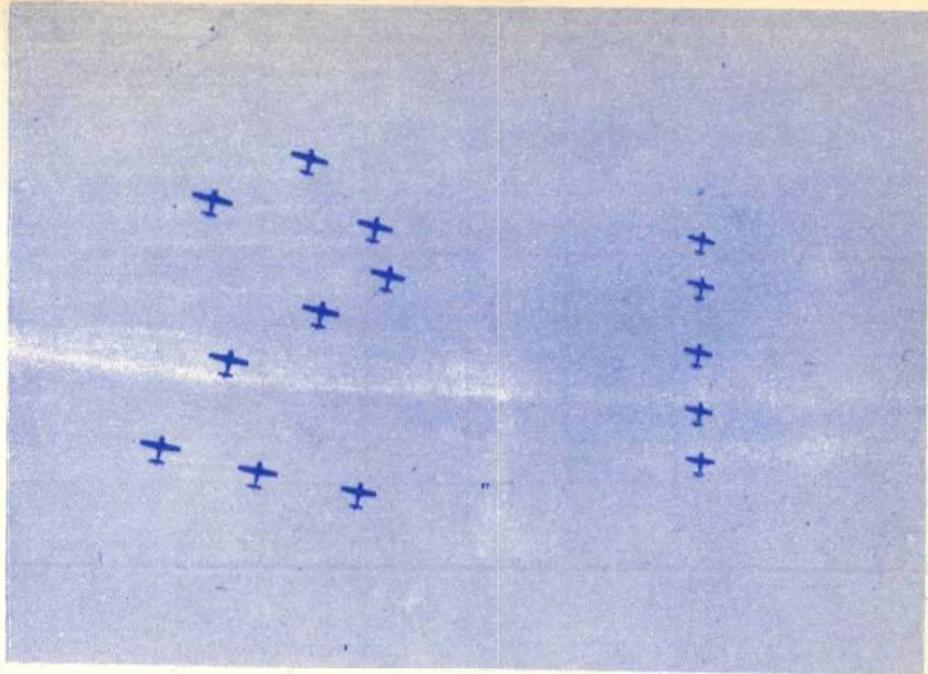
공중전시 행사장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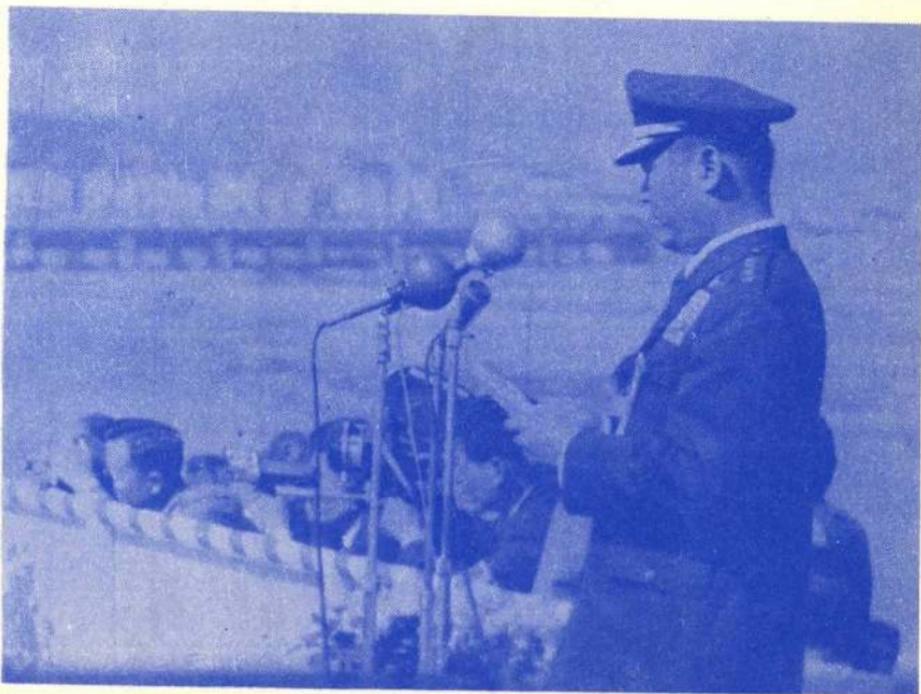
국기에 대한 경례



전시장 상석



건군 21주년을 축하하는 「21」자형 비행



김 성룡 공군참모총장 인사



시민에게 첫선을 보인 F-4D 팬텀 폭격기



행사 진행에 바쁜 공중통제관들



한·미 공군의 각종 항공기가 참가한 우정비행



백발 필중의 실력을 과시한 대지공격

F-5A 6대로 구성된 「검은 독수리」  
특수 비행팀이 절묘한 공중공예를 보여주고  
있다.





박  
정  
희  
대  
통  
령

검은 독수리팀의 묘기에 갈채를 보내는

1만 2천 피이트  
상공에서 낙하하는 스카이  
다이버들의 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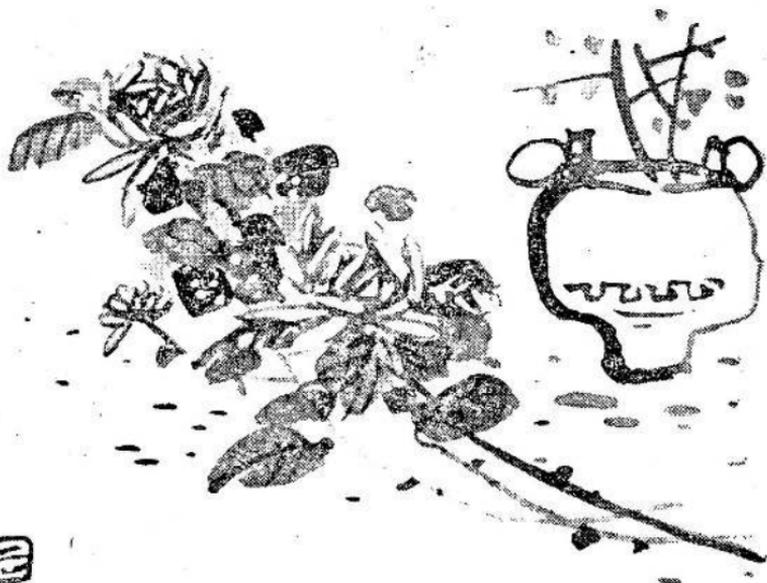
공중전시 행사를  
참관하러 한강변에  
모여든 수십만 시민들

# 공군

<제 113호:1969년 제6호>

<비매품:무단전재금지>

발행인:공군본부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공군대령 신찬  
인쇄처:공군교재창  
인쇄인:공군대령 김복구  
편집실:TEL 206-3251, 69-3511



공

독자에게 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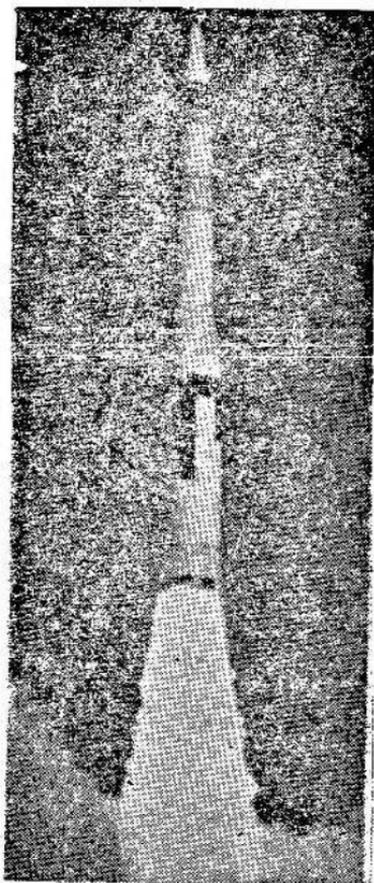
이 「공군」지에는 군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우리의 적 공산계열에서는 이와같은 책자들도 저들의 전략정보자료로서 이용코자 혈안이 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책자들이 온갖 수단으로써 간첩들의 손에 의하여 공산진영에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간행물의 독자 제위는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부지중에 적에게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 책자의 취급 및 보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 훈 감 실

A  
B  
M  
망  
설  
치  
와

재  
편  
단  
계  
에  
들  
어  
선

동  
서  
의  
국  
방  
전  
략



조  
성  
길

<대한일보 상무>

- ABM 반대당
- 미상원의 국방예산감축운동
- 미국의 군·산(軍·産) 결합체
- 재평가되는 미국의 대외방위 조약들
- 기로에 선 미국의 동남아 정책
- NATO와 핵전략
- 「드골」 퇴임과 「프랑스」의 핵정책 전환
- 중강일로의 소련핵전력
- 「닉슨」 행정부의 새 방위전략 성안(成案)
- 박두한 미·소의 핵무기 감축협상

#### ◆ ABM 반대당(反對黨)

「닉슨」행정부의 「세이프·가아드」 요격 「미사일」 계획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가리켜 미국 정계에서는 ABM 반대당이라는 말이 생겼다.

미국상원의 ABM반대의원들의 총수격은 2인. 「케비디」대통령의 막내동생이며 현민주당상원 원내부총무인 「에드워드·E·케비디」 의원.

그는 오는 72년 민주당대통령후보로 출마할 가장 유력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닉슨」대통령의 유일한 정치적 「라이벌」인 셈이다.

따라서 현재 관측되는 대로 「닉슨」행정부의 「세이프·가아드」 ABM 설치 계획이 결국 반대의원들의 주장을 누르고 상원의 승인을 받을지라도 이것을 「닉슨」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돌릴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닉슨」대통령은 반대의 주장과 다협하지 않고 당초의 계획대로 ABM 계획을 밀고 나갈 방침이다.

결국 「닉슨」대통령은 ABM 계획을 놓고 그의 정치적 생명까지 좌우할지도 모를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에나하면 ABM문제는 원안(原案)대로 관철시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밖의 여러 중요 입법조치를 요하는 문제가 산적(山積)해 있기 때문에 의회와 얼마만큼 원만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생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닉슨」은 원내에서 소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대통령이라는 약점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원내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민주당 원내세력을 지휘하고 있는 「에드워드·E·케네디」의원과 ABM문제를 놓고 내결하게 되었다는 자체가 상당히 불리한 「게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민주당의 유력한 상하양원의원들 중에서 「닉슨」의 ABM계획을 지지하고 있거나, 현재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결국 찬표를 던질 상당수의 의원들을 감안하여 「닉슨」의 ABM계획은 결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면 왜 「닉슨」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ABM설치계획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일까?

「닉슨」대통령은 앞으로 4년간의 집권기간 동안 가장 중대한 정책으로 동서협상을 통한 국제분쟁의 해결에 두고 있다.

고로 「닉슨」대통령은 앞으로 열릴 미·소 정상회담을 성공적인 회담으로 만들 수 있는 제반 준비에 심혈을 쏟고 있다.

「닉슨」은 월남전, 중동문제, 소련의 체코 침공으로 조성될 동서간의 긴장 조성 등 도처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소양대국간의 이해조성을 통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소(對蘇) 협상을 통해 결실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은 강해야 한다는 것이며 ABM 설치계획은 대소 협상에 나설 미국의 입장을 한층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것이 「닉슨」행정부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그러나 반대파의원들의 주장은 ABM계획은 소련의 대미(對美) 불신감을 부채질할 뿐이며 그 결과 핵무기개발 및 생산경쟁을 불러냄으로써 미국의

안보에도 역효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에드워드·케네디」 상원의원은 ABM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4명의 저명한 교수에게 공동연구조사를 위촉했는데 최근 이들 일단의 교수들은 ABM망 계획이 엄청난 경비에 비해 별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전 국무성 법률고문이던 「하야마드」대학 법학부의 「체이즈」교수, 고 「케네디」대통령의 과학자문이었었던 MIT(매사추세츠공대)의 「제론·위스너」교수, 「조지·래던스」, 「스티븐스·웨인버그」 교수 등이 공동으로 낸 3백44 「페이지」의 조사서에서 ABM망은

- ① 공격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고
- ② 풀리기 아주 쉬우며
- ③ 그 용도를 개조해도 맞지 않으며
- ④ ABM망을 배치하면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 군축협상을 저해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조사서의 주 목적은 의회에서 심의중인 이 「미사일」설치안이 미치는 비군사적 영향을 주로 선전하여 반대여론을 일으키려는데 있다.

이 가운데는 요격「미사일」의 여러면에 대한 「골드버그」 전 「유엔」대사, 「모이어스」 전 백악관 대변인, 「소렌슨」 전 「케네디」대통령보좌관, 「애덤·야플린스키」교수의 ABM망 반대의 글이 실려 있다.

#### ◆ 상원의 국방예산 삭감운동

「닉슨」행정부가 제출한 70회계연도 국방예산액 7백 91억「달러」를 대폭 삭감시키려는 운동에 다수의 원내세력이 결합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러한 상원의 움직임은 「닉슨」행정부에 대해 두 가지 면에서 큰 압력이 되고 있다. 하나는 월남전을 하루 빨리 해결지으라는 압력, 둘은 「닉슨」행정부가 기어이 관철시키려는 미사일요격망(ABM)설치 계획을 완전히 폐기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연기시키거나 계획의 수정(修正)을 강요할 수도 있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73년까지 70억「달러」를 들여 설치키로 한 ABM계획은 「닉슨」의 방위정책상 근간(根幹)을 이루는 것이지만 이것 말고도 긴급한 군비(軍備)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들은 모두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상원은 상당수 의원들의 ABM계획 반대에 직면해 있는만큼 「닉슨」행정부가 이들과의 타협을 거부하고 당초 계획을 강행할 경우 그 밖에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의회와 불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

미국방성은 최근 병참함대의 신속한 배치를 위해 1억 8천 7백만「달러」의 지출승인을 의회에 요청했다.

병참함대는 「헬리콥터」, 해병대 및 보급품을 싣고 세계 5대양상 어디에서나 대기했다가 즉각 사건발생 해역으로 출동할 수 있는 함대를 건조한다는 것이다.

ABM설치계획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거나 혹은 설치기간을 다소 늦춘다는 전의로 승인될 수 있어도 병참함대건조비 지출안은 단연 배격될 것이라고 「마이크·멘스필드」 민주당출신 상원지도자는 말하고 있다.

국방예산삭감을 버리고 있는 의원들이 문제거리로 삼고 있는 또 다른 중요 「이슈」는 해외미군기지 및 시설의 대폭 감축이나 태평양지역으로의 철수주장이다.

미국은 전세계 각국에 4백 29개소의 중요 군사기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2천 2백 97개소의 군소군사기지 시설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지의 총면적만도 4천평방「마일」에 달하고 해외기지가 있는 나라는 30여개국에 펼쳐 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 군인가족, 군속, 현지고용인 등 이들 미군기지에 관련된 인원은 1백 75만명에 이른다.

기지축소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대부분 2차대전의 결과로 설치한 이들 해외 군사기지는 핵전략시대의 현재 그 존속과 효용가치에 대해 전면적인 재

점토를 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미국의 해외방위부담을 덜자는 이야기이다.

이들은 또 급년회계연도의 과학적 연구개발분야의 총 가용자원 1백 80억 「달러」중 국방성이 차지한 80억「달러」는 너무 국방분야에만 치우친 감이 있다고 지적, 이를 기타 과학분야에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을 제외한 모든 해외 미군기지를 줄이고 군대를 철수시키면 국방예산안은 최소한 50억「달러」정도를 감축시킬 수 있다고 「마이크·벤스핀드」의원은 말하기도 했다.

「체코」사태로 주춤해지고 있지만 「유럽」의 정국이 안정되면 「유럽」주둔 미군도 대폭 감소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현재 서구「유럽」에는 30만의 미군과 30만의 군인가족이 있다.

국방비와 대외정책간에 「밸런스」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국내문제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 국방의 과대한 지출을 반대하는 의원들을 지배하고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방비를 삭감하여 미국의 도시문제—폭력, 범죄, 빈곤, 후생 등—해결을 위해 전용할 수 있다고 이들은 보고 있다.

사실 「닉슨」행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국내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상을 통해 해외의 개입도(介入度)를 줄이자는 것이다.

미국이 자유 세계의 경찰역할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증거가 바로 월남전쟁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은 이것이 「엔티밀리터리즘」(Anti-militarism)으로의 후퇴나 「네오·아이소 레이셔니즘」(Neo-isolationism)으로의 복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다만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편견이나 선입감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것이다.

그러나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할 때 논쟁은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차원을 달리하는 도덕정신 책임에 대한 정당한 평가 기준의 정립(定立)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 군·산복합체(軍·産複合體)

APM망 설치에 대한 의회의 반대론자들은, 군·산복합체에 대한 공격의 화살도 쏘아대고 있다.

1934년 「제럴드·나이」상원의원의 군수산업조사보고서는 무기생산업자를 「죽음의 상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산복합체는 표면상 조직화될 것은 아닐지라도 군부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생산업체 사이에 공룡(恐龍)과도 같은 거대한 연관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국방성관리, 전국에 깔려 있는 대기업체, 군수공장, 노동자, 국방예산도 관련된 국회의원, 국방성과 무기생산업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법률관계 종사자들이 모두 이 군·산복합체를 구성하는 인자(因子)들이다.

1968년 국방성의 계약액은 불자와 용역을 합해 3백 88억「달러」에 달한다. 국방관계 연구개발비는 65억「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총액은 동년 국민총생산액(GNP)의 5.3%를 차지하는 큰 액수이다.

따라서 국방예산의 증대한 변화는 많은 대군수업자와 군·산복합체구성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일반기술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21% 그리고 전문기술자들의 16%가 군사비에 포함되는 봉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II 복합체(Military Industry Complex)가 지닌 위험성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군사비의 증대를 조장하고 국방예산의 삭감을 방해하는 잠재세력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70억「달러」의 경비가 든다는 「닉슨」행정부의 ABM망계획도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군·산복합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군수산업공장을 자기 주에 끌어들이는 것이 자기 선거주주민의 이해에 직결되어 있는만큼 ABM계획을 비롯한 기타 큰 국방예산지출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에는 군·산연관체제와 얽힌 요소들이 숨겨져 있게 마련이다.

한 예로 펜타곤(미국국방성)당국은 1년에 4백만「달러」라는 많은 돈을 미국의회와의 사통(私通)비로 쓰고 있다. 이 일을 위해 고용된 사람이 3백 40명이나 된다. 이들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들과 밀접한 접촉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군수 발주(發注)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의회에서의 협조를 증용하는 일이다.

새로 주문할 물자의 내용, 입찰경쟁회사의 이름, 의회가 이러한 새로운 구매계약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재빠르게 판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군수업자들은 대의회(對議會) 밀사들을 고용, 꾸민 대우를 해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방성 관리들과 친교가 있는 퇴역고급 장교 등이다.

미국의 1백개 군수업체에 채용된 퇴역 고위급 장교출신만도 2만명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윌럼·프록스마이어」상원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지난 10년간 이러한 군출신 고용증대는 3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고 「아이젠 하워」대통령도 그자신 군출신대통령이면서 백악관을 떠나는 고별 연설 속에서 군·산연관체제가 미국의 중요국가 정책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해 우려섞인 경고를 발한적이 있다.

그러나 군·산연관체제의 존재는 불가피한 비대화(肥大化) 과정을 따라 형성된 것이다.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 그리고 한국동란과 월남전 등이 군·산연관체제의 비대화를 촉진시켰고, 또 필요에 의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던 인연도 있다.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나 자유진영의 자유를 방위하기 위해 미국은 방대한 군사비를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만일 군·산연관체가 없었다면 2차세계대전에서 독·이·일(獨伊日) 주축(主樞)국에 대항하여 연합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고, 설사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해도 미국자신을 포함한 연합국측의 전쟁피해는 훨씬

썬 심대했을거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50년대 미국은 장거리폭격기 생산에 있어 소련에 뒤지고 있다는 주장에 따라 장거리폭격기 생산에 주력했다. 그 후 「케네디」대통령은 「미사일·젯」 논쟁에 따라 미사일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소련이 생산량과 생산의도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변하기는 했지만 이러한 미국의 생산박차는 소련을 그 분야에서 훨씬 뒤지게 만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닉슨」행정부는 소련의 ICBM(대륙간탄도탄)의 대량생산에 대처키 위해 ABM망 설치계획을 쳐들고 나온 것이다.

### ◆ 재평가되는 미국의 대외 방위조약들

미국은 현재 8개의 방위조약을 외국과 체결하고 있다. 이를 연대순으로 보면

- ① 1947년 9월 2일 중남미 22개국과 한꺼번에 체결한 「리오」조약
- ② 1949년 4월 4일 「와싱턴」에서 체결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③ 1951년 8월 30일 「필리핀」과 체결한 방위조약
- ④ 1951년 9월 1일 미국, 호주, 「뉴질랜드」간에 맺은 「앵저스」조약
- ⑤ 1953년 10월 1일 한국과의 방위조약
- ⑥ 1954년 9월 8일 동남아 8개국이 조인한 「시토」조약기구
- ⑦ 1954년 12월 2일 자유중국과의 방위조약
- ⑧ 1950년 1월 19일 일본과의 안보조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닉슨」대통령은 「유럽」우선주의를 제창하는 외교문제고문 「키신저」를 기용하고 「토틸·디플로머시」(전면외교)의 수완을 구주 방문을 통해 과사했다.

「체코」침공 후 약체화가 현저히 드러난 20년생의 거목(巨木) 「나토」라는 데스방위체제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활력소(活力素)를 불어넣는 것이 「닉

스]의 유럽방문목적의 전부였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대외방위조약은 전년적인 재평가 재조정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군사의교분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 같다.

사실상 「푸에블로」호 및 EC=121 정찰기 피격사건 그리고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중동의 분규는 소련과 중공을 포위하는 「덜레스」의 「콘테인먼트」의 외교정책에 입각한 50년대초의 제반 방위조약에서 허술한 점을 드러낸 셈이며 「쿠바」의 공산화, 최근 「페루」의 반미 좌선회음적임 등은 중남미 외교정책의 수정을 요청하고 있다.

「닉슨」대통령의 안보외교담당고문인 「키신저」는 2차대전 후 미국의 외교정책이 목전의 실리주구에 급급한 나머지 몇몇한 개념으로 내세울만한 철학을 못가졌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미국의외교는 무엇을 척도로 삼고 있는가?」라는 반성의 명제를 내건 「키신저」는 미국의외교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미국이 자기실력의 한계를 뚜렷이 의식하는 한편 원하는 결과뿐 아니라 원치않는 부작용 또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체제화를 주장했다.

1948년 「체코」에서 공산「쿠데타」가 일어나고 3백 23일에 결친 백림봉쇄에 자극을 받아 미국의 주동으로 창설된 NATO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포르투갈」이 원회원국이었고 52년 「그리스」와 「터키」, 55년에는 서독이 가담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드골」집권 후 NATO에 비협조적이고 「그리스」의 군정화 「이탈리아」, 「터어키」국내의 반미기운 등 냉전초기의 단순한대도 선명한 반소대동구(反蘇對東歐) 군사체제로서의 기능에 금이 갔다.

일본은 「오끼나와」 반환요구에 결들여 평화「무우드」에 젖은 세대의 안보조약연장에 대한 반발이 크고 「필리핀」은 국내 「후크」공산반도의 준동을 근절하지 못한채 소련상선의 기항 등 대소관계에 완화를 보이는듯 하며 「사

토」는 「파키스탄」의 동요로 「스폰서」적인 미국에 적지 않은 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NATO를 탈퇴한 「프랑스」는 또한 지난 2년 동안 「시토」 각료회의 참석도 「보이콧」해 오고 있어 사실상 「시토」를 포기한 셈이며 「파키스탄」도 1965년 이래 「시토」 각료회의에 대사 1명을 형식적으로 파견하는 정도의 노골적인 무관심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대부분의 「시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월남전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1965년 인도와의 「캐쉬미르」 분쟁 때 「시토」가 「파키스탄」을 지원해 주지 않은 이래 「시토」를 냉대하기 시작했다.

「시토」는 또한 그 현장에 명시된 『만장일치』 조항 때문에 「시토」의 『보호우산』 아래 있는 월남에 대한 지원문제에 있어서도 「프랑스」의 반대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 여기에 대체된 것이 월남 참전 7개국 각료회의인 셈이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최근에는 일부에서 「시토」의 무용론을 넘어 「시토」 해체를 같은 극단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오직 한국 자유중국과 맺은 방위 조약 만이 극동에서는 미국이 믿을 수 있는 견고한 반공체제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겠다.

중부조약기구(「센토」)는 1955년 2월 24일 창설당시만해도 정회원이 아닌 미국이 대소전략에 활용할 소지를 갖추고 있었으나 1958년 「이라크」가 탈퇴하고 중동의 위기가 고조한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 ◆ 기로에 선 미국의 동남아정책

미국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요격미사일망(ABM) 배치를 둘러싼 논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하원외교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새로운 핵병기와 군사과학의 발전이 미국의 해외방위공약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군사전

탁 및 외교문제에 관한 사제의 권위자를 초치, 비공개 청문회를 가진바 있다. 이 공청회에는 고 「케네디」 전 대통령의 과학 보좌관 「제롬·B·위스너」씨, 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과학보좌관이었던 「조지·B·키스티아코우스키」박사, 저명한 핵전략이론가인 「허만·칸」교수, 「케네디」, 「존슨」 두 행정부의 국가 안보문제 전문가로 초연한바 있으며 현재 「프린스턴」대학교의 고등의외문제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칼·케이슨」교수, 「컬럼비아」대학의 공산권 문제 연구소장인 「즈비그나우·브르체친스키」박사 그리고 「존슨」행정부의 정치문제담당 국무차관이었던 「슈진 로스트우」씨 등 전쟁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미국의 국방외교정책 전반에 걸쳐 열띤 논쟁을 전개했다고 전한다.

이 비공개청문회를 통해 시사된 바로는 미국이 현재 범세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각종 방위동맹체제와 해외주둔기지 및 병력은 새로운 핵병기와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필요성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데 토론이 집중되었다고 한다.

흑백인종분규, 집단퇴치 및 범과 질서문제로 집약되고 있는 심각한 미국 국내의 사회, 경제적 과제를 안고 있는 오늘의 미국사회여론은 월남전에 대한 환멸로부터 비롯된 전반적인 반전(反戰) 「무우드」와 밀착하면서 저급까지 밖으로만 향했던 미국력의 초점을 안으로 되돌려 국내문제해결에 우선적으로 집중시킬 것을 바라고 있다.

이같은 여론의 대세 속에서 출발한 「닉슨」행정부가 신고립주의의 표방아래 「지역방위분담론」을 내세우고 있음도 무리는 아니라 하겠다.

주일대사를 역임한바 있는 「하바아드」대학교의 「에드윈·라이샤워」교수 같은 일부 대공유화론자(對共有和論者)들의 동남아주둔 미군기지무용론이 미국내 여론의 일자으로부터 무시 못할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호전적인 아시아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자유국가들의 우려는 큰 것이다.

「라이샤워」교수는 대륙간탄도탄(ICBM)과 「폴라리스」 핵잠수함을 갖고

있는 미국의 핵능력에 비추어 해외주둔기지와 군대는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① 동남아에는 외국군이 개입해서 막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의 위협이 없다. ② 동남아 주둔 미군기지는 아시아공산주의 특히 중공의 위협으로부터 동남아지역을 지키기 보다 중공의 심리적 압박감을 가중시켜 그들의 호전성을 자국시키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동남아기지의 조기전면철수(早期全面撤收)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부당국자들은 월남전이 어떠한 형태로 타결되든지 미국은 앞으로 상당기간 동남아(태국, 오키나와)에 계속 군사기지와 한정된 수의 병력을 주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1971년말로 예정되고 있는 영국국동군의 완전철수로 생긴 동남아의 『힘의 공백상태』는 중공의 소위 『인민 해방전쟁』을 통한 동남아 적화(赤化)의 망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빚어낼지 모른다. 따라서 「닉슨」 행정부가 미국의 장기적인 국방외교정책의 전면 재검토 과정에서 부딪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딜레마」는 국민에게 미국이 앞으로는 월남전과 같은 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려 들지 않는다는 외형적(外形的) 다짐을 보이면서 동시에 동남아의 안전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라 하겠다.

## ◆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핵방위정책

NATO는 유연대응전략(柔軟對應戰略)에 입각,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경우, 그 공격의 성격에 따른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공격의 성격이란 공격규모, 공격대상, 공격무기, 공격의도 등을 말한다. 말하자면 적이 통상무기로 공격해 오는데 무조건 핵무기로 반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간파할 수 없는 사실은 적이 아무리 재래식 전쟁으로 침략을 감행해올 경우라도 NATO가 재래식 전쟁수단으로 이를 저지시킬 수 없을 때는 즉각 핵무기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도 전술핵무기와 같은 소형에서 완전파괴의 절대무기인 ICBM 등 여러종류가 있기 때문에 적의 공격성격에 적당한 것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NATO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기본개념은 NATO맹방국가의 안보가 전적으로 위협을 받거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정의되고 있다.

핵전쟁에 대한 일반의 견해는 잘못된 점이 많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재래전을 위한 군대나 무기는 일시에 소용이 없어지게 되리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전략 핵무기의 전쟁억지력을 한층 효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재래전의 군사력과 전쟁수단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핵무기를 다루자면 보다 잘 훈련되고 기술화된 군대가 있어야 하고 보다 체계화된 지휘체통이 요청된다.

미국이 NATO의 주인격이므로 NATO맹방의 방위를 위해서 미국의 막강한 핵력이 지원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타당할 것이나, 사실 소련의 침략위협으로부터 NATO국가들을 방위하는데 미국의 핵력이 잠재적인 전쟁억지력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다.

월남전, 중동전과 같이 핵무기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지역들이 있기는 하다. 그렇다고 핵무기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쪽의 핵력이 약하다 판단했을 때 이러한 분쟁지역은 확대될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협상도 다협없는 실패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의 배치, 안전관리 및 유지에 NATO주둔 미군이 전담하고 있다.

여기서 NATO맹방국가들은 소련권 등 공산「블럭」국가들로부터의 침략을 받을 때 과연 미국이 서구 유럽의 방위만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의심을 품고 있다.

ABM망이 결국 미국의 방위에 주안점을 둔 안보조치라는 사실에서 이러한 의심이 슬렁대기도 한다.

「체코」의 자유화탄압을 위해 소련과 동구공산「블럭」인 「바르샤바」조약 집단의 군사침략 행동과 이에 대한 미국의 미온적인 반응은 미국의 NATO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의 서「유럽」방위의 결의를 의아한 눈초리로 더듬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체코」사태는 한 마디로 「바르샤바」군사동맹체가 소련권의 이해관계에 필요한 무엇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준 것이다.

특히 소련의 「체코」침공에서 NATO측을 놀라게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첫째 사단규모의 대단위병력집단이 신속히 집결 이동할 수 있다는 기동력의 우수성

둘째 최신 현대무기로 장비된 군사능력의 우수성

셋째 철저한 군사기밀보안조치의 과시 등이다.

하기야 NATO의 고위군사관료들은 「바르샤바」군대의 체코 국경부근에서의 군사 기동훈련에 관해 정확한 군사정보를 갖고 있었다고는 하나 사단 규모의 소련「탱크」부대는 전격적으로 「프라하」비행장에 신속히 대량 공수 되리라고는 알지 못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NATO군사고위층은 「바르샤바」조약군이 소련의 군사원조로 고도화된 장비를 갖춘 우수한 군대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소련의 군사집단은 공산주의 특유의 지도체제 때문에 합동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책임을 입증해준 점이다.

민주적인 방식과 자국의 의사를 존중하는 NATO맹방은 이런 점에서 군

사적인 취약점을 자연 지니게 마련이다.

「닉슨」의 대유럽 우위정책도 소련의 「체코」 침공으로 기인된 NATO의 상대적 불안을 제거하고 그 약점들을 보강시키자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벌일 대소협상에서 NATO의 힘을 배경으로 삼으려는 정책적 포석이라 할 수 있다.

### ◆ 「드골」퇴임과 프랑스의 핵정책전환

「프랑스」영광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샤를르 드골」 프랑스대통령은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자기에게 「농」(반대)을 던지자 홀연히 10년 집권의 「엘리제」궁을 떠나 향리(鄕里)인 「클롱베이 레 데글리제」에 묻히고 말았다.

「프랑스」의 국내정책뿐 아니라 유럽정치무대에서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구사하던 거인 「드골」의 퇴임은 곧 장차의 「프랑스」의 대내외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드골」대통령은 미·소양대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제3 세력권을 형성하고 「프랑스」로 하여금 제3 세력권의 주도적 역할을 맡게 하려는데 정치적 야심을 두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 「드골」은 연합국의 대서양 군사동맹체인 NATO로부터 탈퇴하고 미·소에 대항, 독자적인 핵무기생산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했다.

미·소·영·중공과 함께 핵보유국가로 등장한 「프랑스」는 군사비 지출에 있어 세계 제5위에 있고 연간 군사비는 55억「달러」에 달한다. 이중 핵무기 개발비가 4분의 1을 차지한다.

68년 8월 25일 남대평양상 「두아모두」제도의 「관가타우파」산호섬 5백미터 상공서 4천5백「입방미터」 기구에 매달 1「메가톤」급 수소폭탄장치를 폭발시킴으로써 수소탄 보유국가가 되었다.

국민총생산의 4.7%를 차지하는 엄청난 군비부담과 그 중 27%에 달하는 핵전력개발비를 부담한 「프랑스」국민은 과중한 세금의 댓가로 「프랑스」의

영광을 외치는 「드골」대통령의 국가적 자부심으로 불만을 달랠 수가 있었다.

「프랑스」의 핵정책은 「헬리콥터」추락사고로 사망한 전「프랑스」군 참모총장 「샤르트·아이에레」장군의 전략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프랑스」는 소련과 동구의 공산권에 대해서뿐 아니라 사방의 적국을 가상한 독자적인 핵방위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량보복』을 기본으로 한 「드골」의 전방위 핵전략(全方位核戰略)이다.

NATO는 「드골」대통령이 「프랑스」군을 「나토」군 통합기구에서 철수시키자 67년에 공산침략에 대해 『유연대응전략』(단계적인 대응조치)을 채택했다.

이는 적의 의도를 시험해 보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군사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드골」이 NATO를 탈퇴하기 전 연합국측의 공동전략은 『대량보복』이었다.

그러나 「드골」의 퇴임과 동시에 나타난 중요한 정책변화는 우선 종래의 핵방위정책인 전방위정책의 수정가능성으로 나타났다.

현 「프랑스」군 참모총장 「미셸 푸르케」장군은 국방 「레뷰」지에 실린 글 가운데서 「프랑스」가 종래의 핵정책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드골」의 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또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국방성의 공식적인 태도로 알려지고 있는 「푸르케」장군의 글은 종래 「프랑스」가 취해온 전면방위론에 반대를 표하고 전략무기의 사용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적의 핵공격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가 『대량보복』정책을 포기하고 NATO의 단계적 대응전략에 접근하는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는 또한 적의 지상군 증강에 대비하여 지상군을 증강시킬 필요가 없으며 소수병력에 전술핵무기를 무장시키고 핵무기를 장비한 전투공군의 엄호를 받게 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의 NATO와 결속해야 한다.

「프랑스」는 아직 전술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연합국간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핵전략을 마련하여 적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프랑스」군의 NATO 복귀까지는 아니라도 NATO와의 긴밀한 협력의 가능성에 제시해 주고 있다.

NATO관리들은 「프랑스」가 다시금 핵정책에 있어 NATO로 복귀하려는 징조를 보인때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방위 정책전환은 소련의 「체코」무력침공에서 발단되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소련에 접근함으로써 동서 「유럽」의 화해를 모색 『대서양으로부터 「우탈 산맥」에 이르는』 대유럽건설을 꿈꾸던 「드골」의 야망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프랑스」의 안보는 결국 『동쪽으로부터의 적(소련과 동구)』에 있다는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 ◆ 증강되는 소련의 핵전력

「닉슨」행정부의 ABM(미사일요격망(邀擊網))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중요 이유로 등장한 것은 소련의 대륙간탄도탄(ICBM) SS=9이다.

그러나 SS=9의 존재는 소련이 65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취임한지 몇 달밖에 안 되는 「닉슨」신행정부가 SS=9의 위험성을 새삼 강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두고 의아심을 품는 측도 많다. ABM계획반대의원들이 「닉슨」정부가 ABM계획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소련의 SS=9의 위력을 과장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견 무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 해답은 어디까지나 SS=9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존슨」행정부와 「닉슨」행정부 사이에 SS=9에 대한 해석상 차이가 생겨난 원인도 여기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닉슨」행정부가 미국의 전면적인 핵전도발의 억지력이며 따라서 선제(先制)공격을 받은 후의 보복력으로 간주하는 미국의 대륙간탄도탄 「미니트맨」 지하기지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소련의 SS=9에 대한 정의(定義)에는 ①새로운 정보 ②핵선력의 역학(力學)을 좌우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개량가능성 ③미국의 방위증대를 위한 정치적 설득 등 3가지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SS=9은 어떤 것이냐?

1백20「피트」의 길이를 가진 2단계추진의 SS=9은 8천~1만2천5백「파운드」 짜리 핵탄두를 7천마일 원거리 목표에 날려 보낼 수 있다.

65년부터 소련은 매년 40~50개의 SS=9을 배치해 왔는데 68년초에 이 배치를 중단했다. 같은 기간 동안 소련은 SS=11 2백기를 해마다 배치했다. SS=9은 SS=11보다 비용이 든다고 미국군사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SS=9은 9~25「메가톤」 짜리 핵탄을 적재할 수 있는데 비해 SS=11은 1「메가톤」 짜리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SS=11의 1「메가톤」 핵탄두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이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원자폭탄보다 5백배의 위력을 가진만큼 1발이면 미국의 대도시를 지명적으로 파괴시킬 수 있는 위력이다.

미국의 ICBM 「미니트맨」은 1천기, 「폴라리스」잠수함적재 장거리 「미사일」이 6백56기로 각각 1「메가톤」 짜리 핵탄두를 적재할 수 있다. 이것은 소련의 도시 태반을 병병하게 할만한 파괴력이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이 SS=9에 대해 당황하고 있는 이유는 소련이 무엇 때문에 도시공격용으로는 지나친(낭비적인) SS=9를 생산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SS=9가 노리는 목표는 미국의 도시나 산업시설이 아니라 바로

미국의 핵보복력이 되고 있는 지하의 「미니트맨」기지를 일시에 파괴하려는 데 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한층 심각하게 된 것은 소련이 68년초 중단했다가 9개월 만인 12월 재배치하기 시작한(군사위성사진 포착) SS=9는 종래의 SS=9를 개량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첫째 소련은 SS=9에 부분궤도폭격체(FOSS)를 장치할 수도 있다.

둘째 SS=9에 복수핵탄두(MIRV)를 장치 여러개의 목표에 자동 유도장치를 갖고 날아가는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SS=9일 4~5「메가톤」급 핵탄두면 3개, 1~2「메가톤」급 핵탄두면 6개, 2백「킬로톤」급 탄두면 18개를 각각 적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핵탄두를 운반하는 SS=9「미사일」 5백기면 미국의 지하 「사일로」에 배치된 「미니트맨」 미사일 1천기의 존재는 극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SS=9 5백기가 다탄두(多彈頭)화되면 1천5백개의 핵탄두(4~5메가톤)급 3천개의 핵탄두(1~2「메가톤」급) 9천개 (2백「킬로톤」)급의 핵탄을 적제할 수 있다는 놀라운 얘기가 된다.

이러한 많은 수의 핵탄두가 1천기의 「미니트맨」기지에 향해 발사된다면 미국의 보복력은 의심할 나위도 없이 마비되고 말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소련은 결코 선제 공격력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미국의 군사평가였다.

이러한 평가가 지금 전도된 셈이다.

「페어드」국방장관은 ABM망 건설계획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상원의원들에게 이와같은 새로운 군사정보를 밝히면서 SS=9는 소련이 자기측에 유리하도록 힘의 균형을 뒤집어 놓으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닉슨」행정부 내에서, 조차도 ABM계획을 둘러싼 대의회투쟁에서 불협화음(不協和音)을 빚어 냈다.

「윌리엄.P. 로저스」국무장관은 「테어드」장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자기는 소련이 선공(先攻)을 가할 의도를 갖고 있다는데 의심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닉슨」행정부가 ABM계획과 소련의 핵선공위협을 증대를 절부시켜 생각하기로 결정한 이상 소련의 위협에 대한 평가에 있어 행정부 안에서 빚어지는 견해차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ABM문제가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ABM비판자들은 소련이 ①엄청난 경비 때문에 SS=9 생산을 배가(倍加)할 수 없고 ②기술상 명중율의 정확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으며 ③핵탄두의 소형화(小型化)를 통한 복수핵탄두를 과연 개발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점이 완전히 갖추어 진다면 그것은 제1공격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도 현재 소련의 SS=9만 가지고는 소련의 의도를 명백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 ◆ 미국의 방위전략 5개안 성안(成案)

미국의 세계적 핵무기 정책에 대한 철저하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끝나 지난 5월1일 『미국방위정책의 재검토안』의 전반부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되었다.

이번에 끝났다는 검토는 핵무기와 재래식무기 그리고 부대배치까지 포함하는 전략재평가의 제1단계로 알려졌으며 완전한 종합안은 향후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이번 국방전략의 재검토작업은 2차대전 후에 실시된 전략재평가 재검토로는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것으로 지난 2월 「닉슨」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데이비드 패카드」국방차관 지휘감독하에 국무·국방·중앙정보국(CIA)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된 전반부는 전략정책과 핵전력문제를 다룬 것으로 앞으로 10년간 연간 60억「달러」 내지 1백60억「달러」를 소요하게 될 5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전략병력은 연간 약 1백억「달러」가 소요된다.

5개방안은 「닉슨」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가 선택할 여지를 갖고 있는데 최하범위는 소련을 훨씬 능가하는 대규모공격력을 마련하고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입장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는 핵정책이며 최하범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격력을 억제, 만약 소련이 선공(先攻)을 해와도 큰 피해를 막도록 대규모 방위력을 갖출 것을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뉴욕·타임즈」지는 평가하고 있다.

이 재검토안의 후반부는 7월1일께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될 예정인데 그것은 미국의 『요새화』(要塞化)로부터 세계경찰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이르는 정치적 전략의 광범위한 선택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러한 전략의 재검토를 통해 마련된 정책대안(代案)들이 장차 10년간의 미국정책의 기반을 이루게 되리라는 사실이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 월남전이 끝나고 난후 필요한 비핵군(非核軍)의 규모도 후반부의 방안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점이다.

보고서의 전후반부가 상관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닉슨」행정부는 우선 핵전략부터 결정하고 나서 비핵위기(非核危機)를 다루는데 필요한 재래식 병력 문제에 손대기를 마라고 있는 것 같다.

현재의 군사력은 핵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 이외에도 쌍방이 적의 도시가 아닌 적의 군사무기기지만을 노리는 제한된 핵전쟁을 치를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와같은 미국의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비롯한 5개항의 선택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① 현수준의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

② 신행 핵추진 잠수함이 운반하는 보다 긴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포함한 대륙간탄도탄(ICBM)을 대규모로 증강시킨다. 이것은 비록 미국이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 하더라도 적의 무장을 거의 무효화시킬 수 있는 광범하고도 정확한 선제공격(先制攻撃)을 가할 수 있는 실력구미를 목표로 삼자는 것이다.

③ 「알래스카」 「하와이」까지 방위망을 넓히고 다탄두(MIRV)를 지닌 ICBM을 약간 증가하여 보다 나은 공대지(空對地) 「미사일」을 운반하는 신행 장거리 폭격기의 제작계획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완전한 안전 요격「미사일」 방어망(ABM)을 완성한다.

④ 현재의 전략공격 무기를 일반적으로 동결하는 한편, 다탄두위성무기(MIRV)를 「미니트맨」= 3 및 「포세이돈」 「미사일」에 장치하지 않으며 2개의 「미니트맨」 기지와 주로 중공「미사일」에 대한 방위망(현재 계획중인 것보다 넓은 ABM)만으로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방위망을 줄인다.

⑤ MIRV를 장치하거나 ICBM을 늘이지는 안되 25~52개 미국대도시 주변에 방위「미사일」을 대폭 증강함으로써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입체될 피해를 크게 줄이도록 한다.

이상 5개 방안중 4번째 또는 5번째가 채택되는 경우 미국은 소련이 MIRV를 개발 배치하지 않을뿐 아니라 대규모의 전국적인 ABM망을 설치하지 않는다는데 미국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 ◆ 박두한 대소협상 포석

결국 ABM망 건설결정, 소련과의 공격 및 방어용핵무기감축협상을 내다 보면서 「닉슨」행정부가 채택할 공산이 큰 것으로는 3항이 될 것 같다.

물론 「닉슨」대통령의 ABM망설치안은 소련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수정될 수 있을만큼 신축성을 가진 것이니만큼 이러한 미국의 핵전략 5개방안이란 것도 어디까지나 소련과의 상대성에 따라 취사선택의 여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 ◆ 임박한 미·소 핵무기 협상

최근 입전된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오는 6월초 소련에 대해 오랫동안 지연되어온 공방용전략핵무기 감축협상을 개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할 것이라고 하며 「윌리엄·P·로저스」국무장관과 「와싱턴」주재 소련대사 「아나톨리도부리닌」과 협상개시일자물 확정절 예정이다.

미·소의 핵무기, 「미사일」협상은 오는 7월중 「제네바」에서 열릴 것 같다.

미국측 협상대표는 군비관리 및 군축국장인 「제럴드·스미드」씨가, 소련측 협상대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부외상 「쿠즈네초프」가 임명될 것 같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미합참본부는 5월초순 을 여름 신형핵무기의 성능실험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미·소군축협상의 시작을 연기하도록 설명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부지도자들은 다탄두핵탄의 실험이 실시된 이후도 협상시기를 잠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그러나 협상의 조기개시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 실험실시 후면 소련이 핵무장에 있어 미국에 뒤질까 걱정하여 협상에 대한 열의가 식을 염려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핵군축협상에 대한 소련의 열의는 미국이 지난 3월에 비준한 핵확산방지 조약을 최고회의에 회부했다는 5월 8일의 관영 「타스」통신 보도가 입증하고 있다.

한편 미국방전문가들은 다탄두 핵탄체제(MIRVS)가 ABM보다 핵무장면에 있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이며 이 분야에서, 현재 소련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고 있다.

## 인간관계의 본질

비행대대 중심의 소고

중령 지 승 통

1. 서 론
2. 인간관계의 발전
3. 비행대대 사례
4. 결 론

### — 1 — 서 론

필자가 미국의 George Washington 대학에서 1964년 8월에서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경영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일이 있다.

그 기간중 가장 본인에게 흥미로웠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가장 유익하였다고 생각되는 학과가 있었더라면 이것은 인간관계(Human Relations)에 관한 연구였다.

흔히 경영관리라고 하면 풍기는 냄새가 일반기업에서의 공업경영을 연상하기 쉬운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는 하지만 물론 여기에 관한 연구가 무시된다는가 경시되어서는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경영관리에 있어서 중요시 되어야 하는 것은 입장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본인과 같이 군대생활을

이미 장기간 하여왔고 장래에 있어서도 군에서 활동을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휘관의 입장에서든지 혹은 참모의 역할을 하든지간에 조직 내의 인간관계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관리라는 문제는 그 기초가 바로 군의 구성요소인 개개인이 라는 각양각색의 단위의 총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군이라는 특수요건과 환경하에서 나타나는 동질적인 경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만족할만한 지휘관 혹은 참모로서의 업무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작년 8월부터 ○○구조대대의 대대장으로 취임한 이후 직접 「지휘관리」의 기회를 가졌고 또한 매우 우연한 기회이기는 하였지만 인접부대로서 1·24사태 이후 전개된 우방국인 미전투대대의 대대장 및 대대원 그리고 대대생활을 알게 될 기회를 갖게 되어 인간관계연구에 있어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관계의 문제

를 범위를 좁혀서 본인이 경험한 범위 내의 대대(비행대대)를 대상으로 한 한·미양국대대의 지휘관리를 내용으로 하여 논하여 볼까 한다.

또한 제목의 인간관계의 본질이란 초급지휘관의 입장에서의 지휘관리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Human Relations)를 취급할까 한다.

## — 2 — 인간관계의 변천

인간관계의 문제는 한국에서의 군생활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면 대별하여 6·25 동란을 전후한 1950년대와 1960년대로 편의상 대별할 수가 있는 듯하다.

한국군에 Human Relations(인간관계)란 어휘가 소개된 것은 본인의 기억으로는 아마도 1960년대의 초기로 보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보는바다. 따라서 인간관계란 문제가 깊이 다루어진 것도 그리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물론 흔히 말하는 「인간대인간」의 단순한 관계 또는 교제 혹은 유대라는 점으로 해석한다며는 이는 인류가 지구상에 났을 때부터 있었겠지만 여기서 다루는 인간관계란 현대와 같

이 복잡하고 또한 과학문명이 최대로 발달된 사회에서의 사회 및 단체의 일원으로서의 개인 대 소속되는 사회나 단체와의 관계를 뜻함으로써 재태식의 인간관계라는 관념과는 판이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문제 즉 「개인과 조직」간의 문제는 그리 용이한 것이 아니거니와 더구나 군과 같은 특수사회 즉 「명령-복종」이라는 일반사회에서 볼 수 없는 조직구조 내에서 과연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의 논의도 대두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인간관계란 뜻이 「개인과 조직의 관계」라는 점에 입각한다면 과연 앞서 말한 1950년대의 한국군에서 이와같은 문제가 고려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리 답변이 어렵다고는 볼 수가 없다.

1950년 한국동란을 담당하였었던 당시의 군이 주로 일본식 군대교육을 배경으로 하여왔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라든가 특히 개인의 사적문제라든가 하는 문제는 당시의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사태의 영향도 많이 개재되었지만, 군생리상으로도 취급되지 못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와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하여도 수긍이 가는 사실이다.

그러나 휴전 이후 준평화와 같은 사태는 비교적 「개인의 위치」가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1950년대에 경험했던 군생활을 배경으로 한 각급 지휘관이 전연 이와같은 경험의 토대가 없이 성장하여 군에 입대하게 된 후배들의 「개인」과 「조직」에 대한 관념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도 자연의 추세가 아닌가 본다.

더구나 오래동안 비교적 유교나 불교의 영향하에 보수적인 분위기에 젖어있던 한국사회라 8·15와 6·25의 동란을 계기로 대중 개인위주의 미국풍조의 내습은 더우거나 이와같은 「개인존중」 사상의 고취를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뚜렷이 나타난 것은 각급지휘관이 느끼는 바가 아닌가 본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와같은 「개인과 조직」의 알력이 심히 나타난 것이 미국의 산업계였고 따라서 「인간통제」의 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다루기가 용이한 「기계」라는 도구인 것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남부에서의 「인적자원확보」라는 데도 있었고 이것은 결국 앞에 말한 것같이 힘드는 「인간통제」의 해결안으로서 등장한 것이 기계였다고 말한것같이 얼마나 인간관계(Human Relations)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는가를 추측이 가고 남음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산업능률을 향상시킬까 하여 실시된 것이 저 유명한 Hawthorne Study였고 현대의 눈으로 볼 때는 유치한 결론을 냈지마는 어쨌든 개인의 욕구나 자존심 특히 자연 실험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의 생산량의 저하 및 사기의 저하라는 것은 충분히 실험된 셈이다. 개인의 욕구문제도 학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별하여 생리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보는 것이 사회적 산물인 인간으로서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같이 현대에 이르러서는 인간관계란 문제의 초점이 화면을 물론하고 「조직」 내의 「개인」으로 이전되면서부터 개인과 조직의 조정 내지 조화라는 문제로 변해 온듯하다.

군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현상은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45년 이후의 미공군의 경우 이와같은 현상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간관계라는 문제가 지휘관의 지휘관리와 직결되고 고려되는 사실이기는 하나 실제면에 있어서는 이론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듯하다.

### — 3 — 비행대대 사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상기의 인간의 욕구에 대한 연구를 개발한 학자로 가장 알려져 있는 학자로는 인간의 5대 욕구를 열거한 Maslow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독자는 이미 주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이 5대 욕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구명하는데 커다란 이론적 뒷받침을 하여 준것은 사실이고 당분간 현사회조직이 존속하는 한 많은 인간관계연구에 공헌이 되리라 본다. 특히 공군과 같이 비교적 장사병의 교육의 수준이 타군에 비하여 높은 경우 「자기실현」의 욕구라는 문제는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본인이 비행대대에 배속된 후에도 직접 부하통솔에서도 느꼈던 바이다.

또 하나의 이론으로는 Magregor의 x, y 이론이 있다. 즉 부하통솔에 있어 민주적방식을 취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래적인 독재적방식을 택하는 문제가 대두한다.

1965년 미국에서 귀국후 약 일년간 공군대학에서 경영관리에 대한 Seminar를 고급장교에 대하여 실시되었을시 통솔과 인간관계에 대하여 시간을 담당하던 일이 있었다. 당시 본인이 질문지를 통해서 공군대학에서 수업중이던 대대장급지휘관(공중지휘관)에 대하여 Douglas McGregor의 "Theory X" "Theory Y"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었다. 당시의 결과는 대부분의 공중지휘관의 답변은 "Theory X"에 기울어져 있었다. 물론 "Theory X"가 재래식의 지휘관리론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며는 과연 이 이론의 본산인 미국의 전투대대는 어떠한 입장에 서있는가?

본인은 이것에 대하여 매우 궁금하였거니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부하의 생태라든가 부대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시 적어도 본인자신도 수십명의 공중군무자를 직접 지휘 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남음이 있던 것이다.

○○기지의 인접부대로서 F형의 최신전투기를 자랑하는 F-4 대대의 대대장과 시간을 갖게될 기회가 있었다. 우연히도 그 대대장은 본인이 다니던 George Washington 대학을 본인이 다니던 다음해 입학하여 같은 Course를 밟았다는 점에서 화제는 무척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부대운영과 지휘관리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는데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미 잘 알다시피 McGregor의 X 이론, Y 이론에 대하여는 이론상으로는 민주주의적인 Y 이론이 환영할만 하지만, 원래 전투비행대대란 본초를 다루는 부대인데 경험상으로는 역시 X 이론을 70%, 20%는 Y 이론을 섞은 Mixed Management가 가장 타당한 것 같은데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하였었다.

본인도 전투비행대대에서 근무하였던 경험도 있었고 현재도 ○○명의 공중군무자를 지휘감독하는 입장이므로 보면 "X" 이론에 대한 고려가 적지않다.

그렇다고 철두철미 “X” 이론에 치우친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으로서의 비행대대급에서의 운영은 “X”이론 70%, “Y” 이론 30%가 전체적인 운영에는 적용됨이 적절한 것 같다.

그러나 대대원의 성품이 다양다색이고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X” 이론만으로만 남두이 가는 부하는 “X” 이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유달리 고도의 지능과 자율성이 확립된 부하에 대하여는 “Y” 이론의 적용을 시습치 않고 있다.

또한 이와같은 논의대상의 비행대(전투비행대대)를 더욱 충분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2차대전 이후 연구된 미전투비행대대에 대한 연구논문(집단역학상으로 본 전투비행대대)을 하나의 미공군전투대대의 사례로서 요약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간주되는 바다.

이 논문의 내용은 Robert A. Nisbet 박사와 Willard Waller 박사의 미공군의 타락에 의한 미공군전투대대에 대한 연구보고인바 인간관계, 지휘권 아울러 집단역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좋은 연구논문이다.

“X”전투비행대대라고 명명된 연구대상대대에 대하여 연구된 내용으로는,

- (1) 지휘권문제
- (2) 신분문제(Status)
- (3) 모임문제(Group)
- (4) 가치판단기준

등이었다. X 대대현황으로는,

조종사	30명
일반장교	6명
사 병	150명
단발전투기	30대
대대장	소령
부 관	2명
작전장교	1명(조종사)
편대장	2명

이상과 같다. 그렇다면 연구대상의 4개항목에 대하여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가를 살펴볼까 한다.

- (1) 지휘권문제

상기의 지휘권이란 대대 내에서 대대장이 부하에게 부여하는 권한의 위양문제이다.

가. 그러면 대대에서의 권한의 위양권은 누가 갖고 있는가? 이는 완전히 대대장의 권한에 속

한다.

나. 대대장은 대대 내에서의 보직을 하기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가) 공직계급

(나) 전투능력(적기격추능력)

(다) 지휘능력 이것은 다시 부하의

a. 의뢰도

b. 정력

c. 판단력

d. 적극성

e. 기타 능력으로 세분된다.

그리고 기타 고려사항으로는

(가) 비행시간

(나) 친근도

(다) 개인의 능력 등이 있다.

## (2) 신분문제

인간관계에 있어 신분문제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흔히 인간관계의 고려사항으로는 (1) 육구 (2) 동기 (3) 비공식조직 (4) 참여 (5) 신분과 역할 (6) 집단역학 등으로 대별하고 있는만큼 미구나 어떠한 조직이건 개개인의 역할이 있는데 이는 그 조직에 있어서의 자신의 신분

적합하게 움직였을 때 좋은 역할을 하여 인간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며 조직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 전투대대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살펴볼까 한다.

가. 선임조종사는 지상에서나 공중(비행중)에서나 항상 말단직 존재이다.

나. 선배조종사의 충고는 절대적이다.

다. 비행기선택권의 우선권은 선임조종사에게 있다.

라. 조종사는 지상군부장교에 대하여 상당한 우월감을 갖고 있다.

## (3) 모임(Group 형성)

어떠한 조직이건 간에 Group의 형성이란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는 조직의 구성원의 생활양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조종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여기에 있어 놀랄만한 것은 미국인 다음지 않지(흔히 한국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선배, 후배의 관념이 전연 미국인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강조한다) 선임조종사와 선배조종사와의 구별이 상상의

로 명백하다는 점이다.

이와같은 현상은 앞서말한 미 F-4 대대를 방문시에도 너무나. 실감하였던 사실이다. 선후배의 관계가 한 국공군에 못지 않게 명백하다는 점이다.

가. 모임의 구성은 대략 7~9명 정도

나. Group 형성의 표준은

(가) 같은 계급

(나) 전투경험

(다) 비행시간

좀 더 나아가 범위를 좁혀서 개인적인 친밀도는 어떻게 무슨 표준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하기와 같다.

(가) 자자의 취미

(나) 성격

(다) 출신교

(라) 기타(음주 카야드놀이)

(마) 개인의 가치기준(윤리관·도덕관) 이상과 같이 되어 있다.

(4) 가치판단기준

가. 조종사들의 가치판단기준은 매일의 비행전 Briefing과 비행후 Debriefing에서 형성되어갔고

나. 선임조종사가 그 비행대에서 사용되는 특수용어(Slang)를 자유롭게 구사될 때쯤 해서 대대생활에 익숙되고 선배조종사와의 가치판단이 비슷해졌다는 사실

다. 경험(전투경험)이 무엇보다 제일 이고(이론보다 경험제일주의)

라. 타분야장교 및 특히 민간인에 대하여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고

마. 선배조종사로서 부하의 인망을 얻은 형은 침묵형이었고

바. 각 조종사의 교육정도에는 무관심이었고

사. 전투기조종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가) 비행기술

(나) 적기격추능력

(다) 진급문제

(라) 휴가

이와 같이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은 본인이 전투비행대근무시 느꼈던 한국전투대대의 분위기나 생리와 너무나도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점이다.

— 4 — 결론

「처음에 말하듯이 본소논문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본인이 군대생활을 중심으로 하였던 비행대대로 범위를 좁혔고 또한 여기서 직접 경험한 것 외에도 인접 미공군대대 및 2차대전시의 연구논문을 토대로 잠시 인간관계 연구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더구나 이와 같은 인간관계문제는 특히 지휘관리라는 관점에서 엿보았으며 거기에 부수하여 조금이나마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문제의 일부라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원래 제목대로 단일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는 내용을 충분히 다룬다면 불과 얼마 안 되는 지면 내에서 간단히 다루어질 수도 없고 또한 필자와 같이 불충분한 연구로서는 도저히 독자로서 하여금 만족할만한 결과를 유도해 내지 못

함도 명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지 여기서는 간히 이 문제를 본인의 경험과 능력 내에서 다루어 비행대대 내의 인간관계연구에 또한 지휘관리상 참고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무엇보다도 답이다.

공군의 중추인 「비행대대」, 이 비행대대에서의 「인간관계의 본질」이 무엇이나 하고 질문이 주어질 경우 본인으로서의 다음과 같이 답변할까 한다.

「원래 인간관계의 본질이란 주어진 상황 및 여건 하에서의 조직과 그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조화 내지 조직의 목표와 구성원의 목적과의 조정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며는 비행대대에 있어서는 공군에서 주어진 대대 목표와 조종사의 목적(개인실현욕구)과의 일치조정과정 내지 조화가 본질이 아닌가 간주되는 바다.

×

×

# 상 경 하 애 론

— 군인 상호간의 존경심과

사랑의 마음을 중심으로—

이 영 렬 군복



## < 1 >

「상경하애」란 말은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리 매력적인 말이 아니다.

옛날 글방에서 배우는 「한문공부」 같이만 여겨지고 시대감각에 둔한 어떤 도학자의 무념 같이도 들려지기 때문이다. 도대체 모두가 평등인 민주사회에서 누가 「윗 사람」이며 누가 「아랫 사람」인가 하고 되려 「반발 감정」마저 일어날 정도로, 「상경하애」란 말은 젊은 생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나 법과 윤리는 제멋대로 살려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조문이 아니다.

도리어 그런 법과 도덕의 무용지대에 서 질서를 세우고 미풍을 조상하는 의미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국민교육 현장에서 「경애」를 강조하고 또 우리 「공화」지가 군인 상호간의 「존경」하는 것과 「사당」하는 것을 특집

으로 여기 「심포지움」을 벌이는 까닭도 실은 이런 반윤리기풍을 틀어켜서 건전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보자는 데에 뜻이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덮어놓고 반발한 것이 아니라 한번 관심을 기울여 봄직도 한 일이다.

과연 현대의 윤리상황은 어떠한가?

군은 「상경하애」란 윤리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들이 부조화된 현실이라면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자.

## < 2 >

1948년 12월 10일 제3회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인권선언」에 의할 것 같으면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그럴만큼 인간 사회가 불평등했었고 이에 따른 문제들이 세계적 인 골치거리로 들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 미국에 있어서의 흑백문제, 남아나 남미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 등은 실로 이런평등해야 할 인권이 제도적, 관례적 인습 때문에 유린당하고 있는 실례이다.

인간평등이 깨어진 부분은 비록 피부 빛깔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연장(年長)의 권위의식이라든지 경제생활의 빈부차이라든지 또는 직업의 종류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같은 「사람」이면서도 「같이」 취급 받지 못하고 상하의 계층으로 구분되어 차별대우를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예수가 「형제」란 개념으로 인간평등을 제창했던 것을 상기할 때 현대 민주주의의 장점이라면, 그것은 곧 「자유」와 「평등」의 기본권을 입증 고취하는데 있는 것이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업에 따라서 상하귀천이 있었으며 출신에 따라서 상전과 종이 있었던 것이지만 봉건사회가 민주사회로 옮겨진 현대에 있어서는 그 누구라도 인간 가치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하가 있을 수 없게 된 것만은 사실이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가 이런 상하의 계층 질서를 반항할만큼 그렇게도 싫어하는 까닭은 인간 예우를 상하로 구분하고 「상후하박」 「상귀하천」 하는 데서 오는 정의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이론상으로 또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상으로 보아서 그런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직책과 권한면에서 강자를 향해 마치 옛날의 상전과 같이 아첨하는 배들이 있는가 하면, 지위상으로 자기 일을 손발처럼 돌보아 줄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혹사하고 멸시해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부류의 인사가 있는 것을 본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마땅히 민주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이단을 가른지 과거의 사회로 재생 소급해서 살든지 해야 마땅할 것이라 생각한다.

「존경」에 대한 관념도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좀 탈피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연령, 인종, 출신, 직업, 빈부의 여하에 따라서 사람을 상하로 구분해 놓고 그 상에 위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도록 한 「수신교과서」는 이제 반발에 부딪치고 있음이 확실하다.

「존경」이란 것은 사람의 내면적 감정이 지 제도상의 악세사리는 아니다. 그런 까닭에 마음의 동의없는 제도적 강요는 도리어 반발의식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 대로 우리네 사회에서는 봉건주의적 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사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데 재래적 권위의식에 사로잡히고 봉건주의적 사고방식에서 스스로에게 「존경」을 요구

할 때 과연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경의」가 돌아가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지어졌던간에 우리 스스로에게 지어진 어떤 「가치기준」이 세워져 있다. 가령 「선행」을 자기가 「옳고」 「좋은 것」이라고 일단 판단했다면 그 선행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자이건, 늙은든 어린든, 또는 인종이 다르든 같은 자연히 그 사람에 대한 「경의」가 표해지게 마련인 것이다. 혹은 「저식」을 자기가 「필요」로 하고 부러워하는 일이라 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면에서의 「권위자」는 존경을 내면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권위자가 비록 흑인이든 백인이든 또는 그가 부자건 가난하건 그가 과거의 귀족출신이건 천민의 자손이건 그런 것에 구애없이 바로 자기 가치에서 높게 평가되는 인물일 때에는 가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큼 스스로 셋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자처하는 사람은 이미 시대착오에서 있음을 알아야 하며 더구나 「잇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오산은 일찌기 청산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에게

는 소위 군대가 말하는 「하에」의 생각에 더 신경을 기울이는 것이 더 요구되는 바이다.

< 3 >

그런데 「군대」라는 사회는 사정이 다르다. 우선 인적 구성부터가 문제가 된다. 상존하비(上尊下卑)의 사상을 심어 하고, 반발하는 민주태생들이 학교를 갓 나와서 군대에 입대한다. 그래서 군대의 계급적 하부구조는 모두 상경개념에 반동요소를 지니고 있고 이에 반해서 군대내 상부구조는 이미 봉건사회의 경향을 갖고, 그런 잠재력이 아직도 자기신념을 지배하고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군대」라는 현실사회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토록 「평등」과 「자유」를 행세하던 일반 사회와는 달리 군대사회는 엄격하게 「자유」가 통제되고 「평등」이 무시 될 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계층」이 있어서 엄한 「강제」가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군대에서 「자학」행위가 일어나고 「도망병」이 생기는 까닭은 이런 가치개념과 생활습성의 극단적 변화들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셋 사람으로써 하엿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 기초는 이처럼 새로 들어오는 신병이나 부하들이 적어도 이런 철학적, 윤리적 토대 위에서 들어온 사람이란 것을 이

해해야 할 뿐 아니라 자기는 세대적으로 그들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까도 말한바 대로 군대는 그 사명과 철학과 윤리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군대는 놀랄만한 파괴력과 실상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고도로 발달한 과학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순간적 「멸절」을 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힘」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 적도 함께 갖추어서 「대결」하고 있는 것이 「군대」라는 것이다.

평평히 맞서고 긴장된 전선에서 한발의 오발로 인해서 대전을 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부실한 군무가 결국은 후방 국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만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가 군인 한사람 한사람의 저지라고 볼 때 과연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등」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는 자연 「균율」이란 다른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유」만 가지고서는 살 수 없다.

거기에는 「질서」가 따라야 「자유」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의」없는 자유와 질서는 우리의 바람직한 사회가 못된다. 그러기 때문에 「군대」라는 것은 「자유」와 「정의」

를 실현케 하기 위한 국제적인 「경관」으로써 그 존재가치가 인정되며 따라서 「무력」을 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 다른 제도상의 통수 질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사회는 상하의 구조적 정신적 제층을 부정할 수 있지만 군대만은 실로 상하의 제도적 구조는 당연한 필요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하의 질서가 용인된다 고 해서 거기에 곧 존경이 따라간다는 사고는 역시 아니다. 덮어놓고 헛사람은 존경을 해야 한다는 사고는 봉건제가 아닌 바에야 일어나지도 않고 타당하지도 않다. 다만 존경할 「조건」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존경은 있을 수도 있고 없기도 하는 것이다.

1966년 4월 본인이 전부대 군목들로 하여금 특기별, 복무연한별, 학력별로 조사한 “내부반 분위기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상급자를 인격적으로 신뢰하는가? 자기 마음을 터 놓고 말 할만한 상급자가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 14대, 부정 1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예를 들어 「국가에 대한 충성심」 37:4, 「반공에 대한 신념」 28:5, 「민족과 강요에 대한 애착」 22:4, 「병역의무에 대한 능동적 이해」 19:5 등의 비율에 비교해 볼 때 저극히 인색한 체질이 된 것을 분수 있다. 내용을 더 분석해 보

면 상급자일수록 더 자기 상급자에 대한 신뢰감이 적다. 그리고 특기가 고된 특기일수록 신뢰도가 낮은 현상을 볼 수 있다.

군대란 물론 「군기」라고 하는 강력한 외부적, 타율적, 통수질서가 절대 필요하지만 그러나 군대가 강하고 유익한 것은 장비나 병력보다 장비를 사용하고 전략을 짜내는 인적요소가 더 중요하며 그 인적요소가 타율적인 기강에만 궁극하여 종사하느니 보다 정신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오는 상호 존경과 신애의 기풍이 있을 때에만 그 군대는 강한 것이다. 그것은 비단 제급의 고하를 막론하고 서로가 존중할 줄 알고 그럴만한 조건과 이유를 힘써 찾아 내서 윤기있고 자기 생애 보탬이 되는 군대생활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통제에서 볼 때 거의 밥 먹을 정도의 비율로 상급자에 대한 존경심이 손상을 받고 있음은 피차간에 보다 더 반성할 것을 촉구하는 지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즉 하급자의 경우는 「군대사회」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상급자」의 「경험」 「능력」 등의 장점을 찾아서 존경의 도를 높여야 할 것이고 상급자는 또한 상급자대로 시대 감각의 착오와 존경 발생경우를 깊이 성찰해서 타율적인 상경이 아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신뢰와 존경의 기풍을 조

성해야 할 것이다.

〈 4 〉

군대가 엄격한 특수질서와 강인한 유대를 유지하는 데는 「상경」이라는 구호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 존경이란 상하를 막론하고 두루 퍼져야 하며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서로를 「빈교」 「사랑」하는 기풍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체 「군대」에서 「사랑」이란 낭만적 술어를 쓰는 그 자체가 우세한 것 같긴 하지만 역시 생명의 위기 결정선에서 같은 운명으로 종사하는 「전우」라고 할 때 그 「사랑」이 남녀간에 거래되는 그런 것과는 유가 다르다. 어떠한 「사랑」의 감정도 역시 「존경」과 같이 자기 철학 자기 의지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는 두 개의 철학적 속위에 살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 하나는 「실력은 의지」와 다른 하나는 「살리려는 의지」가 곧 그것이다. 우리는 그 누구고 본능적으로 생명에 대한 애착 위에 산다. 먹는 것, 활동하는 것, 모든 것은 궁극적인 점에서 곧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는 활동인 것이다. 임버룩처럼 「죽겠다」고 하는 소리도 「죽지 않으려는데, 죽겠다」그러니 「피롭다」는 표현이 정지한 표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사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경우를 허다히 발전하게 된다. 나만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것이 합리화될 때 궁극에는 그 남에 의해 자기가 살해될 논리와 가능성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사람들은 상호 공존과 안전을 위해서 협동이 요청되며 그런 협동의 체계와 단위에 따라서 갖가지 양상으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국가간의 법율이며, 국제간의 협상, 적게는 조합을 형성한 규칙이며 회사의 정관 등이 모두 이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도 살리는 의지 곧 「살려는」 의지와 「살리려는 의지」의 견인 산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살려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살리려는 것은 필요한 윤리인 것이다. 방대한 군비를 평화 사업에 돌려 쓰면 얼마나 좋으련만, 또 우리의 군 복무 기간을 보나 실게 자기들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활용한다면 얼마나 더 좋으련만,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살려고 하니까 집단 방위와 안전보장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네 생의 다른 한 축(軸)으로써의 정당하고 필요 불가결한 생의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살려는 의지에만 치중하고 살리려는 의지가 빈약할 때 그 불균형에

서 파생되는 것은 곧 「포악」과 「불의」가 일게 마련인 것이다. 동시에 살려는 의지없이 살리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는 “자기 진실”이 아니다. 이 둘이 서로 균형을 잡아서 조화를 이룰 때에만 우리들 자신의 생도 진전하고 또한 우리네 사회도 바르게 될 것이다. 「이기」와 「독선」에 사로잡힌 우리네 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가르친 예수의 정신은 본받을만하다. 그것은 사회가 너무도 「이욕」에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랑」과 「봉사」의 외침은 더 한층 갈망했고 또 그 가치도 입증받게끔 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된다. 요즘의 사랑은 매우 타락상을 보여 주고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소요」대로 행사하고 그대로 안 될 때 극한적인 비극을 초래하는 수가 허다히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랑」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살리려는 의지 곧 「사랑」은 상대방에서 어떤 사랑할만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랑」은 조건과 대상의 한정선이 따로 없다. 동시에 살려는 의지가 「생의 애착」이라는 구심적 성향이라면 살리려는 의지는 원심적 공여 형식인 「사랑」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동기가 어떻게 우리들 감정 깊은데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경험은 비단 이성간에

서만이 아닌 전우간에 혹은 상, 하급자 간에 호통한 아름다움으로 우리들 마음을 적셔 주고 있는 것이다.

< 5 >

매우 역설적인 논리를 전개했는가 싶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로 보고 그 바른 자리에서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실로 우리들 군대 사회도 인간끼리이 삶의 한 형태이니만큼 「군율」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가 신뢰와 존경과 우애가 넘치는 윤기있는 생활이 됐으면 싶다. 그것은 우선 인권의 존엄을 서로가 인정하고 거기 실려는 의지

와 맞먹을 만큼 살리려는 의지적 작용이 될있게 부각 생동해야 할 것이다.

아이젠하워 원수가 서거했을 때 영국의 몽고메리 원수는 이렇게 그를 평했다. “그는 위대한 군인이라기 보다는 훌륭한 「인간」이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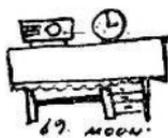
적을 대할 때는 우리는 엄한 군기가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끼리 상하급자가 대면할 때에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아끼는 한 「인간」의 정직성 아래에서 군복무를 보람되게 가져야 할 것이다.

—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

◇...사회의 어두운 면만을 보고, 실의에 빠져 정제하는 유약한 자에 의해서 밝은 사회가 건설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은 과거 우리 민족이 침체 속에 허덕였던 중요한 원인이 우리 민족의 역량이나 용기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갖은 역량과 실력을 올바르게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을 못가지고 항상 방황하고 있었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자신 없는 곳에 전진과 발전은 있을 수 없는 법이다.

# 상 관 론



## — 군내 상·하급자간의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소고 —

소 위 최 홍 길

### I.

사회 어느 집단이건 상급자에 대한 하급자의 심층깊이 뿌리박은 제일차적 잠재요소(감정·인상)는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상급자의 지휘능력이나 인간품성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적에 오는 그 집단, 그 사회의 파탄이나 혼란은 때때로 심각해지기도 하는 것 같다.

이에 군내정력은 짧지만 상급자도 모시고 하급자도 거느릴 수 있었던 필자의 1년여 군내생활을 통해 평소에 느껴오고 품어오던 「바람직한 상관론」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 II.

「군인의 길」 제 3항은 군내내 상

급자와 하급자간의 인간관계를 참으로 잘 깨우쳐 주고 있다.

「우리는 솔선수범하여 말은 바 책을 완수하고 명령에 복종하여 엄정한 군기를 확립한다.」

상관은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하급자로 하여금 혼연히 명령에 복종할 수 있도록 원만한 상·하간의 인간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엄격한 품위와 철저한 감독의 지휘권의 행사로 주어진 직분을 다 하며 나아가서는 바른 군기를 세워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군대는 어느 특정한 일 개인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전국민의 군대로서, 국민된 기본 의무로서 군에 복무한다는 계도 위에 뿌리깊이 서 있다.

그러므로, 어떤 상급자라도 부당

한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하한 부하장병(하급자)이건 정당한 상관의 지시,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여야 할 필연적 의무가 있다.

군대가 민간사회의 여러 제도나 생활관습과는 뚜렷하게 다른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엄격한 지휘복종·상하관계의 권위주의적 조직체라는데 있을 것이다. 항상 전투를 대비하여 있고 전투에 임하게 될 때보다 규율적이고 통일적인 행동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군대사회는 개인의 자의적·임의의 행동이 배제되고 일사불란한 명령계통 확립의 권위주의적 계급사회이다.

관공서나 일반 기업체 등 대부분의 조직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망정 일정한 권위주의적 성격을 내포하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군인과 민간인(공무원이나 회사원, 노동자 등)의 차이란 민간인은 개별적으로 또는 조합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명령에 불복할 수가 있으며 최악의 경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반면, 군인에게 명령불복이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있을 수 없으며, 임의대로 군인신분 내지 부대소속을 거부, 이탈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즉 군인은 집단이탈의 자유와 지배·복종의 상·하 계급질서를 거부할 수 없는 일반 사회인보다도 더욱 강력하고 과중한 규율과 통제 속에 배여 있다 할 것이다.

어느 나라 군대이든, 군대사회에 있어서는 말단 병에서부터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확실적이고 분명한 계급적 차이와 서열이 있으며 이러한 위계설정에서 오는 인간관계란 자못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군대사회의 개별적 성원이 사람이고 인간 집단인 한 집단존립의 확실한 근거를 들어내기 위해서도 웬만한 인간관계란 여타 사회적 공공집단의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겠지만 군대사회나름의 상·하간 인간관계가 설정된다 하겠다.

우리 군대내에서 인간관계로 해서 말성이 된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일본식 상·하관계에서 기인

된 것으로 생각되며 소위 「기합」이라든가 일병이 이병 위에 군림하는 따위의 일들은 우리 민주군대에서 모두 일본군대의 폐습이요 잔재라고 할 수 있으니 절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보다 합리적인 장병간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군대는 서로 다른 관념과 배경을 가진—어떤 점에서는 잘 융합·화합될 수 없는 연차를 둔—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상황·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집단생활을 할 때 충돌·마찰이 생기기 마련이다. 과거식 군대관념에 젖은 고참과 새로운 개인 인격존중의 사고방식을 가진 신입자, 교육정도에서 오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 지방적인 차이에서 오는 도시출신과 농촌출신, 직업군인과 단기복무자 등, 생활감정 내지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가지 불협화 요소는 여간 중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군대가 전쟁이라는 비상사태에

항상 대비하고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승리를 목표로 한 효과적 전투를 하려면 단일권위에 종속된 조직을 유지하고 상하 지휘·부종의 제급질서가 뚜렷한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다. 군대가 여타 사회 공공집단의 조직원리를 가지고 전쟁이라는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에 관한 국가존립의 막중한 임무를 담당해 내기란 실제로 어려운 것이다. 즉 권위주의적 인간관계는 군대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며 엄정한 군기와 일사불란한 명령체통은 「군대의 명줄」인 것이다.

그러나 부하의 전인격적 예속을 강요하는 봉건적, 전제적 인간관계는 현대와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배제·방기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전제군주사회에 있어서의 군대는 과거 중세 봉건시대 및 그 이전의 원시적 병기로 전쟁이 수행되었을 때나 적합했던 것이다. 그 당시 개인 병기의 화력이 약했고 군인 각자의 개별적 능력이나 기술 또는 이니시아티브를 크게

요하지 않았으므로 유능한 지휘관의 절대적 권위하에 기계적 수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으므로 그러한 군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엄격한 규율·통제만이 질서 있는 전투수행의 요체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군대는 고도의 기술과 개인적인 기량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군대로 발전했으며 작개병사가 취급하는 화력도 과거와는 비교될 수도 없을만큼 강력하게 되어 군인 각자는 싸우는 투사이기 이전에 전술 및 기술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의 능력 내지 판단력 「이니시아티브」가 크게 요청되는 군대조직 자체가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형태로 변모하게 되었다. 더구나 현대전에 있어 전술적 기술은 다기하고 복잡한 것이어서 자기 분업화된 전문가들의 조정 위에서만 가능케 되었다.

### III.

오늘의 군대에 있어 과연 전체적 규율만으로 올바른 규제와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과거의 군대사회는 부하에게 목적의 설명없이 필요한 명령만 내리고 그 명령수행을 보장키 위해서 설득이나 회유 등의 긍정적, 개방적 자극보다는 위협이나 기합, 구타 등의 부정적, 배쇄적 자극만으로 하급자의 기계적 맹종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군대에 있어서는 군대의 사명과 전쟁목적 내지 국가관 및 올바른 사생관 확립의 이념적인 무장과 이에 따른 군인 각자의 맡은 바 임무수행과 임무수행을 위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며, 기계적, 수동적인 즉자반응보다는 자자 개인 판단능력을 위주로 그들 상호간의 효율적인 조정에 의해 전투행위가 수행되어야 하므로 지휘관자의 단순한 지배, 통제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오히려 지휘관의 지휘권 행사에 있어 폭넓은 조종과 운영의 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즉 직접적인 직선적 명령보다는 부하(하급자)의 능동적 자발적 추종을 구하도록 설득, 회유시키는 간접적 방법과 집단목표, 집단방위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스스로 목표달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리더십」이란 이유없는 명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게 될 명령근거를 이해시키며 종래의 전통적 신체자극의 위협보다는 긍정적 자극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개인의 성향, 취향을 무시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이해, 고무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국군이 진실로 민주군대로 지향, 발전하고자 한다면 상급자가 위에 군림하는 과거의 낡은 방법에서 벗어나 하급자를 선의로 조종, 선도하여 집단적 합치에 근거한 발전적 행동의 건전한 새로운 민주적 기풍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엄격한 군대조직과 권력의 집중 및 조정의 강요라는 군대 본래의 구조 원리가 확립되는 데서만 가능한 것이다.

#### IV.

「상탁불청」의 옛 말과 같이 그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신수범으로써 부하를 인격적으로 지도한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통솔원칙의 제일보이며 명령준수의 요체임을 깨달아야겠다. 더우기 자신이 먼저 이행하지 않으면서 부하장병에게 일방적으로 강요, 강압하는 것은 곧 전형적인 월권행위라 볼 수 있다.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사병들은 군의 조직상 장교의 우월한 지위는 반드시 군의 전체이익을 위해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한 이것은 사병의 개인적 병등의 인정을 군사명수행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는 생각의 정당성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만일 그들이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동안 훌륭하고 참되게 관찰하였다고 하면 사병은 장교가 그의 직무를 다하고 위업을 유지하며 또 국가가 그에게 부여한 권한과 일치되는 이상실현을 마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직책에 있는 상급자이든 부하장병의 모범이 되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부하장병의 몇

갑결의 고역을 감당,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자제력, 그리고 진실로 상급자나름의 헌신적이고도 실천적인 상급자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옛말(병서)에 「우물을 파지 못하였으면 상급자는 목마른 것을 말하지 말고, 천막이 아직 쳐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로를 말하지 말고, 음식이 되지 아니하였으면 배고픈 것을 말하지 말고, 겨울철에 가죽옷을 입지 말고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말라. 이것이 예장이다.」라 하였다 한다. 군인, 더우기 상급자된 사람에게 이에 [더한 좌우명이 있을 수 없겠지만 다수의 부하를 거느린 상급자라 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완전무결할 수 있는 초인간적인 위인이나 천재를 기대하기란 어려우므로 완전무결한 초인이나 위인이기 보다는 차라리 여러 전문분야에 걸쳐 폭넓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배경적인(?) 인격인이 될 수 있는 상급자여야겠다는 것이다.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지휘,

통솔에 있어서는 국가행정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요구되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학에서 말하는 관리자의 요건, 곧 지휘관리자로서의 요건이 구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고 지휘관에서 말단 지휘관에 이르기까지 부하통솔의 지휘권자로서 인격과 능력과 체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요건이 되는 것이다. 즉 지휘권자는 자신의 직책과 부하의 직무에 대하여 올바른 사고력과 여러가지 착상과 추리의 판단력을 가져야 하며 임무원수들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하급자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부여하는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인격면에 있어서도 하급자(부하)의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또 감화력을 줄 수 있는 풍부한 인간미로서 지휘권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관리학자 테리(G. R. Terry)는 상급자, 지휘권자의 구비요건으로서 ① 지력 ② 교육 ③ 특

수한 기술적 지식이나 기능 ④ 수완 ⑤ 정력 ⑥ 패기 ⑦ 인격 ⑧ 판단력과 상식 ⑨ 건강 등의 9개 항목을 열거하였고 행정학자인 굴릭(L. Gulick)이나 영국의 글라든(E. N. Gladden) 같은 이도 지휘자의 구비요건으로서 자기나름의 의견을 제시하였지만은 모두가 한결 같이 내세우는 바는 상급자, 지휘권자는 그들 처지와 정도에 맞을 수 있는 하나의 건장한 인격인, 신사여야겠다는 것이다.

재론하지만, 과거에 있어 상급자는 명령과 복종의 절대성을 배경으로 한 특정계급이었고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계급에 의하여 지휘통솔이 가능하고 계급 이외에 다른 것을 크게 요하지 않았지만은 오늘날과 같이 민주적인 사회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 집단적 활동에 있어 민주적인 협력체제와 구성원의 역량을 다한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노력의 규합을 이루지 않고는 집단의 힘을 최고도로 끌어낼 수 없도록 사회상황이 변화한 시대에 있어서는 상급자의 인격

과 역량을 내실로 하는 「리더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새로운 지휘권자의 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상호협조와 의사소통에 의한 고도의 협동성을 구현하여 상호간의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 지휘권자의 각 계층에 걸쳐 걸쳐 중요한 지도기능으로서 「리더십」의 진가가 들어나게 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리더십」은 지휘권자의 인격과 역량과의 불가분한 관계에서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① 충실 ② 적극성과 창의성 ③ 선의와 신념 ④ 현실성과 기획성 ⑤ 인도주의 등을 스스로 갖출 수 있어야만 효율적인 「리더십」이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결코 배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사실은 법규적인 권위나 직위에 따른 권위나 계급에 따른 권위 이외에 개인의 인격과 덕성, 기품과 교양 등에 근거한 개인적인 인격적 권위가 병행되어야만 훌륭한

지도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유능한 상급자, 지휘권자의 「리더십」은 법규적 권위와 개성에 지닌 인격적 권위가 합쳐져야만 비로소 가능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성의 인격적 권위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커날 수 있으며 제2의 천성으로서 발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선의의 인간관계는 「리더십」과 관련하여 물질적인 면과 더불어 정신적인 면에서 조성되는 것이며 이 정신적인 면은 지휘권자의 도덕적 지도이념의 확립

여하에 따라 감화력의 비중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급자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물질적인 만족을 충분히 제공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정신적인 면에서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선의의 인간관계를 조성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도덕적 지도이념을 확립하고 이물 굶은 신념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데서 하급자(부하)의 감화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 박 대통령 문언록에서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쟁과 발전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자유와 안전에 대하여 부단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위험권내에 살고 있다.

○...「소박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서민사회가 바탕이 된, 자주독립된 한국의 창건」— 이것이 본인의 소망이다.

○...인간개조는 자기의식의 혁명이며 나아가서는 자유 민주주의하에서 살 수 있는 인간의 자질을 형성하는 것이 된다.



# 부 하 론

조영·김국창

- ...「상관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상...○
- ...관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실...○
- ...천하는 부하가 되라. 이것이 곧 참다운 부하가 되...○
- ...는 길이다. ....○

## 1. 상관과 부하

군대사회의 특징은 그것이 권위주의적이며, 엄격한 계급제도를 본질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계층의 한계가 엄격하고 통수제통의 확립을 고도로 요구하는 제도로서 모든 사고방식과 가치판단이 수직적으로 이루어 짐을 잊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군대조직에 있어서는 철저한 상하관계가 성립되며, 강력한 상명하종(上命下從)이 요구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상관으로부터의 하향적인 명령과 부하로부터의 상향적인 복종이 없는 군 임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군의 존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하나의 사회체제가 성공적으로 운영 되려면 그

체제 속의 구성원 각 개인에게는 일정한 임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각구성원을 지휘 통제할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직위와 직책이 구분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군대도 하나의 사회체제로서 일반사회와 뚜렷하게 다른 점은 군대조직은 강제성을 수반하며 군조직을 지휘통솔하기 위한 직위가 계급과 서열로서 확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 직위에 는 권위와 존엄성이 엄격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계급구조가 확연한 군대사회에 있어서는 동일 계급일지라도 기수 또는 군번에 의하여 선후임의 서열이 정하여져 있는 것이므로 두 사람이 상의 군인이 모이면 반드시 지휘자와 피지휘자의 관계 즉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다고 볼 수가 있

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군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임무를 수행하든 간에 총책임 을 져야 할 지휘관(상관)이 있는 동시에 책임에 따른 임무를 담당 수행하여야 할 부하가 있게 마련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필연 적으로 부하에게 명령과 지시를 내리게 되며, 부하는 이에 복종하여 임무를 수 행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이런 경우 지휘관이 지는 책임이야말로 지휘관 자신만의 책임은 아니며, 부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워진 책임의 총화된 책임을 지휘관이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물과 고기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이 고기에 영향을 미치듯 부하의 무책임이나 책임의 그릇된 완수가 곧 지휘관의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서 부하된 자는 마땅히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영광되게 완수하기 위하여 상관이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결과를 요구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몸과 마음을 다바쳐 임무를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국가를 위하는 길이고 상관을 영광되게 하는 동시에 나를 값지게 하는 길이며 상경하여 하는 명량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는 청경일 것이다.

## 2. 참다운 부하가 되는 길

### 가. 진심으로 상관을 존경하고 따르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관과 부하의 관계 즉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본질로 하여 이루어진 군대사회는 강력한 질서와 규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하의 계급관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인간관계가 등한하여질 엄려가 없지도 않은 것이다. 특히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포연이 요원의 불꽃처럼 작열하는 전쟁터에서와 같이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극한 황상하에서는 더욱 더 우려가 큰 것이다. 만약 처절한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부하가 있거나 부하를 불신하는 상관이 있다고 치자. 그 부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패전의 고배를 마실 것이며, 전멸의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을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가정이 가정을 중심으로 굳게 뭉칠 수 있듯, 우리 군대에서도 서로마음 속으로부터 아끼고 존경하는 인간관계의 형성을 통하여 상관은 부하를 사랑하고 보살피며, 부하는 진심으로 상관을

존경하고 따르는 가정적인 분위기의 조성이 결실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일찍이 칸트는 「나는 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지 못한 군인을 볼 때 가장 서글프다」라고 말한 바가 있거니와 인간적인 바탕이 없이는 훌륭한 군인의 성립이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상관을 존경할 줄 알고 위할 줄 아는 부하가 진정 동료도 위할 줄 아는 군인이 될 것이며, 생사를 판가름하는 결전장에서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전우를 위하여 목숨을 캐척할 수 있는 참다운 군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관은 부하에게 명령을 하며, 부하가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때로는 힐책을 할 경우도 없지는 않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타 이름과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서 국가의 지상명령을 담당 수행하는 젊은 대열에서 한 사람의 낙오자라도 발생치 않게 하기 위한 사랑의 손길인 동시에 우국충정에서 기인된 상관의 참된 배려임을 명심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상급자도 인간인 이상 때로는 그릇된 명령을 내리거나 감정을 나타낼 경우도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부하된 도리로서는 상관에 대하여 증오를 하거나 불만

을 토로하여서는 안 되며, 일단 명령을 시행에 옮기면서 냉철한 반성과 검토를 거듭한 끝에 불합리한 점을 걸러한 마음과 공손한 자세로서 건의하거나 호소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관은 부하가 개인에게 주어진 책임의 총화이나 상관 자신의 책임까지를 합한 많고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동시에 그는 우리(부하)의 대표이며 상징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부하된 자가 존경하고 따라야 할 큰 이유중의 하나인 것이다.

부모가 영광스러울 때 자식도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자식이 불명예를 당했을 때 부모도 불명예를 느끼듯 상관이 영광스러울 때 부하도 영광스러움을 느끼며 부하가 불명예를 범했을 때 상관 역시 불명예를 느끼게 됨은 인지상정으로서 본질적인 면에서 하등의 차이가 없을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부하된 자는 모름지기 상관을 부모나 형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존경할 것이며, 참된 마음으로 따르고 성실하게 복종하여 상관과 부하의 공통된 영광의 광장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성실하게 복종하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속

명적으로 복종의 굴레를 쓰고 태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 부모님으로부터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주위의 강자로부터 자발적이든 혹은 강압적이든 간에 복종을 하는 가운데 성장하여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흔히 복종은 약자의 철학이라고 비웃기도 한다. 그러나 참다운 의미의 복종은 민주주의의 정도로서 결코 약자의 서글픈 역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강자이기 때문에 지성을 지닌 민주시민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미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순응함을 누가 감히 약자의 철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민주시민이 국가의 헌법을 준수함을 어찌 약자의 슬픈 역사라고 비웃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국토방위와 민족수호라는 숭고한 이념 아래 명령과 복종의 관계를 근본으로 하여 조직된 군대에 있어서 참되게 복종하는 부하의 자세야 말로 진정 신성한 것이며, 값지고 영광된 것이 아니겠는가!

결코 우리 군대는 어떤 특정된 인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군대로서 국방의 승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하한 상관이라도 부하에게 부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내릴 수 없을 뿐더러 여하한 부하라도

상관의 정당한 명령과 지시에 불복한 하등의 권리도 없는 것이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함은 부하의 도리인 동시에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복종에 임하는 부하의 태도에는 관이하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성실하고 진지한 복종이요 다른 하나는 년전의 복종에 그치는 가장된 현실도피적 복종인 것이다. 전자의 경우 우리는 확립된 통수계통과 일하는 군대로서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겠으나 후자의 경우는 통수계통의 문란은 물론 군기가 땅에 떨어진 오합지졸의 집단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군대는 국가 유사시에 생사를 가능하는 사지에 투입될 것일진대 상관의 명령을 가식적으로 복종하나 함은 아군의 패배를 자초하는 이적행위로서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부하된 자는 마땅히 상관의 우월한 지위가 국가와 군의 이익을 위하여 명령과 복종의 관계에서 확고하게 보존되어야 하며 상관으로서 명예롭게 그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의 명령에 성실하게 복종하는 참다운 부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다. 지성으로 책임을 완수하라.

군대란 광범위한 책임으로부터 생성(生成)하는 조직체로서 책임을 지는 일

장에서 계급의 고하는 있을지언정 책임을 이행하는 자세나 혹은 가치에 있어서의 계급의 높고 낮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위로는 군의 최고사령관으로부터 밑으로는 최하 이등병에게 이르기까지 저마다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같이 중요하고 신성불가침한 것으로서 이 모든 책임들이 한결같이 완전무결하게 완수될 때 비로소 군의 목표는 성공적으로 달성 되는 것이다.

이층의 우하를 빌릴 필요도 없이 사람에게 있어서 머리, 손, 발, 눈, 코, 귀 등이 다 제대로의 책임을 완수할 때 인간은 신체의 보존과 생명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발이 움직이지 않거나 눈 등이 제구실을 못한다면 인간은 폐인으로서 사람구실을 할 수 없듯이 거저의과를 지키는 일개 보초가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여 폐이다 사람이든가 폭파되거나 계류장에 계류중인 항공기가 파괴당한다면 공군이 공군으로서 제구실을 다하지 못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책임을 완수함에 있어 상관과 부하의 구분이 있을 수 없으며 계급의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책임수행에 있어서 가치의 경중이 있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인식

할 수 있는 사실로서 나하나쯤의 적당주의적인 책임의 이행이 어떠랴 하는 안일무사주의적 사고방식이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수레의 앞을 끄는 사람에게서는 끄는 영광이 있고, 뒤를 미는 자에게 미는 보람을 느낄 수 있듯이 부하를 지휘 통솔하는 지휘관은 지휘관으로서의 영예가 있는 것이며, 모두가 고이잡든 십야에 거저의과를 지키는 초병에게는 자기의 수고로 전우들에게 편안한 수면과 안전의 복음을 전하여 줄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책임을 피로운 의무라든가 귀찮은 부담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는 자기 대로의 커다란 값어치와 의의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것이다.

부하로서 상관에 대한 책임의 완수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것이 되어야 함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며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한 가지의 책임을 완수하더라도 이를 보다 훌륭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연구를 거듭하며 창의력을 발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적당하게 눈가림

식으로 최소한도의 책임을 완수하면 된다  
는 피동적인 행동과는 그 결과를 비교하  
여 볼 때 하늘과 땅의 커다란 차를 남기  
될 것이다.

상관 앞에서 가식된 복종과 희망된 책  
임의 완수를 농하는 적의 부하가 포화가  
불비처럼 쏟아지는 싸움터에서 어찌 일  
신을 적의 포화의 방패로서 패히 내 던  
질 수 있을 것인가!

책임을 완수하는 마당에서 가식된 수  
백가지의 행동보다는 지성어린 한 가지  
의 행동이 더 소중할지니 부하된 자는  
상관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오직 지성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완수  
한 책임에 대하여 지휘관이 확인치 않아  
도 안심할 수 있도록 최대의 신뢰성을  
늘 견지하는 부하가 되어야 할 것이다.

### 3. 결 인

국가와 민족이 개인의 본질적인 근본  
이며 모태라고 생각할 때 국가와 민족을  
떠나 「나」라는 개체의 존립을 생각할 수  
없듯이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상관이  
든 부하이든 간에 「나」개인에 역점을 두  
어 주장할 수 없으며 오직 국가와 민족

수호라는 공동의 이념으로 뭉친 조직 속  
의 개체임을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관과 부하의  
차이는 계급이 다르고 책임과 임무의 질  
이 다를 뿐 어느 편이 더 가치가 크든든  
가 중요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상관의 책임은 부하들 각개인에게 주  
어진 책임의 총화라고 볼 수 있으며, 책  
임에 따른 임무의 실제적 수행에 있어서  
의 비중은 오히려 부하에게 있음을 우리  
는 잘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부하  
의 무책임은 곧 상관의 무책임의 모체가  
되며 이에 따른 상관의 무책임은 곧 국  
가방위에 차질을 가져오게 됨을 부하된  
자는 재인식하여 상관을 부모처럼 존경  
하고 따를 것이며 상관의 명령에 성실하  
게 복종함은 물론 지성으로 책임을 완수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국가에 충  
성하는 길이요 상경하애의 기풍을 진작  
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X X X

상관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기대하  
기 전에 상관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를 늘 생각하며 실천하는 부하가 되라.  
이것이 곧 참다운 부하가 되는 길이다.



# 내가 바라는 상관

중 사 · 옥 재 성

오늘도 쉬임없이 나는 전친후 요격기의 폭음 속에 나의 일과는 또 시작된다.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에 손으로 헤일 수 있을 정도의 변화 외에는 거의 같은 근무가 나를 짜증나게 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바쁜 근무보다는 근무장의 모든 환경, 특히 계급의 상하에서 오는 군대나름대로의 "Human-relation"이 더욱 중요하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떠한가 따라 가정의 분위기과 가족들의 생활상태가 결정되듯이 군대의 상관에 「리더쉽」에 따라 부하의 사기와 근무장 분위기가 좌우된다고 본다.

모든 만물에도 오성음양이 있듯이 상관들의 성격과 행동도 다양각색임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다양각색의 상관들의 성격을 나의 개성에 부합시킨다는 것은 극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각이 진 상관의 성격을 고쳐 보겠다고 겁없이 말하는 부하들도 또한 없을 것이다. 다만 부하들은 상관의 따뜻한 사랑과 너그러운 이해심을 바랄 뿐일 것이다. 상관의 따뜻한 사랑이라면 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

66년도 연말 배의 일이다.

내부반원의 반정도가 연말휴가를 나간 텅빈 내부반은 몹시도 쓸쓸했다. 차가운 북풍이 유리창문을 때릴 때마다 고독이 엄습해오는 무섭도록 쓸쓸한 저녁이었다. 군인이라는 것도 방각한 채 향락에 도취되어 있을 동료들을 생각하며 의미없는 시선을 창가에 보내고 있을 때 중대장님이 들어 오셨다. 잠생각을 떨구어 버리고 경례를 했더니 빙그레 웃으

시면서 『심심하지? 우리도 피아티나 열어 볼까?』 하시면서 위스키 한 병과 과자를 내 놓으셨다. 너무도 생각 외의 일이다. 한동안 넋을 잃고 있으려니 『집에 가지 못해서 안 됐구나, 자— 한 잔하고 유쾌하게 놀자』 하시면서 나에게 한 잔을 권했다. 얼얼불은 마음이 금새 녹아 버릴 듯한 따뜻하면서도 인자하신 말씀이었다.

평상 집무시엔 그토록 엄격하신 중대장님에게도 이렇게 따뜻한 애정이 있었을까 하고 의아심을 줌을 정도로 다정하셨다. 덕분에 전례 없이 뜻깊고 보람있고 조용한 연말의 한 때를 즐길 수 있었다. 그 후에도 중대장님을 대한 테마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심과 복종심이 더 강해짐을 의식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면 훌륭한 상관이고 불친절하게 대해 주면 인격이 부족한 상관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냐? 하며 나의 예고이즘의 오관이라고 비난하겠지만 그런 뜻에서의 이야기는 물론 아니다.

옛날 나폴레옹이 시구를 위협할 당시에 야간순찰 중 총을 권채로 잡들어 있는 병사를 보고 자신의 외투를 벗어 덮어주고 대신 경비를 섰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상관으로서의 진실한 하애정신을 존경한다는 이야기이다.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라는 생각을 해야 하고 상관이기 전에 부하들의 아버지 혹은 형이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부하들이 갈구하는 상관의 이미지인 것이다. 상관의 이유없는 히스테리는 부하들에게 공포와 불안을 안겨줄 것이며, 자발적인 복종심이라기 보다는 공포에 질린 피동적인 눈가림이라고 생각한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사랑이 없는 엄격 일변도의 상관으로서 군림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상과하의 대화의 벽을 만들 뿐이라고 생각한다.

2년전 봄에 있었던 일이다.

C중대장님과 BNQ 하사들이 Discussion을 가진 때가 있었다. 얼마간의 대화로 처음보나는 한결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

『귀관들이 생각하는 중대장으로서 수정되어야 될 점은 무엇인가?』

나는 내대 전원의 불만이었던 외출전에 대해서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중대장님은 전에 제신 중대장님 보나 외출여체가 너무 심하시고 병영생활에 있어서의 기본적 자유까지도 간섭이 심하십니다. 때문에 내무반원들의 불만이 대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인식했던가?』하고 상기된 얼굴과 격한 어조로 만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네』

하고 힘있게 대답했다.

장교와 사병간의 교양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사관의 임무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중대장님에게 에로사항을 건의했던 것이 이토록 중대장님을 격하게 단들었던가.

최고도의 성능을 자랑하는 핵무기로 무장한 군대라 한지라도 인화단결과 상경하에 정신이 없이 전투에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나를 인간으로 대할 때 나는 준병이 되고 나를 준병으로 대할 때 인간이 되고 싶다』라고 하던 동료의 말이 생각난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씩 그 동료의 말이 생각날 때마다 비록 내가 행정계 선임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주의깊게 부하들을 바라 보며 지금도 옛날의 그 중대장님을 생각해 본다.

앞에서 말했듯이 리더인 상관의 성품에 따라 군력이 강해지고 약해짐을 생각할 때 상관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삼 느끼게 된다. 고로 진실한 애정에 인식하지 않으며 나폴레옹 같은 판대하고 교훈적인 하애를 우리 사병에게 배풀어 줄 수 있는 상관을 바라는 것이다.

×



# 내가 바라는 부하

조 명 · 김 상 호

내가 군생활을 십여년 동안 하여 오는 동안 여러 사람의 부하를 가져 보았지만 막상 『내가 바라는 부하』란 어떤 유형인가 하는 것을 한 마디로 말 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느꼈다. 그러나 지금 가만히 지난날을 회상해 보면 몇몇 사람의 친밀했던 부하들의 모습이 눈에 떠 오른다. 지금 그네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금방 초식이 금금해 짐은 내가 정이 많은 탓만은 아니리라. 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히 그 사람들이 기억에 남아 있다는 것은 그네들의 태도가 나에게 무엇인가 흐뭇한 감정을 넣어 준 것은 틀림이 없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나는 내 기억을 더듬으면서 몇 사람의 부하를 이야기해 봄으로써 내가 바라는 부하의 수형을 찾아 내보려 한다.

내가 소위 때의 일이다. 내가 처음으로 부임된 곳은 ○○수리장이었다. 그때 내 주변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치는 사병 가운데 날이 갈수록 호감을 가지게 하는 어린 사병이 눈에 띄었다. 신상병이라 했다. 신상병은 도대체 앉아서 노는 일이 없었다. 상급자가 시키는 일은 백퍼센트 해내면서 틈만 있으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이마에는 항상 땀 방울이 맺혀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언제나 책이 쥐어져 있었다. 일을 시키면 부지런히 빨리 해치우고는 곧장 책을 펴 보는 것이었다. 한번은 내가 물어 보았다. 너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느냐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일할 것이 있으면 빨리 해 치웁니다. 밤에는 근무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깐요』

그의 자그마한 눈은 빛나고 있었다. 자기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굳센 의지력이 있었고 시간을 아껴 쓸 줄 아는 훌륭한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근무에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사병이면서 운명에 굳세게 배전하는 신상병... 한 마디로 말해서 위대한 노력형이었다.

내가 ○전비에서 근무하던 때의 일이다. 야대 기관대라면 문자 그대로 기름 투성이로 밤늦게 일하기로 이름이 높은 곳이다. 거기 유하사라는 하사관이 있었다. 말없이 맡은 일은 착실히 해 내는 실전형이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칭찬하였다. 나는 그의 어떤 점이 나에게 호감을 주는 것인가 의아심을 가지고 그를 관찰해 보았다.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선 외출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대신 부대에 남아주는 미덕을 쌓고 있었다. 야간작업에는 으레 유하사가 남았다. 한 번은 왜 좀더 남처럼 외출도 하고 편히 쉬지 않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의 대답이 놀라웠다. 자기는 외출하지 않아도 조금도 불편이 없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현실을 완전히 적응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신념이 있었다. 즉 『남을 위해서 살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도운다』는 위대한 신념이었다. 나는 그의 달관적 생활태도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다.

내가 11전투비행단에 왔을 때 나의 선임하사관으로 일했던 문중사도 내가 신입하는 부하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고 싶다. 그는 한 마디로 말해서 출선수범형이었다. 그는 누구의 감시가 필요치 않았다. 그는 상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행동을 그의 부하의 지도에 적용시켰다. 따라서 하급자들에게 매우 엄격하였지만 그 자신이 업무에 충실하기 때문에 약점이 없었다.

한번 일을 맡기면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내는 문중사! 그래서인지 그는 총각이었는데도 데머리가 심한 편이었다. 얼마전 시내에서 우연히 그를 만났을 때 모 회사의 모범사원으로서 여전히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음을 알았다. 나는 출선수범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랑

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 확인했다.

이제 내가 바람직한 부하에 대해서 종합해 본다면 시간을 아껴줄 줄 아는 사람, 장래를 설계하고 조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신념을 가지고 현실에 극복해 나가는 사람, 남을 도우는 사람, 솔선 수범하는 사람 이와같은 사람들이 가장 인상에 남고 훌륭한 부하임과 동시에 훌륭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장점을 다 갖출 수는 없다. 그러나 신상병이나 유하사나 문중사는 다 같이 하나의 생활신조에 의해 굳건히 생활에 임하고 있었음을 나는 안다. 부질없이 술만 몇삼아 약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군대생활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느니 어쩌구 저쩌구 제법 저절이면서도 그실은 인생의 참된 모습에 젖어보지 아니한 못한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 군대생활에서 낙오하는 사병들치고 마음이 약하지 아니한 자들은 거의 없다. 그래서 조금만 편안해 보이는 자리만 있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고 조른다. 정말 본인을 위해서 얼마나 불쌍한 일이라.

미국의 군인들을 보라. 세계 각지에 분연히 배속되어 가서는 집에는 일결의 불평을 할 줄 모르고 진속을 하겠다고 친지를 못살게 굴지 않는 그들! 나는 우리 젊은 사병들의 마음이 너무도 약함을 통탄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자 이제 끝으로 내가 정말 바라고 싶은 부하란 어떤 유형인가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 『강한 인간』 바로 그것이다. 강한 인간이란 곧 신념이 있는 인간이요 책임감이 강한 인간이요 나아가서는 능히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인간이다. 이 세상에 강하지 아니하고 위대해진 사람은 없다. 강한 인간이란 곧 자기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나는 나의 부하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기를 원한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비상한 노력을 통한 강한 인간의 실현! 이것은 부하에만 국한되어질 수 없는 우리 군인 전체의 과제이기도 하다.

# 내가 잊지 못하는 상관



상 사 · 김 인 두

교락을 같이 하던 「오준석」님과 헤어진지도 5년여.

그러나 신문지상이나 방송뉴스의 한 토막을 통해 간혹 그분의 근황을 접할 땐 지금도 감개가 무량하며 자신도 모르게 흥분되기가 일수다. 젊음을 바쳐 쌓아 올린 19개 성상이란 긴 세월 속에서도 철없이 지나간 어린 햇병아리 군인시절보다는 한 가정을 이룬 오늘의 현실이 앞서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오래도록 잊혀지지 않는 상관! 언제나 생각나면 안부를 묻고 싶게 되는 충동... 그분이 지금은 국사에 참여하고 들보는 어엿한 국회의원이 되었기 때문보담 그분의 인간적인 면과 남의 추종을 불허하는 충실한 군생활에서 항상 존경하여 왔기 때문이라. 그는 언제나 부하들의 다정한 형으로서 매사에 아량을 베풀고 따뜻한 배려와 관용을 아끼지 않았다. 수 없이 많은 상관을 모시고 지나온 나로서는 그중 희비쌍곡이 교차되는 잊지 못할 추억이 또한 많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잊혀지지 않게 세월이 지난수록 오히려 더욱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 나의 뇌리에 깊숙히 박혀있는 것 같음은 쉰 일일까. 작은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항상 가족적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서민적인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실원중에 환자가 있으면 근심된 표정으로 친형이나 뉘듯 의무실로 곧장 메리교가 약을 먹도록 해주셨고 약이 없으면 시내에 나가 자비로 약을 구입하여 치료에 신경을 써 주신 일... 교향을 멀리한 실원의 생일을 일일이 기억, 집으로 초대하여 막걸리 한 잔에 그날을 축복해 주신 일 등 나의 심금을 울리는 사연이 많다. 처음 우리 사무실 실장으로 취임하여 오시던 날 「방을 구하여야 했는데 알

고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오.] 얼마짜리정도 전세 독채 등을 말하고 나서는 「전에 K-13에 있을 적에 형님이 집을 한 채 사준 일이 있는데 군대생활을 오래하다가 보니 집도 없어지고」하셨을 때 다른 의무에서 의아하게 생각도 되었다. 그 실정을 알고서는 협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진심에서 일어났다. 즉 다른 동료분들 중엔 새 집을 마련하는 이도 있는데 이분만이 유독 낭비가 있는지 다른 취미가 있어 그렇지 하는 생각은 나의 기우였고 그 후부터는 기우가 이해심으로 바뀌고 이 분이라면 하는 마음 뿐이었다. 집은 「울진 하숙집」으로 통했고 매일 4~5명의 손님이 머무는 것을 알고 사모님의 고통에 한없는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했으며 가정적으로 몹시 화목한 생활에는 정말 친생배필이라고 여겨졌다. 나의 좁은 소견으로든 때가 어느 때인데 하며 그분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지 못한 일도 있었다. 개인의 일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관리파에서 봉급을 선불하여 가기도 했는데 나와 함께 수년 동안 근무하면서 봉급 한번 제대로 타보지 못하고 전역 특명이 나온 후 마지막 봉급날이 또한 선불정산의 날이 되기도 했다. 그분의 성격이 난의 곤란한 처지를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온정의 소유자인 교토 하루는 내가 「실장님은 변호사나 자선사업이 천직이겠다」는 말을 하니 「그렇게 보이느냐? 나도 원하고 있다」고 하셨다. 취미라곤 남돋기 뿐이며 어떻게 보면 이상하기만한 취미(?)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으니 이제 어느 정도 그분을 알 수 있는 것 같다. 선거 때 직접 찾아가 된 일이 있는데 어려움이 많은 탓인지 흰 머리가 너무나 많은 듯 하여 나는 도와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겼었다. 그때도 전에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작처에서 찾아와 자기일 저릴 돕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안심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제대한 우리 실원들이 모여 이 분에게 전투와 용기를 드림은 물론 좋은 상환을 모시고 군생활을 해온 뜻으로 모임을 갖고 매년에 한 번은 꼭 만나서 지난 얘기와 안부를 묻고 있다. 이때는 「울진 하숙」이 아니라 「부산 하숙집」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역하기 전에 잔혹 모임에 나가실 때 사부를 하면 절대 군용차의

앞 좌석에 앉지를 않고 군복을 입은 나나 다른 사람을 앉힌다. 군용차에 사복한 사람이 앞에 앉으면 공용도 사용으로 오인되기 쉽고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 좋지가 않다는 것이며, 뒷좌석이 오히려 좋다는 것이다. 우리는 군용차에 사복하여 앉아 보기가 무엇 높은 사람처럼 행세하고 싶은 충격을 가져 보고 싶은 것이 사실인데(?).....

그 분이 전역 후 모수사기관의 과장으로 9시의 전수사기관을 호령할 때의 일이다. 그때 우연히 역에서 상면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나에게 부탁하기를 「공군중사 한 사람이 열차 속에서 음주만취하여 실수를 저지르기에 선배로서 만류하니 욕을 하면서 오히려 행패가 심하니 당신은 같은 하사관이니 한 번 불려서 주의를 주도록 하시오.」 하기에 알아보니 인군부대 모 중사였다. 조용히 훈계한 바 욕을 하고 달려들은 상대 분이 선배이며, 또한 중요 직책을 가진 것을 알자 그 중사는 깜짝놀라 취기가 일시에 깨는지 잘못을 즉시 사죄하기에 돌려 보낸 후 역엔 현병들도 많이 있었는데 소란을 피해 대외적으로 공군의 위신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폭 넓은 아량과 후배를 아길 줄 아는 자상한 마음씨에 새삼스럽게 깨우침을 받은 듯 하였다. 또 공본 회의 때나 여타 출장을 가셨을 때 그곳에서 나나 우리 실원들의 자량이 대단했던 모양이다. 동료 친구들을 만나면 「너는 일을 얼마나 잘 하기에 그렇게 칭찬이 대단한가?」 하기에 나는 일변 놀라 반문을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그분의 우리실원에 대한 칭찬과 아끼는 마음에 실망을 주지 않도록 정말 잘하여야 겠구나 하는 다짐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그분의 언행에 반이라도 따르기로 걱정하고 동화되길 노력도 하여 보았다. 수년 동안 나를 감동시킨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며 도량이 넓은 뿐 아니라 인정과 눈물이 많은 상관이었다. 지금도 전에 애용하시던 책상과 다 헤어진 낡은 의자를 볼 때마다 지금은 국회의정 단상에서 시국을 담는하는 국민의 대변자로서 촌분의 여유도 없이 분명한 가운데 초로가 나뉘. 자사한 모습울 오래도록 지워버릴 수 없다.



# 미국의 대 아시아 정책

박 동 균 역

오늘날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로선을 취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숙고하고 있다. 최근에 2, 3년전에 어느 일부의 미국인들이 요구한 『대논쟁』이 또 다시 시작되었다.

극히 심각한 여러문제가 토의되었으며, 그러한 문제는 미국의 장래뿐 아니라 전세계의 장래에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다.

처음으로, 미국이 중요한 국제적 책임을 지게 되었던 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25년간의 일이었으며, 근대사의 진도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대국이므로 해서 발생하는 복잡난해한 제문제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립한다는 것은 미국인에 있어서 그 정치적 풍토를 견제로 했을 경우, 특별히 고통을 가져 오게 되었음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일개의 사회로서 미국의 성공은 속도, 능률 및 최대한의 노력, 여러 요소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내가 미국의 최량의 미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단순하며, 소박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국민을 향하여, 복잡한 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용의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하느냐, 또는 전연 하지 않

느냐 하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채용하고 있던 외교정책에 대한 2개의 방식에 비교하면 부분적인 내용의 약속밖에 하지 않는 방식은, 크게 만족이 가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미국의 정치적-지명인사들은 새로운 시대와 그 요구에 대하여, 그와 같은 신속성과 교묘함을 가지고 순응하여 왔으나, 미국민에 대하여 문제의 본질을 이해시켜, 문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먼 장래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구체적인 여러 문제에 돌아가기 전에 미국과 현대세계의 본질에 관하여, 간단히 일단 검토를 해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관한 여러 정책에 관한 미국의 각종 선택에는, 미국의 국내정세와 국제사회의 현실과의 쌍방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련을 갖고 있는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장 중대한 제혁명의 하나인 정점에 달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과거 40년에 걸쳐, 가속도적으로 진행해 온 혁명이었으며, 과학과 기술이 상충하여 미국적인 생활양식을 급격히 변혁함에 있어서 생긴 혁명이다.

오늘날 40세까지 또는 그 이상인 평

균적인 미국인은 그 성인기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을 가진, 가장 놀랄만한 제 변혁을 체험해 왔다.

미국인과 그 가족, 종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모든 뿌리부터 달라졌다.

미국인의 가치체계는 바뀌었으며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념도 달라졌다.

또한 미국인의 생활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여, 그 일과 여가 등은 내용뿐 아니라 그 할당된 시간도 바뀌었다.

또한 이 혁명은 단지 지식층들만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종류의 여러 혁명과는 다르며, 미국시민의 압도적인 대다수—— 그것도 일반적으로 믿을 수 있는 곳과는 반대로 미국내부의 소수민족을 포함한 대다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미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내적인 제문제는 장기에 걸쳐 진행해 온 광범한 혁명의 소산이며, 사회적인 침체나 도덕적인 퇴폐의 결과는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문제를 일층 심각하게 하는 것이며, 그들의 문제가 가족, 지역사회와 작업장을 포함하는 상당한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필연적으로 무엇을 우선 순위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있어서, 미국인의 관심을

독립한 것 같다.

×

×

그러나 한편, 주지하다시피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세계도 또한 현저히 변화해 왔다. 현대에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사건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서구에 의한 지배로부터 탈각하였다는 것이다.

거의 2세기를 지난 후에, 서구와 일본에 의한 전세계의 지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끝났다.

그 거의가 놀랄 정도의 제문제를 가지고 수십 개의 신흥 [제국]가 아시아 아프리카에 출현하였다는 것은 서구와 일본의 세력이 극적으로 후퇴함과 더불어, 현대의 현저한 특색—— 그리고 주요한 제문제——의 하나로 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단 2개의 [초대국] (超大國)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다.

대부분의 아시아·아프리카제국은 스스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처지에 있었다.

사실상, 「신흥세계」의 많은 부분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힘의 진공상태가 존재해 왔다.

그리고 이것은 가끔 위험한 것이 되었다.

자연은 진공을 의심한다고 하나 이것은 정치의 세계에서 보나 인종 질리라

고 할 수도 있다.

오늘날 존재하는 비참할 정도의 불완전한 세계질서를 비판하여, 더욱 그 개량을 요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오늘날 핵시대에, 그리고 우주시대가 앞으로 계속되는 마당에 우리는 또한 본질적으로 보아 무법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체제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정치적 행동양식과 정치논리와와 의 기준이란 것도 없다.

국제연합은, 그 일체의 능력과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심적인 평화유지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나의 결정적인 중요한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것은 즉, 현재 서로 싸우고 있는 여러 세력간에 존재하는 상당히 커다란 이배울로기적, 정치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에 있어서 핵전쟁이 회피되어 왔던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과연, 부분적으로는, 양 핵대국이 서로 싸우는 의지를 최종적으로 시험하는 것으로 한정전쟁을 작게나마 인정해 왔다는 사실에 의한 것이다.

미국의 극동정책의 제문제와 여러 논점이 오늘날 출현한 것은 바로 상술한

것과 같은 상황하에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새로운 조류는 고립주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즉, 미국은 세계에 있어서 보다 작은 책임만을 부담할 뿐 그 자원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비하고, 또한 영광으로 가득찬 순수하며, 단순하건 영웅한 시대에도 돌아가야 할 것으로 안다.

확실히 미국에서는 최초 고립주의에 의한 유리한 기운이 힘을 얻고 있다. 그것은 대외원조에 대한 의회의 태도나 정부의 월남정책에 대한 제비판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미국제일주의」에 의하여 계획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 기운은 우익, 중도, 좌익에 걸쳐 각 정치적 여러 분파의 전체에 걸쳐 시사한 바와 같이 무거운 국제적 책임에의 혐기이며, 미국 내부에 걸친 중요한 문제이며 미국의 정치적 풍토에 깊이 근착한 행동양식이 자연이 자기들을 또 다시 주장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월남에 관한 체험이 작용한 것은 물론이나 한편에 있어서 미국과 그 진진과의 성격을 고려하면, 미국에 현재와 같은 기운이 든다는 것은 인제인가의 시점에서 어찌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나의 의견으로서는 이 기운

— 그것은 확실히 중요하긴 하지만 — 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가지고 1930년대에 특징적이었던 입장이나 견해에까지 널리 돌아가려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극히 현명하지 못하다.

또한 더욱 있을 만한 것은 이 기운이 다른 여러 힘과 상충하여, 미국의 외교정책의 어떠한 수정과 재구축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그와 같은 제변화는 국제적인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대의를 절대 어그러지게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2대 정당은, 민주당이나 공화당도, 기본적인 것으로는 국제주의자로서의 전망을 갖는 사람들에 의하여, 현재 지도되고 있다.

고립주의는 실제에 있어서 그 주요한 세력을 오늘의 미국의 정치적인 민중적 기반에 뿌리를 박고 있으며, 더욱 인간적인 이유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극동정책에 관한 현재의 논의는 이와같이 해서 단순하나마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다.

즉 동남아와 서태평양은 미국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결국에 있어서 다시 말해 광범한 외교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 그것도, 중요한 리스크와 희생은 포함하는 외교

정책은 특히, — 어떠한 형태의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관념에 의하여 변호되며,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X / X

미국의 문화적 전통이 주로 서구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및 지식계급적 엘리트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보다도 구라파쪽이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며, 또한 아시아의 편에 드는 것보다도 구라파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이 쉬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제2세대의 미국인이며, 현재에도 구라파와의 사이에 가족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평균적인 시민에 관해서도 똑같은 진리이다.

구라파 중심주의는 미국의 역사적 입장이었으며, 이 입장에서의 어떠한 역행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라파만을 중시하라」고 하는 입장의 논자들은 그 대부분이 무엇보다도 비서구세계에는 무수의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다른 미국의 능력에는 한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같이 널리 알려진 의논은 「미국은 세계의 경찰관이 될 수는 없다. 그

리고 미국은 그 능력에 알맞은 우선 순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또한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시스템은 현재의 경우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에 있어서 커다란 뜻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아시아·아프리카 세계의 대부분은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걸쳐 혼돈상태를 계속할 것이다.

더욱 미국이 이에 관하여 「될 수 있는 것, 또한 해야 할 것은 거의 없다.」고 계속한다.

그리고 이 의론은 결론으로서 「미국 자신의 안전보장과 미국의 기본적인 여타 이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주요한 관심을 서반구를 포함한 서구세계를 향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일본과 같은 2~3의 나라는, 서구세계의 하나로써 간주하면 좋다」고 한다.

확실히, 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도 세계의 경찰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될 것도 아니다.

국내정책에 있어서도 똑같이,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선순위의 확립과 재평가와는 틀림이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까지 행해져 왔던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최근 수년에 걸쳐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알뜰 정도의 개입

밖에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 입장은 금후도 계속될 것이다.

똑같이 아랍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역할은 꼭 10년만에 걸쳐 극히 약간의 것이었으며, 이 점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 미국은 체코에 대한 소련의 무력개입을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였으나 책임있는 미국의 지도자 중에 미국이 이때에 등장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비록 세계적인 힘의 균형에 있어서 미국 자신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서구와 동남아시아 뿐이었다.

이점은 오래오래 변하지 않을 것이다.

사상과 외국에 있어서의 정치제도에 대한 미국에 태도도 또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 왔다.

의회제 민주주의는 추상적으로는 최량의 통치의 형태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모든 사회에 있어서의 확립될 수 있는 또는 확립될 정치형태라고 만든 생각되지 않는다.

오늘날에서는 세계가 미국을 닮으려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따르려는 것도 아니다.

또한 틀에 박힌 공산주의에 대한 사고방식도, 이미 오래전 미국의 외교정

책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능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공산제국에 관한 다종다양한 여러 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그 다양성은 비공산제국에 관한 여러 정책의 그것과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될 정도이다.

사실상 나타났던 가장 큰 변화는 구라파의 공산주의와 아시아의 공산주의와의 차이에 대한 미국의 관계에 일관적인 구별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 다음의 사실과 관련하고 있다.

즉, 아시아의 공산주의는 그 자신 하나의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변혁의 수단으로서 기본적인 목적을 신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단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공산주의 지도자는 전부 또는 거의는 혁명이야 말로 마르크스주의의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유일한 직접한 수단이며 또한 「진보한 혁명개발」의 표준이라고 해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정권은 총신(銃身)에서 생긴다」고 하여 모택동은 아시아의 공산세력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구라파의 공산주의와 아시아의 공산주의와의 간에 구별은 시간이 갈수록 변해하는지도 모른다. 이때 그 변화를 결정짓는 요인은 사상보다도 정책일 것이다.

단 여기서 두 개의 커다란 곤란한 문제가 있다.

첫째, 현존하는 아시아의 공산제국은 각기가 분열국가의 영토의 분할부분의 위에 존재하며,

또한 공산주의지도자는 그들이 그들의 통일된 국가의 전국민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제2의 아시아의 공산주의자들은 대부분 민주주의의 여러 전통의 힘이 약한 지역에서는 소위 「인민전쟁」이 개시되면 이것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하여 헌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행하여지는 각종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정치적 그리고 어느 경우에는 군사적 지원까지행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평화공존도 아시아의 공산주의 정책의 실효적인 원리에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 결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는 국가간의 분쟁과 일부 내부의 세력 클럽간의 분쟁과의 「해결한다」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의연하게 폭력적인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동남 아시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실질적인 국제관계조치를 창설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되기까지는 지역전쟁의 위협은 필경히 현실적인 것으로 계속되는

것이며 더욱 이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인 특성을 전제한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전쟁이 발생하려고 하면 그것은 직접 세계적의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

X X X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세계의 인구의 반수 이상이 살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의 세계의 대국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할까 또는 인구가 많은 나라만도 미국, 소련, 일본, 중국, 인도와 인도차나의 자국은 상호 긴밀한 접촉을 갖게 되며 또한 이 지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한 이해를 갖고 있다.

그 길은 두 개 밖에 없으며 아시아에서 어떠한 형의 정치적인 평형이 확립되거나 또는 제3차 세계대전에 돌입해버리는 일이 있을지의 문제이다.

여하한 단일 국가라고 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국가군이라고 하더라도 타의 여러나라의 권리와 전체의 평화를 직접 위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결정적인 중요한 지역에 있어서 패권을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미국이 그 관심을 이 지역의 「선진」 제국간의 본질적인 것에 한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생각은 아시아의 정치적 현실과 경제적 현실과의 쌍방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제발전과 거의 또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것도 한 예라고 하겠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계를 갖고 또한 당사국과의 유대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동남아시아의 대륙부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약속을, 그것도 특히 군사적인 약속을 할 것이냐라는 점이다.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10년 이상에 걸쳐 어떤 미국인들은 미국의 군사적인 약속이 일본에서 인도네시아에 걸쳐 아시아대륙의 육지에서 떨어져 있는 도서제국(島嶼諸國)에 본질적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므로 이때 이들 도서지역은 그 필요가 있으면 미국의 해군력과 공군력을 이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미국의 육상병력은 우선 필요하지 않는 지역이라고 생각해 왔다.

돌이켜 보건대 1950년의 북한 공산피퇴축의 침략에 대하여 한국을 방위한 것이 이 지역 전체에 있어서 그것도 특히 일본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 명확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남아시아에 관해서도 이와같은 것이 생각된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평형이 아시아의 대륙부분과 도

서부분을 분할하는 기본선을 그음으로서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은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및 문화적인 결합이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을 양해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상기하면 될 것이다.

이 보나도 훨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질서를 아주 복잡성을 갖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그 국제질서에는 어떤 완충지대라든가, 다각적인 기준위에서 그 영토보존과 안전과를 보장된 일정의 중립제국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시아에는 아시아의 핀란드나 아시아의 오스트리아가 없어서는 안 된다.

동남아시아의 몇 개 부분을 중립화하는 구상은 아시아를 엄격히 정치적으로 분할하는 경향의 중대한 결합이 있다.

× × ×

여기서 우리는 모든 광범한 제정색의 검토를 하고 있다.

만약, 아시아·태평양지역이 미국에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면, 또한 동지역이 무엇인가의 형(型)의 단순한 경제적 또는 지정학적인 분할에는 찬동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장래의 제정색을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경향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면, 우선 다각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명

렬한 박차가 가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그 다각적인 방식은 책임부담의 상호주의를 구성한 다수국간의 관계를 의미한다.

아시아의 있어서의 미국의 제정책의 커다란 결함의 하나는 과연 확실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요구하는 정책이란 것이 거의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특정의 국제유대가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또한 당사국이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다른 당사국이 책임을 수행하게끔 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은 미국에 주어진 커다란 권력을 여하히 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우유부단이었다는 것이다.

비록 이 우유부단이 어느 면에서는 「과잉한 미국화」를 초래하였다 하더라도 — 그리고 그와같은 사태가 생긴 것은 미국이 원조를 받을 상대층의 국민에 어떤 형식으로 책임을 지게 하여야 좋은지를 몰랐다는 점이다.

이 우유부단은 또한 가끔 미국이 원조를 해주고 있는 나라로 하여금 너무나 달콤하게 해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정책은 미국의 외교정책뿐 아니라 그 국내정책에 있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무엇이냐 관대하다는 것

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 문제는 최근에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문제는 미국의 대의원조 계획을 다년에 걸쳐 그리고 여러 부문에서 고민해 왔던 난문제이었다.

또 이 문제는 미국의 비평가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국 자유주의의 현상이며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경향이 우세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제원조계획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게 될 것이며, 우선 대목적으로 삭감되고 있다.

새로이 강조되는 것은 다각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차관단이다.

지역적, 국제적인 제조적은 착실하게 보다 커다란 역할을 지게끔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개발계획은 그것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냐를 심중히 검토하게 된다. 또한 대외민간투자를 최대한도로 사용할 것을 장려하는 제정책이 보다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제경향이 아시아에 있어서 미국의 제정치책, 군사적인 제정책에 관해서도 알 수 있다.

많은 아시아제국에 있어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건설계획과 경제근대화계획을 많진 적진간에 최단기간에 성공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정한 나라가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엄밀하게 어떤 정치제도를 갖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단, 그것은 그 나라가 스스로의 제도를 그 인접제국에 대하여 힘으로서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은 능률이나 잠재적인 개발능력이나 장기적인 제목표에 있어서 제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와같이 해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기능에 대하여 제 2 및 제 3 세대의 엘리트들에 대하여 고등훈련을 시행한다는 것이 미국과 아시아간의 상호작용의 가장 중요한 제형식의 하나가 됨은 당연한 것이며, 이때에 있어서 이와 같은 상호 작용의 형식은 일본과 아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장 적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X X X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이와같은 생각은 아시아의 공산제국에 대한 미국의 제관계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많은 미국사람들은 적대행위라든지 이런 것을 삼가하고 있으며, 적대행위나 전쟁보다는 이에 대체한 여러종류의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내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구라파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일련의 고도로 복잡한 제정책을 전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그들의 제정책은 그

기본목표로서 온건한 행동으로 배제적으로 하며, 극단적으로 시두르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알게 될 것이다.

아시아에 있어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문제에 대하여 군사적인 수단만으로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훨씬 이전부터 이해되고 있었다.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공산주의가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토착하고 있는 엘리트들이 그 국민의 요구에 응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경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원대한 사회개혁을 수행하는 용의가 있는가 하는 것이며, 누가 내쇼널리즘의 기치를 확실히 장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점에 대하여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사회개혁과 내쇼널리즘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에 그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

이 의논에는 진리라고도 할 수 있는 제요소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너무나도 단순화한 지나친 기만과 위험한 제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이 승리를 획득하였을 때는 그의 적을 첫째로 우월한 조직력에 의하여 타도해 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조직력도 어느 정도 또는 어느 부문에서는 사회개혁과 내쇼널리

즘에 관련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이 조직력 이외의 여러 힘이 이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 것이다.

강제라고 하는 요소가 실득이라는 요소를 적어도 같은 정도의 중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상대적으로 보아 어느 쪽이 보다 민주적인가 하는 것 보다도, 상대적으로 보아 어느 쪽이 보다 능률적인가가,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운명을 결정해 왔다.

이외같이 말하는 것은, 사회개혁이 바람직하다든가 중요하지 않다든가가 아니고, 그것은 단지 신흥제국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 범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선진 민주주의제국에 적용되고 있는 가치체제라든가, 제법측과 기계적으로 동등시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익과 가장 비슷한 문제가 아시아의 내소널리즘에 대한 지원을 장려할 것—추상적으로는 훌륭한 원칙인 것만은 불림 없으니—에 관해서도 제기된다.

다시 말해 내소널리즘을 강력하게 신봉하고 있다.

아시아에 내소널리즘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는 것은 나아가 과소평가나 과대평가를 할 수 없다,

×

×

아시아에서는 내소널리즘이 현재의 본질적 지식층의 제급내부에서의 현상에

서 그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에 있어서 평소애 국민의 복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것은 중앙집권화한 정치를 그 이상, 강조할 것은 아니고, 국민과 가까운 정치적 하부조직을 발전시키야 하는 것이다.

아시아의 비공산주의 국가뿐 아니라 공산제국에서 나타나는 증거를 보더라도 이 사실이 앞으로 10년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내정치상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양측 사회에서 넓게 움직이고 있는 상충한 것과 같은 비판적인 변화와 정치적인 변화와의 성격과 양자간의 관계에 대하여 계속적이며, 대규모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다.

보다 이상적이며, 보다 복잡미묘한 장래의 제정책을 꾸며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관한 여러가지 제이론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치인 면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장래에 먼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어떤 실효적인 국제관계 조직을 확립하는 문제를 제기하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여러나라의 국내정

치기구의 문제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이 실효적인 국제관계조직의 확립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동남아시아 제국연합(ASEAN)이나, 아시아·태평양자료회의(ASPAC)와 같은 형태의, 미국이 참가하지 않고, 완전히 아시아 제국만으로 구성되는 여러 조직체로서의 형식에서 각종의 지역적인 제발전을 장려하게 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또한 아시아의 제국에 있어서 적극적인 창의와 책임부담이 기대하게 된다.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도 점차적이긴 하나 중요한 변화가 올 것이다.

10년 이내로, 인구가 많은 아시아의 여러 중심지에서는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대부분의 미군 기지가 변화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제국은 자국의 제1차적인 방위에 있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며 또한 조약상의 의무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인접제국의 방위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역할은 커나란 우산과 같은, 즉 주로 태평양중부의 미국의 계 기지에서 기동부대에 의하여 작전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이때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급속한 거대한 군사력을 공수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작전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인 제원칙을 말하였고, 다음은 이런 제경향이 극동의 개개의 나라, 그리고 지역에 대한 미국의 여러 관계에 대하여 여하히 적용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이며, 미국과 일본과의 여러 관계는 30년전의 격렬했던 전쟁(제2차대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양국민간의 커다란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근년, 특히 친밀하며 또한 생방이 유익하게 지내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개방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커다란 힘을 갖는 일본이 있으므로 해서, 비공산주의 아시아전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있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넓은 뜻으로 미·일동맹은 무기한으로 존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강경한 동맹국이 그러하듯이 이 동맹은 생방의 국민의 여타까지 이익에 합치하고 있는 때문이다.

일정한 현하의 여러문제 특히, 군사기지의 문제와 「오끼나와」의 문제와는 조종되어야 하며, 해결되지 않으면 안되거나 해결의 시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일본은 이미 국가형태에 적합한 국가가 될 것이다.

그 국가 형태라는 것은 미국의 최종

적 보호하에 자국의 제1차적인 방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국가라는 것이다.

단지 미국인이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현재 약속하고 있는 것 보다는 커다란 의무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있으며, 이 확신은 금후 더욱 강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20년 이상에 걸쳐 일본은 미국의 비호 아래 최대의 이익을 위해 외교정책을 수행하였으며, 거대한 성공을 해왔다.

앞으로 10년간은 그러나 일본은 일본 자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을 위해 지금보다도 훨씬 커다란 경제적, 정치적 책임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군사적인 책임까지도 인수해야 할 것이라는 여타가지 압력이 일본에 닥쳐 올 것이다. 일본은 지금 세계에서 대국중의 하나이며 이 사실에서 생기는 여타의 무를 장기에 걸쳐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도 아직 우리는 「태평양 공동체」라는 구상을 내걸어야 할 것이며, 이때에는 그 중추적인 구성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우저일랜드와 멕시코이다. 이들의 보다 일층 선진적인 태평양 제국으로부터 성립되는 공동체는 개발 정책을 제척하며, 또한

조정할 수가 있으며 동남아시아 제국연합(ASEAN)과 같은 제조직체와 상호작용이 합치할 수가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는 보다 광범한 여타 목적에 봉사할 수가 있을 것이다.

태평양공동체는 전아시아에 있어서의 평화적인 진보와 커다란 새로운 심볼로서 필요할 것이다.

× ×

다음은 한국문제에 관하여 언급하기로 한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또 하나의 아시아국민의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후의 수년에 걸쳐 고민해 오던중 믿을 수 있는 훌륭한 능력을 갖는 아시아의 일국으로 진재하고 있다.

1950년에 미국이 한국을 방위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했다고는 할 수 없다.

6-25 전란은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미국 내에서 극단으로 평판이 나쁜 전쟁으로 되고 말았다.

또한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인 제반전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절망감은 이 전쟁이 끝나고서도 오래동안 계속되었나.

한국은 또한 미국의 끈기와 인내력을 시험하는 최초의 커다란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1961년 이후, 한국은 오랫동안 고민한 결과 드디어 자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후 경제발전은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국민간에 새로운 자신과 희망이 솟아올랐다. 이 시점에서 커나란 위기를 가져 오게 되는 것은 북괴공산침략자들의 침략 행위에 따른 것이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계속되는 한 공공연한 보통의 공격은 우선 없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괴는 우선 월맹과 같은 노선을 취할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약속을 어기는 일은 없으며, 한국 국민들은 남한을 전복하려고 온갖 흉계를 쓰고 있는 북괴에 대하여는 극히 증오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서 경제개발의 가능성이 현재보다 전망이 확실한 발전을 할 것이다.

미국은 미국에 의하여 보호가 결정되고 있는 또 하나의 지역인 대만의 자유중국에 대한 약속도,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유중국에 있어서의 경제개발은 한국에 있어서와 같이 최근 상당히 성장해 가고 있다. 자유중국 국민의 생활수준은 실제에 있어서, 현재 아시아에서 제2의 높은 수준이며, 일본보다는 떨어

진다.

의회제의 민주주의는 한국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발전을 하고 있으나, 대만에서는 극히 제한된 진보밖에 되지 못했다.

미국은 정식으로 외교상의 승인은 자유중국에 하고 있으며 또한 과거에 있어서 자유중국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가 부여되어 왔다.

현재 경제원조는 이미 필요없게 되었으며, 미국으로서는 경제성장과 근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상당히 기뻐한다.

그러나 중공과 「내전」(內戰)을 연속화할 것을 장려한다는 것은 미국에 있어서 이익이 아닐뿐 아니라 대만에 있는 주민을 포함하여 비공산주의세계 전체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

만약, 공산측을 타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내부적인 프로세스로서 실현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만이거나, 또 다른 어느 곳이거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수단으로서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대만에 관한 미국의 장래의 정책은 거의 확실하게, 이들 기본적인 여러 사실에 기초를 두게 될 것이다.

미국은 와르샤와에서 대사급의 정기적인 회담을 가짐으로써, 중공에 대한 법률적인 승인관계는 전연 존재하지 않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승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X

X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리고 대규모의 새로운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한 미국은 중공에 대하여 일층 복잡한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정책은 어디까지나 미국자체의 자존적인 것이며, 중공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칙략에 대한 일정한 명백한 억제수단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도덕수준이 높은 제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일련의 기회를 제시하고 또한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두 개의 채널을 가진 정책을 서서히 발전시켜 가고 있으며, 그 하나는 온건한 것을 강력해 나가는 것이며, 또 하나의 채널은 극단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중공의 조건에 따른 것은 아니라 하지만, 문화적인 접촉이나, 국제회의에의 참가 또는 비전략물자의 무역이나 국력가맹 등의 여러가지 제안이 중공으로부터 제청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처음에는 거절 될 것이다.

그러나 장래의 중공의 지도부를 예견하기는 아마도 어렵다.

중공은 현재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계속하고 있으나, 중공은 다른 어느나라의 권력층의 정점에서 있는 지도층보다도 나이가 많은 지도층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앞으로, 5년 내지 10년간에 중공은 전년 새로운 지도부를 갖게 될 것이며, 그 최상층부는 오늘날 비교적 무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점령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한조의 기회에 대하여 선택을 할 자유가 그들의 지도자들에 부여된다는 것이며, 즉 비공산주의 세계에 있어서 또한 적은 공산주의 제국에 있어서까지도, 거의 이익이 되지 않는 소·중공동맹의 재생과 같은 사태에 대신한 대안이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다시 말해, 평화공존의 여러 원칙을, 구라파에 적용하고자한 것과 같이 아시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과 아시아의 공산주의 여러나라와의 사이에 있는 기본적인 경쟁점은 그들 제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권리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 제국이 팽창하는 권리에 있는 것이며, 이 점은 아시아인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이다.

월남과 동남아 기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이와 같은 관련에 있어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현재의 유동적인 상황하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태도, 또는 정책에 있어서 장기적인 전망을 묘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목적을 추진 계속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첫째로는 월남국민은 스스로의 정치적인 장래의 선거형식을 통해 결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현재의 상황하에 있어서는 선거라고 하는 수속을 효과적으로 기능화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논의되고 또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중심과제는, 그 선거라고 하는 수속을 최대한도로 자유로, 또한 공정한 것으로서 기능시켜, 그리고 정당파가 그 결과를 받아 들일 것을 약속한 것으로서 기능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베트남의 장래를 순전히 폭력에 의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 지역에 있는 작국은 공인한 것이나 또는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나간에 일체의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작국의 영토보존과 주권과는 모두 큰 나라에 의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다시 작국은 자기나라의 외교정책을 자유로 결정할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그 외교정책이 엄격한 중립주의에 기초하는 것이거나 지역적인 동맹에 기초하는 것이거나 또는 그보다 하나의 또는 둘 이상의 큰 나라와 관계를 갖고 기반을 두는 것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세째로 그 정치체제의 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동남아시아제국에 있어서 상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인 성격의 협동개발계획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며, 이때 보다 일층 선진적인 모든 여러나라의 지원이 얻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확실히 베트남분쟁의 평화적해결은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며 미국의 동맹국들도 그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

그러나 만일 미국이 장래 보다 한층 커다란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싶지 않다면 그 평화적해결은 이상에서 말한 여러요소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대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끝으로 내가 제시하고자 노력해 온 주요한 논지와 가설을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로 미국에서는 고립주의적인 감정이 증대하고 있으나,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한국과 베트남에서의 「한정전쟁」에 관련한 좌절감에서 생긴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세계적인 여러위기에

테하여 세계 각국에서 비판될 것에 대한 분개의 일반적인 기분에서 생긴 것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미국내부에 있어서의 커다란 혁명이 정점에 달하고자 하는 것에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여하히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보다 강하게 된 고립주의적인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철수를 여지없이 할 것인가? 미국이 두 개의 세계대전 기간에서 수행하고자 한 여러 정책에의 후퇴를 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 있어서 승리를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 고립주의적인 기운을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어떠한 경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일본이 패배하고, 시구라파가 후퇴하고, 또한 많은 취약한 신흥제국이 출현한 것이나, 그때 동아시아는 특히 미약한 것과 동일한 크기의 여러 요구에 의하여 특징 지워진 지역이었다.

그들의 여러 요구에 대하여 하등의 커다란 규모로서 응할 수 있는 나라로서는 미국밖에 없었다.

미국측만이 인방적으로 노력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말해서, 이와 같은 단순한 여러사실에서 생겨 온 것이다.

현재, 상황은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미국은 정치적, 경제적 및 기술적인, 이

들의 여러 변화에 대하여 스스로 적응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미국은, 다각적인 방식과 상호주의를 일층 확대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미국은 자기의 능력과 새로운 기술을 합하여서, 군사적인 여러 방침을 변경할 것이다. 미국은 또한 구라파의 공산주의에 대하여 그렇게 한 것과 같이 아시아의 공산주의에 대하여서도 상황이 용서하는 한 신속하게 일층 복잡한 제정책을 채용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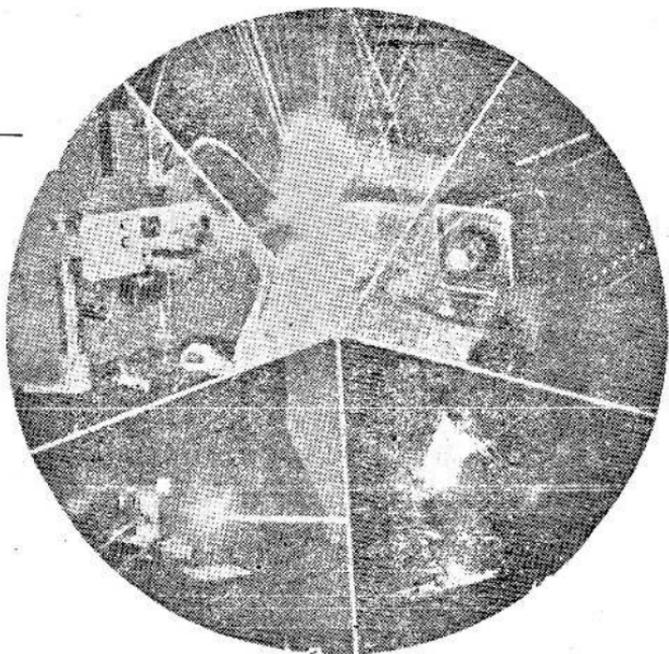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국은 현재의 동맹제국에 대한 여러 약속을 굳게 지켜 나갈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평행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여러나라와 협동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과학기술의 여러분야에서 최근 달성된 것과 같은 극적인 매성공을, 군축(軍縮)이나, 국제기구와 인권에 관해서도 획득할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질 것이 허락될 것이다.

인류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번영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수단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정치적인 수단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로부터 곧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수년간에 있어서, 아시아가 이 점에 관한 결정적인 중요한 실험장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레이저」(LASER)란

### 무엇인가?

중위 · 박 천 규

독자들은 분산되지 않고 한 줄기로 광선을 방사하는 전지를 가져 보았으면 하고 상상해 본 일이 있었을 것이다.

이 광선은 1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작은 별체에 대하여 그 쫓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이러한 전지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독자들이 가

지고 있는 전지보다 더욱 정교한 장치를 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레이저」라고 부른다. 미국의 항공우주안전관인 Thrush 소령은 다음 논설에서 레이저가 무엇이며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또한 공군에서는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이다.

먼저 레이저장치에 관하여 다소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레이저는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있다. 만일 레이저광선을 직접 들여다 보거나 혹은 레이저의 반사광선을 바라보면 몹시 눈을 상하게 된다. 또 신체의 일부라도 레이저광선에 접촉되면 중화상을 입게 된다. 어떤 레이저의 광선방출물을 보기만 해도 실명(失明)과 같은 실명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레이저장치는 고전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의 설명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이 레이저는 단지 장난감으로만 만질 수 있는 훌륭한 장치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과연 이 레이저광선이 어느 정도 공중에 유효하게 이용되는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레이저」란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로서 광선의 증폭 및 발전장치를 말한다. 보통 백색의 광선은 모든 가지적인 주파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촛점을 맞추지 않으면 사방으로 방사된다.

레이저광선은 단색이며 원거리까지 극히 좁은 비임(Beam)으로서 방사된다. 방사에너저로 작동되는 또 다른 장치에 있는데 이를 「메이저」라고 부르며 이는 (Microwave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의 약자로서 저리음초입력의 마이크로파 증폭이 가능한 막대한 증폭장치를 말한다.

이 레이저는 레이저보다 훨씬 낮은 주파수로 작용하는데 그림 1에서 주파수스펙트럼은 이러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메이저와 레이저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

그림 1. 레이저란 무엇인가?

Monochromatic (단일주파 또는 색채) Cohorent 광선의 공급원

주파수 스펙트럼

고 주 파		저 주 파		
X-선	가 시 선	적 외 선	마이크로파	부 선 전 선
150~ 10Å	7500Å 400Å			1 KC 또는 3×10 <sup>15</sup> Å

루비레이저 가스레이저 루비메이저

점은 레이저는 공간으로부터 방사되는 약한 무선신호를 증폭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증폭기로서 사용하지만 레이저는 증폭기 보다는 오히려 광선의 공급근원이나 발진기로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레이저는 극히 좁은 대폭을 가진 단일 주파장치이며 보통 그 파장을 앙그스트롬 단위인 Å로서 표시한다.

이 앙그스트롬은 길이의 단위로서 1m

의 백억분의 1과 동일하다. 주파수스펙트럼을 보면 X선의 파장(앙그스트롬)과 1kc의 가청음 즉  $3 \times 10^{15}$ Å의 파장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레이저의 차이점은 전진검파의 특성에 있다. 레이저광선의 비임은 단지 48의 계수로서 발산되지만 초점을 맞춘 보통 광선은 같은 거리에서 293의 계수로서 발산된다. 중요한 점은 레이저광선은 분산하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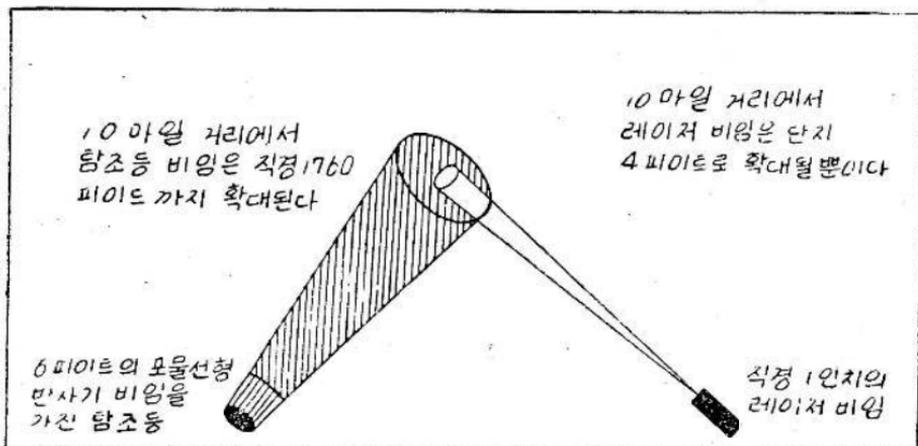


그림 2. 전진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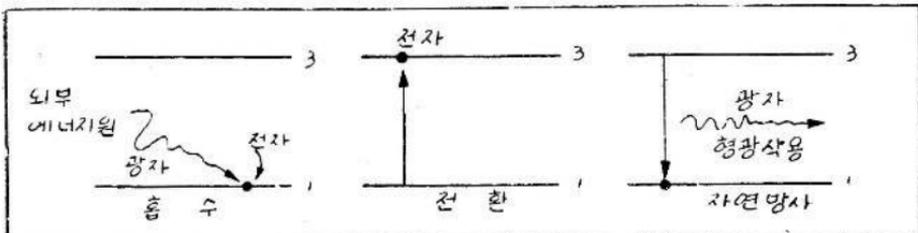
다는 사실이다.

검파광선의 장점은 렌즈나 거울에 의하여 초점을 맞추거나 집중시킬 수 있지만 원래의 광원(光原)보다 훨씬 더 밝게 반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통의 광선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면 여하히 하여 광선이 단일주파수의 검파 비임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림 3에서 그 방법을 예시하여 주고

있다. 주저하는 바와 같이 제 2의 에너지 단계에서 레이저물질은 서로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에너지단계는 값으로서는 제 3의 에너지단계와 가깝다.

레이저에 사용되는 물질은 조금도 에너지의 손실을 받지 않고 제 2에너지단계로 자연붕괴되어 제 2의 단계에 실존하는 전자를 가지게 된다.



· 형광을 발하는 물질내의 전자 광자의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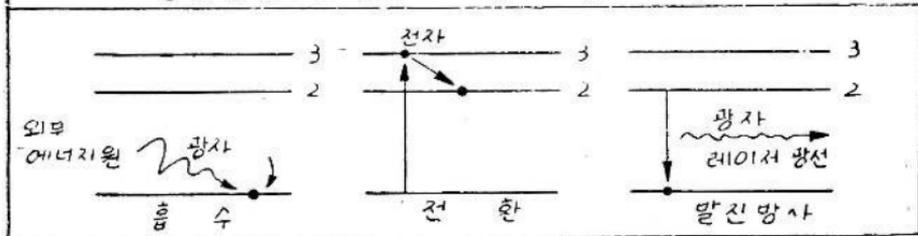


그림 3 : 레이저 광선을 발생하는 물질에의 전자-광자의 작용

전자는 상기 예시한 원자의 에너지단계별 도표 중에서 제1, 2 및 3에너지단계에 실존할 수 있다. 만일, 제 1에너지단계의 정상상태하의 전자가 외부에너지원으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전자는 제 3에너지단계보다 높은 에너지 대역으로 전환하게 된다. 레이저에 있어서 외부에너지원은 고체레이저(루비와 같은)의 경우와 같이 섬광전구로부터 발산하는 낮은 에너지 및 광자일 수 있으며, 혹은 가스레이저의 플라즈마(Plasma)전자로부터 발산하는 운동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제 1단계의 전자는 이와 같은 원자 내에서 이와같은 단계로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1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자는 더욱 많은 전자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 3단계로 전환된다. 제 3에너지단계에서는 이 전자는 영속성을 가지지 못하여 제 1단계로 환원됨에 따라 빛의 광자를 방사할 것이다. 빛의 광자를 흡수하여 방사하는 작용을 형광이라고 부르며, 이는 단일광선이 사방으로 방사한다. 그러나 레이저 물질에 있어서는 제 3단계의 전자가 아무런 형광작용 없이 제 2단계로 전환한다. 제 2단계의 전자는 잠시동안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나(이는 집단전화에 필요하다) 그 후에 제 1단계로 환원됨에 따라 빛의 광자를 방사시킨다.

이와 같은 광자가 Optical Cavity에 밀착될 때 레이저광선이 발생할 수 있다.

루비레이저의 섬광전구는 광선을 가짐  
투성 광선발사물질 속으로 투사시키는  
것이므로 제 1 단계에 있을 때보다 더욱  
많은 전자가 제 2 단계에 집중한다. 이것  
을 집단전화라고 부른다.

만일, 어떤 방법에 의하여 제 2 단계의  
전자를 일정한 범칙에 따라 제 1 단계로  
자연 붕괴시킬 수 있다면 이 전자는 전  
파나 레이저광선과 동일한 주파수의 광  
자형태로 에너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빛의 광자를 얻는 방법을 그림 4의  
가스레이저 도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가짐투성 광선발사물질의 양단에 거  
울을 설치하여 실시한다.

광학공진기의 원칙은 루비나 가스레이  
저의 양극전압과 음극전압은 가스를 이  
온화시킨다. 그 예로서 가스원자는 전자  
를 상실한다. 이와같은 플라스마(Plas-  
ma: 기체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전리되  
어 거의 같은 양의 양이온과 전자로 된  
가스)는 마치 섬광전구가 루비레이저로  
광선에너지를 공급하여 주는 것 같이 자  
화에너지와 전자의 충돌을 발생시킨다.

광선 침투성물질 양단의 거울은 광학  
공진기가 형성된다. 좌측 끝의 거울은  
투사될 광선의 거의 100%를 반사시키  
지만 그 반면 우측 끝의 거울은 부분적  
으로 투명하여 즉 10%만을 반사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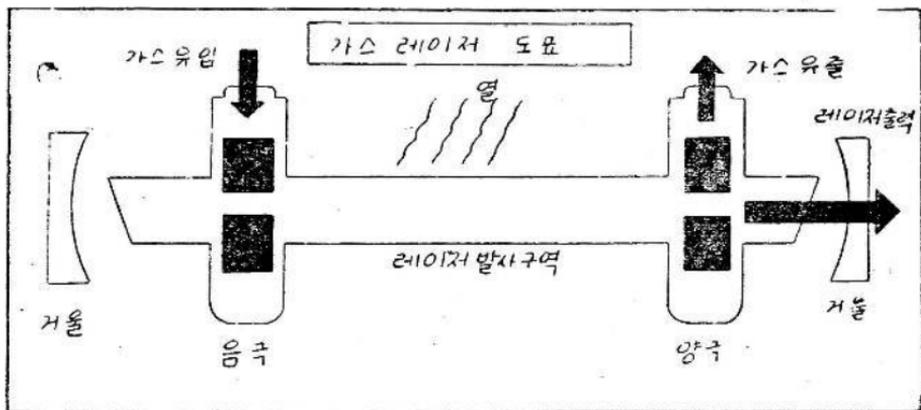


그림 4.

발전작용은 제 2 단계의 일부전자가 제 1  
단계로 자연붕괴되기 시작할 때 발생한  
다. 이와 같은 전자는 마치 형광(광선이  
사방으로 분산하는)이 반사될 때와 같  
이 광자의 형태로 에너지를 상실한다.

그러나 일부의 광자는 거울에 대하여 종  
적으로 투사(投射)되어 거울의 뒷면과  
앞면 사이에 반사된다.

이와 같이 광자는 앞면과 뒷면으로 튀  
어서 반사되기 때문에 제 2 단계의 다른

전자와 부딪쳐서 여기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광자를 발생케 한다.

이와 같은 발진작용은 집단전화(轉化)가 증가됨에 따라 더욱 많은 광자를 가지게 한다. 그림 4의 우측 거울의 저항 및 광선의 분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기에 충분한 광자가 발진하자마자 레이저비임은 우측으로 방사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거울은 10%의 투과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은 단지 빛분의 1초 밖에 걸리지 않는 고로 방사에너지의 발진방사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러한 레이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일까? 레이저물질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종류 즉 루비나 테오디움과 같은 고체상태나 수광성물질 아르곤, CO<sub>2</sub>, 크립톤과 같은 기체 및 Gallium Arsenide(GaAs)와 같은 반도체가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 두 가지의 새로운 종류인 화학적 레이저와 액성(유기모임)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레이저 중에서 액성레이저는 최선의 것으로 이를 사용하기 전에 다른 레이저에 의하여 권장시켜야 한다. 레이저에 또한 그의 작용특성이 상이하나. 루비와 일부의 테오디움-레이저는 순간파동장치(Pulse device)이다.

그 예로서 이와 같은 레이저는 순간파동을 방사시킨다. 가스레이저는 보통

연속장치인데 비하여 반유도체 레이저는 순간파동장치나 또는 연속파동장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레이저의 주파수나 파장은 주파수스펙트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외선으로부터 가시선(可視線)을 거쳐 적외선에 이르기까지 상이하다.

그러면 레이저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현재 약 9,400종의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의 적용범위는 과학분야로부터 실용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쓰인다. 통신분야에서는 하나의 비임을 통하여 무수한 전문을 송전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 문제는 여하히 이 비임을 번조시키 이를 복조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Bell 시험소에서는 하나의 비임이나 주파수상에 10개의 텔레비전 채널을 설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1개의 방송주파수 당 1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방법과 대조적인 것이다.

레이저광선을 사용한다면 시험소에서 속도와 주파수를 1,000단위의 제수까지 보다 정밀하게 측정가능하다. 한 가지 실제적인 레이저비임의 응용실험은 터널들이 일직선으로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유초거리측정 또는 레이더에 사용되는 레이저는 재래식 마이크로웨이브 레이더 특히 우주과학분야의 사용범위를 넓혔

다. 즉 동일한 송신력에 대하여 레이저 레이더는 적어도 재래식 레이더의 2 배 정도의 측정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측정범위가 증가되는 이유는 레이저빔의 좁은 비임 발산성과 그 검파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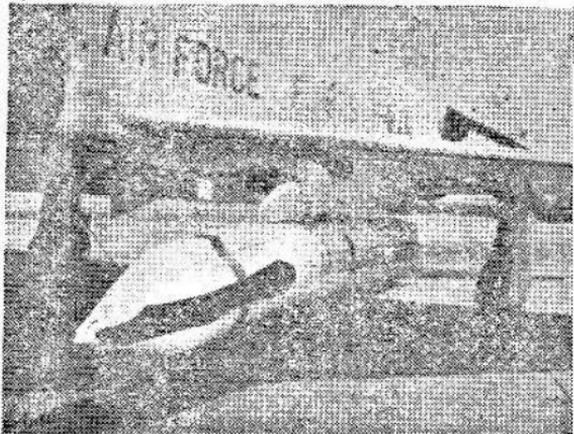
비임은 일반적인 마이크로파 방사에서처럼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모든 송전력을 목표물로 투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기중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이저는 흡수 및 분산되기 때문에 재래식 마이크로파-레이더에 비하여 별로 이점이 없을 수도 있다.

유도장치에 있어 응용범위는 회전장치로부터 완전한 유도장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현재까지 계획되어온 훌륭한 응용부분의 하나는 레이저에너지의 강력한 순간파동에 의하여 문자 그대로

인공위성을 정확한 코오드로 발사시키는 것이다. Holography 라고 부르는 레이저 사진술은 3-D 사진 즉, Hologram 을 레이저광선으로 촬영한 사진으로서 3-D 상이 나오며, 이는 원상(Original Subject) 과 동일하다. 현재 Holographic 3-D 영화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고 있다. 공군에서는 레이저를 응용하는 분야로서는 종포조절, 목표물, 거리측정 및 정찰 등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장치가 다 많은 응용분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레이저 장치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적절한 보호장치 및 공군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이와 같은 위험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레이저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안전기준 및 규칙이 완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초보적인 단계로서 일부의 레이저 안전장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에 는 레이저 시스템의 안전작동 및 정비, 재료, 레이저시설의 설계지침 및 레이저 방사에너지의 식물학적인 효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지휘관은 이와 같은 장치 및 사용상의 필요로하는 관계요원들이 상기와 같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기상 레이저 조명장치

○...필자는 6·25 전란 당시...  
 ○...100회의 직진출력을...  
 ○...기록, 전과다대하였다...○

- (1) 내 일
- (2) 사 생 관
- (3) 나의 생명



손 흥 준

<전투조종사·예비역 공군중령>

< 1 >

아침이 되면 누구나 눈을 뜬다. 세수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세끼 밥을 먹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재가기 일을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그더나 밤이 되면 누구나 자야 한다. 이렇게 날마다 똑같은 일과 속에 살면서도 우리네 사람들은 용케 싫증을 내지 않는다. 싫증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똑같은 생활 속에서도 백년 아니 천년이라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바램이기도 한 모양이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과 속의 하루하루는 그러면서도 또 바쁘기도 하다. 지루한듯 하고 한가한듯 하면서도 무엇인가에 쫓기고 밀리는 것이 또 한 생환인가 보다. 이렇게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나는 아침저녁 홀로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는 곧잘 공상에 잠기곤 한다. 결국 이것 저것 실없는 생각들이 밤거리의 내온사인처럼 내 머리 속에서 켜졌다 꺼졌다 명멸하는 것이지만 이럴 때면 나는 멍하니 누워서 천정에 붙은 파리똥을 세고 있기가 일쑤이다. 내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된 듯한 이 순간이 나는 무한히 행복하기도 하다. 그 행복된 순간 나는 언제나 내일에 감사한다. 내게 내일이 없다면 나는 지금 평화로운 마음으로 이 한가로운 순간을 즐길 수 없었을 것이 아닌가? 만약 내일이 없었다면 나는 건박하고 숨막히는 현실 속에 쫓기고 불안해 하며 이 순간을 흐뭇한 나의 것으로 즐길 수는 없었으리라.

보통 누구나 하는 일이겠지만 나도 그날 그날을 좀더 보람있게 살기 위해 조그만 수첩에 그날 하루의 할 일들을 기입해 놓곤 한다. 어떤 날은 두세 줄 또 어떤 날은 십여 줄 수첩장이 까맣도록 써 넣는다. 그 많은 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일이 끝나는 대로 한 줄씩 싹싹 지워나가는 상쾌감. 그래서 하루의 마지막 순간 그 많은 할 일들에 전부 줄을 그어 버리고 난 다음의 가벼움과 호젓함이란 참으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그때로 맛보는 듯하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나는 전부를 지워 버리지 못하고 한 두 줄 남기기가 일쑤다. 그땐 때면 나는 그어 버리지 못한 오늘의 일들을 또 내일의 난에다 기입해 놓는다. 오늘 다 못한 일을 내일 마저 하자는 심산이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이때 처럼 감사하고 또 대견하게 생각할 때는 없을 것이다.

더우기 생각나는 것은 공군재직시의 일이다. 10일잔을 육로, 공로 신천할 전술기지 후보지를 답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아침 본부참모회의 시간에 브리이핑하라는 국장의 명령이다. 나는 과원을 데리고 야간작업을 하면서 부지

런히 숨쉴 사이도 없이 펜을 놀리며 자야트를 그려 보았으나 내일 아침까지는 도저히 완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국장에게 내일로 연기하여 달라고 말하였더니 쾌히 승락하여 그 이튿날 무사히 끝마친 일이 있지만 그때의 내일은 더욱 나에게 감사의 대상이었다.

이 밖에 군인사회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에게서 간혹 볼 수 있는 풍조로서「내일이 무슨 소용 있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초로와도 같은 인생, 먹고 마시고 오늘에 만족하면 돼」 또는 「도대체 내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때로 또 내일은……하면서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말이야」 또는 「내일에는 어떻게 되든 술만 먹으면 돼」, 「내일은 어떻게 되든 부서버려」 등등 참으로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져 계몽 된 이면에는 아마 기계적인 날마다의 전조하고 고된 생활의 퇴물, 부자유 그런 것들이 그 젊은 마음에 검은 그림자를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느껴진다. 나는 이러한 젊은이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 실망은 젊은이의 적 인간의 적

이라고, 그리고 내일의 의미를 구태여 알려고 할 것 없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느라 하면 그 내일이 올 것이고 또 언젠가는 그 「내일의 의미」, 「내일의 행복」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누구가 나에게 「당신은 내일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 나도 확실한 대답은 할 수 없으나 다만 「내일을 믿지 않고서는 절망과 불안에 오늘을 살아갈 수 없다」는 그것만을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나에게 약속된 내일이 없다면 나는 오늘의 민턴 일에 시달려 오늘 편히 쉬고 즐겁게 놀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내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잘못과 내일의 실수를 씻을 길이 없을 것이다. 만약, 내게 내일이 없다면 이 많은 실제와 이 부풀은 꿈을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가? 내일은 나에게 있어서 오늘의 구세주요, 오늘의 탈출구다. 오늘의 호홉이다. 공기가 없으면 생물이 질식사하듯 만약 나에게 내일이 없다면 나는 오늘에 질식사했을 것이다. 천저 가운데 일일부사주의자로 자처하는 분이 있다. 그는 오늘 하루를 유감없이 살아 오늘 하루를 만사에 최선을 다하여 무사히 하루를 지내므로

해서 만족을 삼는다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건강함으로 눈이 떠졌구나. 그럼 오늘 하루는 또 내 것이다. 그리고 또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산다. 저녁 자리에 누으면 아! 오늘도 나는 이 하루를 무사히 내 것으로 살았구나 하며 만족해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뜻 깊은 철학이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비약하는 오늘의 조국의 현실에서 볼 때 너무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그러나 내일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사고방식보다는 낫지 않은가.

이러한 사고가 오늘의 건박한 현실에서 온 것 뿐 아니라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내일을 믿지 않은 경향이 있었것 같다. 즉 한국 속어에 「내일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 또 일본 속어에도 「내년 일을 말하면 귀신이 다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그러한 경향이 더욱 농후해지는 것 같다. 내일을 부정하고 내일을 믿지 않으려는 젊은 군상들. 그래서 세상은 좀더 살벌해 가고 인심은 더욱 더 각박해지는게 아닐까?

나에게 가령 천원의 돈이 오늘 내 호

주머니에 있다고 하자, 이 돈을 오늘 다 써도 내일 또 천원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을 믿는 경우 나는 그 돈을 유효 적절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천원을 다 쓰고나면 다시는 일원도 생길 가능성이 전연 없다고 한다면 내 오늘의 심정과 태도는 전연 달라질 것이다. 부모형제들간에 누가 일전을 달래도 이마를 찌푸리며 쓸 것을 쓰면서도 몹시 불안해 할 것이다. 마음의 여유라곤 조금도 없는 절박한 감정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는 것 그것은 즉 내일이 아닐까. 내일은 우리들 생활에 여백과 가능성을 준다. 그것은 즉 우리들의 희망이요 전진이요 창조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가 그 내일에 속고 사는 인간들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의 또 하나의 비극은 내일의 설계가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현실이다. 이것으로 인해 내일을 믿지 않게된 풍조가 싹트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 지는 것이다. 우리가 좀더 여유있는 국가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내일에는 우리의 설계는 그 설계와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

는 몰라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의 희망을 부정한다면 우리의 앞날은 더욱 더 살벌하며 어두워질 뿐이다. 속고 사는 인생 그러나 때로는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인간보다 더 복이 많을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원동력은 희망이다. 그 희망이 끊어질 때 불 꺼진 등대처럼 우리의 인생의 앞에는 더욱 더 암흑이요 절망일 것이다.

나는 오늘의 나의 꿈 나의 설계가 또 헛되고 헛된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믿고 그 내일의 슬한 기대와 가능성을 걸고 살아가고 싶다. 아니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갈 것이다. 오늘은 슬프고 괴로웠어도 이 밤을 편히 쉬고 나면 그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 햇살이 또 다시 내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내일에는 신의와 기대없이 나는 어찌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내일의 희망, 내일의 의미, 내일의 행복, 내일의 기대, 그것은 즉 내가 정지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윤적임의 상징일 것이다.

오늘은 글도 다 쓰고 했으니 내일을 위해서 불편한 몸을 꼭 쉬게 하련다.

< 2 >

나는 군태에 와서 사생관에 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됐다. 인생의 반을 아무 생각없이 넘고, 어느덧 50고개를 바라다 보며 한걸음 한걸음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보니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며 확고한 사생관의 확립의 필요를 절실히 느낀다. 죽음이 눈 앞에 닥쳐왔을 때 태연할 수 있고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 가짐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죽음 앞에서 허둥지둥 하지 않고 「죽음이여 서슴치 말고 오너라」 이러한 심정에 도달하고 싶은 것이다. 더우기 조국수호에 목숨을 바치고 싸우는 군인들에게는 한층 더 확고한 사생관의 확립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회고하건대 6·25 동란시 우리와 같은 적의 포화 속을 헤쳐며 목표를 향해 돌입하던 때의 죽음을 초월한 감정은 아직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죽음에의 공포를 완전히 초월한 사생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나는 미신을 지켜 여자의 치마로 「마후라」를 하면 액을 면한다기에 하루 기생집

에 놀러 갔다. 기생이 입고 있는 빨간 양단치마를 찢어 마후라를 하고 휴전시 까지 출격한 생자이 난다. 후에 양단치마 값은 물어 주었지만 아직까지도 치마를 찢기우며 울던 그 여인의 가냘픈 모습이 가끔 떠오른다. 오늘 현재 전시는 아니라 할지라도 군인은 하시라도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다. 선배, 친지, 동지들이 하나 둘 내 주위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 「내 차례도 점점 가까와 오고 있구나, 인제가 내 차례일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3년전 공군의 산폐지로 유명한 유장군의 죽음. 도끼로 찍어도 안 죽는다면 그 늠름한 재구가 썩은 교복처럼 불시에 쓰러졌으니……, 또 지난해 가을 공군의 거구로 이름 높인 김 모장군(내부부 기획조정관실장)의 뜻 밖의 사망 부고를 보았을 때 도저히 무심 무정할 수가 없었다. 옛날 스토아 철학자들이나 에피쿠로수 학파의 철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죽음의 두려움을 초극해 보여고 온갖 노력을 한 것과, 갖가지 사색에 진지하였으며, 노자나 장자의 사상도 사생일여의 달관을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

기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다. 동서고금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과의 대결이요 죽음의 공포와 허무와 슬픔을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진지한 노력에 불과하다. 그리이스의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은 오지 않았다. 또 내가 죽었을 때에는 이미 나는 살아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음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또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이기려고 하였다.

이론적으로는 과연 그렇다. 우리에게 생명력이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아직 죽지 않은 것이요 또 죽었을 때에는 이미 내 생명은 지상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만나거나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또 두려워할 하등의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피쿠로스”의 논리대로 생각한다고 해서 죽음에 대하여 달관했거나 죽음을 극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론적 자위는 될지 몰라도 정의적 해결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기본적 감정을 갖는

다고 한다. 첫째는 죽음의 공포심이요, 둘째는 죽음이 슬프다는 감정이요, 셋째는 죽음이 허무하다는 감정이다. 다시 말해서 공포감 비애감 허무감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 아마 이 세 가지 감정 중에서 개인에 따라 어느 것을 더 느끼고 어느 것을 덜 느끼고 하는 차이는 있을 것이나, 전적으로 이 영역을 벗어나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는 죽음을 무섭다고는 별로 느끼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감 때문에 피로와 하지는 않는다. 죽음의 공포감은 옛날로 올라갈수록 심한 것 같다. 악인인 경우에 죽으면 영원히 고통이 따르는 지옥의 겁화(劫火)나 독사 속에 떨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유행했고 또 종교적으로 설교해서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 종교인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이다. 과학의 세례를 받았고 합리적 사고방식에 젖은 나로서는 그러한 이야기에 아무런 실감을 갖지 못한다. 그리이스 신화에 의하면 죽음의 신을 타나토스(Thanatos)라고 했고, 로마 신화에서는 모르스(Mors)라고 칭한다. mortal(모탈)이란 말은 모르스(Mors)에서 유래된 말이다.

모탈(Mortal)은 죽는다는 뜻과 동시에 인간이란 의미를 지닌다. 가사활(可死活)은 인간의 운명이다. 인간의 운명은 수면의 신과 형제지간인 동시에 밤의 아들로 되어 있다. 죽음은 어두운 영원의 밤속에서 깨지 않고, 그대로 그대로 자는 것이라고 그리이스인들은 생각했다. 우리 동양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니다. 자고로 3일장, 5일장이니 하는 장례일은 영원한 잠에서 혹시 깨어나지 않을까 하는 관념에서 온 것이다. 지옥의 존재와 형벌에 대해서 지위 실감을 느끼지 않는 나로서는 죽음의 공포감은 별로 갖지 않는다. 지옥이 있다고 해도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사신이 저급이라도 데리고 간다면 나에게 배당된 좌석은 천국과 지옥의 경계지역이 아닐까.

나는 죽음의 공포감 보다도 죽음의 비애감과 허무감이 더 절실하고 실감이 온다. 죽음의 비애감과 허무감은 거의 같은 정도로 강하게 느껴진다.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을 미워하는 것은 주로 이 두 가지 감정 때문이다.

죽음은 슬프다. 죽음은 허무하다. “죽는

다”는 생각만 해도 비애의 감정이 온몸을 휩쓴다. 사랑하는 모든 것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슬프다. 특히 정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영원한 이별은 더욱 슬프다. 불교에서 인생의 팔고(八苦)를 말할 때 애별(愛別), 이고(離苦)를 말한다. 죽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이다.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는 아내와 애인, 사랑하는 부모형제의 영원한 이별은 인생의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식이나 생명처럼 사랑하는 아내 또는 애인이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는 정신적 불구자가 되기 쉽다. 생에 대해서 아무런 의욕도 안 느끼고 슬픔에 눌려서 산 송장처럼 된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동물인 동시에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사람은 사랑하는 맛에 살고 사랑을 받는 재미에 산다. 사랑은 분명히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가서 사랑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싫어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죽음이 그리 슬프고 괴롭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고 싶어도 사랑 때문에 못 죽는 수가 많다. 인생에서 사랑을 빼앗으면 살 맛이 없어진다. 죽음은

곧 사랑의 원수다. 나는 가끔 아내와 말  
다름하다 이러한 말을 듣는 수가 많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  
겠다」 그럴 때면 나는 으레 「죽지 빛이  
겁이나서 못 죽어」, 「당신을 못 잊어 못  
죽는 줄 아슈 자식들 때문에 못 죽어  
요!」 한다. 여하튼 나는 미울 지언정  
자식을 사랑하기에 못 죽는다는 말일 것  
이다. 그렇다면 죽음의 슬픔을 덜게 하  
기 위해서는 사랑의 대상을 안 가져야  
한다는 논리가 나오겠지만 사랑이 없이  
는 인생을 즐기며 살 재미와 보람이 없  
을 것이다. 사랑하는 소중한 생명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날 것을 생각할 때 죽  
음은 한없이 슬프고 피로운 것이다. 죽  
음은 슬픈 동시에 허무하다. 나의 온 존  
재가 흙 속에 묻히어 썩은 상장이 되어  
무로 화할 것을 생각하면 생의 모든 영  
위가 허무하다는 느낌이 든다. 죽음은  
곧 무로 화하는 것이다. 죽음도 인생의  
무화다. 일본사람들은 죽음을 없애지는  
것, 무로 회하는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죽는 것을 돌아간다고 했다.

결국 무에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도  
이취의 실존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무 속에 죽음 속에 내어 던져진 존재라

고 했다. 있는 것이 없어지고 존재가 바  
존재로 화하고 유가 무로 된다는 것은  
확실히 존재의 근원적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간은 무의 운명을 짊어지고 살  
아가는 이상 본질적으로 비극적 존재라  
고 아니 할 수 없다. 죽음은 멀리서 나  
타난다. 신문지상에 버스사고로 뺨십명  
이 한꺼번에 죽었다느니, 연탄가스로 일  
가족이 다 죽었다느니, 청춘남녀가 정  
사했다느니 하는 기사를 읽을 때 우리  
는 죽음을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느껴  
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남의 죽음으로써  
나와 관계가 없이 느껴진다. 죽음은 먼  
데서 그 뒷 모습만을 슬쩍 보이고 금방  
사라져 버린다. 그 다음에는 죽음이 좀  
가까이 내게로 다가서 온다. 나의 가까  
운 친구나 친척이 죽었을 때 우리는 죽  
음을 내 심변에 절실히 느낀다. 분명히  
죽음이 내 옆에 와서 잠시 나를 바라보  
다가 가 버린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죽  
음을 어느 정도 주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느낀다. 죽음은 좀더 가까이 나에게 다  
가 선다. 내 자식이나 애인이나 부모형  
제가 죽었을 때 죽음을 절실히 실존적  
으로 체험한다.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  
고, 분명히 나의 일로 느껴진다. 내 문

지방에까지 죽음의 신은 나를 찾아온 것이다. 죽음은 한참 동안 나를 전면으로 둘러싸고 보다가 가버린다. 그래서야 우리는 그 무서운 죽음의 얼굴을 대한다. 다음에 필경 죽음은 나를 찾아온다. 사신은 냉엄하게 자연스럽고 예고도 없이 나의 문을 두드린다. 이제는 네 차례니 가자는 것이다. 그것은 불가항력의 방문이요 필연의 손님이다. 우리는 죽음의 손에 끌려 혼자 갈 수 밖에 없다. 그리이스 신화에 의하면 제우스는 인간 중에서 가장 교활한 인간인 “시지포스”에게 “타나토스”(죽음의 신) 즉 죽음을 보였을 때 “시지포스”는 사신을 속여서 결박했다. 그 때문에 지상에는 한때 죽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 그것은 신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고 우리는 “시지포스”처럼 사신을 묶어버릴 지혜와 재주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신 앞에 시야 한다. 그 앞에서 우리는 허둥지둥하고 싶지 않다. 태연자약하게 순순히 웃음으로 대하고 싶다. 그러려면 평소부터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확고한 사생관의 확립이 필요하다.

< 3 >

어느 이른 봄날 새벽 나는 남산허리를 끼고돌며 관각정에 이르렀다. 팔각정에서 서울거리를 내려나 보니 햇살을 받기 시작하는 빌딩들은 외국의 도시를 연상시키며, 병풍같이 둘러쳐진 먼 산봉우리들은 아직 잠이 덜 깨어 보인다. 옆 계곡에 자리잡고 있는 버드나무에는 새순이 돌아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다.

갈자기 숲 속에서 이름 모를 새소리가 야무지게 들려온다. 그 소리는 문득 잊었던 나의 생명을 일깨워 주었다. 나의 생명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 두 분의 부모 이렇게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나 하나의 생형도 수억 사람의 피의 연속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 중에서 내가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얼굴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세분 뿐이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할아버지는 벌써 세상을 떠나셨고 칠순된 아버지도 어머니도 가깝고도 먼 이복 고향 땅에서 이 세상을 떠나셨을 것이니, 나 하나를 이 세상에 남겨 놓기 위하여 수 억의 사람이 모진 고행과 통파를 겪으며 애쓰셨을 것이다. 오늘에 하는 일 없이 명든 땀으로 산길을

걸으며 명상에 잠기는 이 생명을 위하여 그들이 살으시고 모진 고난 속에서 고이 키워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것 같다. 어쩌면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이 생명은 이 길을 걸다가 죽을는지 모른다. 나는 소년시절에는 꿈도 많았고 포부도 컸었다. 이순신 장군, 나폴레옹, 소크라테스 등 위인들의 꿈 결국은 비행기 운전수의 몸이 되었으니 생각하면 명랑한 꿈이었다. 그것도 지금은 끝을 보지 못하고 병든 몸으로 오솔길을 걷는 신세가 되었다.

회상하면 저 나무가 자라듯이 나의 몸은 소리도 없이 자랐다. 마을 어귀에선 포플라나무처럼 바위 옆에 우뚝 솟은 소나무처럼 미끈히 자라지는 못했으나 그런대로 정성하고 흠없이 탐스럽게 자라기는 했다. 이십년전만 해도 나는 육체를 경멸했다. 그 때만 해도 육체와 정신을 떼어 생각했던 까닭이다. 굶주리고 얼벗어도 거들떠 본 일도 없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 저절로 싱싱하게 자라는 육체. 비 바람 속에서도 즐기차게 자라는 잡초와도 같이 나의 육

체는 거리낌없이 자랐다. 초라한 모습 이기는 했으나 그래도 끈기있게 자라기만했다. 그러나 모든 초목이 자라시어 울여지듯이 지금의 내 몸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했고, 늙기 시작하는 갱년기에 들어섰다. 나는 이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더디게 하려고 오늘도 비탈길을 걷고 있다.

그 동안 나는 어린시절부터 따뜻한 부모를 떠나 구름같이 떠돌아 다녔다.

16살에 홀로 일본에 갔었고 18살에 조국광복과 더불어 고국을 찾아와 사선인 38선을 넘어 이북 고향으로 들어갔다. 나는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했고 또 직장을 이천(伊川) 피미단이란 곳에서 여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한편 여학생 기숙사 사감까지를 겸했다. 그러나 그 후 공산당의 폭정에 못이겨 단신 월남해서 오늘에 이르렀다. 노부모를 놓고 온 나의 지금의 심경은 푸른 바다와 같이 답답하기만 하다. 나는 생각한다. 나의 생명은 인과보답(因果報答)에 있다고…….

흙에서 받은 것은 흙으로 돌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사람에게 돌리려 한다.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

나 그것은 끝난의 일이고 오늘도 살아야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닌가? 사실인즉 이 오늘의 나 만이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의 나는 기억에 남아 있을 뿐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생명은 확실히 지금 이곳에 있다. 하루같이 먹고 입고 살고 배우고 한 그 전부들이 한 묶음에 지닌 채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과거를 머뭇머뭇 올라가면 알 수 없듯이 미래를 내다보아도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다만 지금 이곳에 이 모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 확실한 것의 연속이 나의 생명이 살아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이 확실한 순간 순간이 나를 떠나지 나를 찾을 수는 없다. 지난날의 나의 생명은 있었다가 없어졌고 앞날의 나의 생명은 아직 없다. 그러므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생명만이 참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지 깊은 낭떠러지에 탁 몸을 던져버리면 「나」라는 이 생명은 영영 없어지고 마는 것이다. 모든 세상만물이 생겨났다가 없어지듯이 나의 생명도 긴 세월을 두고 보면 결국 없는 것이다. 하늘이 허무하듯이 나의 생명도 멀리보면 허무하고 무상하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허

무와 무상을 인생관으로 하였고 때문에 굶어서는 잘 노는 것을 일삼고 굶어서는 무의도식을 일삼았었다.

그것이 후손인 우리에게 뒤떨어진 약소민족의 비애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줄은 몰랐다. 그들에게 좀더 깊이 생각하는 힘이 있어 내가 태어나는 것도 살아 가는 것도 모두가 남과 합쳐 이루어진 힘이며, 나는 죽어도 민족은 남는다는 것을 깨달는 데서 없어질 자기보다도 남아날 남을 위하여 활동하는 인생관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던들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숭배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는 않다. 무(無)보다 유(有)에, 이상보다도 현실에, 나보다도 남에게, 죽음보다도 삶에, 노는 것 보다도 일애, 어둠보다도 빛에 더욱 가치를 두는 생활태도를 가진다면 우리의 역사는 훨씬 달라질 것이다. 산다는 것은 활동하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기체에 기쁨을 줄 필요가 없듯이 활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움의 줄 필요가 없다. 활동을 하되 좋고 유익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더욱 좋은 활동을 하도록 사회에서 또는 온겨레가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의 생활은 눈부시게 달라지리라. 따지

고 본다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실상은 없다. 본의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것 같이 본의는 아니로되 언젠가는 죽는 일시적인 존재이다. 스스로 왔다 스스로 가는 우리의 생명. 「우리」라는 민족과 인류는 하늘의 별같이 땅 위의 모래같이 늘어만 갔다.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이들이 있다. 각자가 자기의 생명과 인격에 저 멀리 바라보이는 삼각산의 위엄을 지나고 배일 바라볼 수 있는 저 북악산과 이 남산에서 관용과 사랑을 배웠던들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이었을까? 그러나 나는 조

상도 이웃도 탓하지 않으려다. 내 몸이 영양을 취하여 소모하듯이 나의 영양껏 일하고 남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려다. 내려다 보이는 저 시가 속에 사람 하나 하나가 태어나고 또 죽어가도 하늘과 땅은 변함이 없고 군가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전물이 하늘높다 모르고 치솟아오르며 길이 한없이 뻗어나가며 공장의 기계소리가 요란하다면 거기에 내 생명 아니, 우리 생명 다 바쳐 일하여 후회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힘차게 자신 있게 그 곳을 향하여 내 생명을 바치려다.





# 알찬 보람이 있었던 날

상사 문 종 진

S형!

손을 짚아 헤어보니 형과 헤어진지가 이년이 더 되었오. 이곳 ○○기지에서 동고동락이 엇그제까만 같더니 무심한 세월은 인생의 무상함을 아랑곳 없다는 듯이 부질없이 흘러버렸오.

S형, 그간도 몸편히 안녕하시오. 오랫동안 펜을 들고보니 송구스런 마음뿐이요. 넓은 이해가 있어야겠오. 이곳에 저도 형의 임리로 별고 없이 잘있오.

S형, 오늘은 날씨가 고르지 못하오. 아침부터 먹저장같은 검은 구름이 하늘을 먹칠해 놓고 대지 위에는 가지저 앉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실날같은 이슬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오. 아마, 봄을 문턱에 두고 사나운 겨울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같소. S형, 그래서인지 내 마음이 공허하고 처량한, 그리고 몸마저 싸늘한 잔혹에 떨고 있다오. 물론 고르지 못한 일기타이겠지요. 이 공허한

내 자신을 채적하면서도 멀리가게신 형의 소식이 궁금하고 형과의 잊어지지 않는 생활의 한부분이 조수의 밀물처럼 밀어닥쳐 몇 자 적어보는 것이요.

S형, 지금은 떠나고 없는 이곳 ○○기지에서 형이나 저는 너무나 벽찬 시련과 곤란 속에서 젊은 한 시절을 보냈던 것이요. 이년 진의 생생한 기억이 불시에 떠오름은 너무도 인상적이고 감개가 무량하였던 생활이었기 때문이 아닌저 모르겠오.

S형, 널리 알려진 그 옛날 중국의 전시황제가 수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전설 아닌 역사가 허위가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던 것이요. 오늘날의 즐기차고 늪름한 이 ○○기지가 그 옛날 만리장성 못저 않게 우리 젊음의 피를 송두리채 뽑아갔다는 사실이요. 그 젊음의 고귀한 피의 결실이 오늘날의 결정체를 가져다주었던 것이

요. 그리고 인간의 인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활동이 얼마만큼 넓다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현실이요.

S형. 그럼 이년 전의 다정다감했던 이 ○○기지에서 건설의 역군으로서 일했던 시절을 간단히 이야기 해 봅시다.

우리가 최초로 공군에 입대하여 우리가 부여받은 특기는 비행기 정비였오. 정비사가 직업적인 언어가 되어버렸고 유일한 삶의 길이었오. 그리고 맡겨진 천직이었오. 이 직업에 매달려 살아온 저도 어언 십년이 넘어섰고, 지금도 계속해가고 있지 않소. 복잡하고 세밀하게 설계된 기체에 매달려 신경을 곤두세우고 단 한 건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고심했던 것이요. 특히 S형은 남달리 작은 체구에 두 큰 눈을 휘둥거리면서 업무량이 많은 작업장에서 야간작업 주간작업에 쫓기면서도 일어난구의 불평하나 없이 충실하게 근무해왔던 것이요. 역시 S형다운 충실한 책임의 소유자였오. 그러나 정밀한 정비 작업도 중요했지만 그 당시 이곳 ○○기지는 황량한 황무지처럼 되어버렸오. 이 황무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즉 우리가 실 땅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집착이었

오. 광활한 벌판에 나무 한 그루 찾아볼 수 없고 잔디 한포기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던 땅이었오.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기지라기 보다는, 역센 불도우저로 밀어 놓은, 터를 잡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려는 기공작업과 같은 것이었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거대한 과업을 착수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요. 영공을 지키면서 우리의 기지를 건설하자는 굳은 집념만이 각자의 마음 속에 간직하였을 것이요. 영광스러운 기지건설의 역군, 삼한 자루, 낫 하나씩이 전장병에게 나누어졌고 기지의 전장비는 물론 인원도 총동원 되다싶이하여 적극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오. 가지지 않은 찬 바람과 공중 얼어붙은 땅 위에서 우선적으로 도로작업을 착수하였오. 물을 날려다 흙을 제거하고 모래를 실어다 그 위를 깔고 축압기를 사용하여 바탕을 굳건히 하고, 골탈을 내뿜어서 쪽펄은 세 개의 아스팔트의 새로운 도로작업을 완료하였오. 도로작업이 완료됨과 그 주변의 정지작업이 연일 계속되었던 것이요. 토질에 따라 증산을 목적으로 버를 수확하고 무우, 배추를 심어 장병의 부식비에

충당되었으. 미래의 지상의 낙원을 장식하기 위해서 장미원을 만들었고, 식물 표본장, 대나무밭, 포플라나무밭, 화단, 아스팔트 주변에, 사천 번하지 않는 상나무, 소나무가 심어졌으. 그 나무들의 주변에는 잔디가 즐비하게 심어졌던 것이요. 또한 운동장을 만들고 운동장 스탠드를 금잔디로 깔고 양어장, 연못, 그 야말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작업들이 우리의 땀을 빼앗아 갔던 것이요. 호남일대를 이잡듯이하여 구해 온 갖가지 나무들이 기지 구석에 파들어 왔던 것이요. 찬 바람이 휘몰고 질 칼칼의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엄천하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기지건설이라는 목표로 전장병은 피로한 육신을 고된 ○○기지에서 녹였던 것이요. 끝일줄 모르고 연일 계속되는 작업 때문에 손과 발이 공개지고 얼얼한 구리빛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요. 비행은 비행대로 지상의 기지건설은 건설대로 진행되어 가면서도 요행히 날씨가 나빠 오늘만은 휴무가 될거라고 기대를 가져보았지만 아침 일과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사령부 스피커에서는 불멘소리로 「전장병은 오늘 각 대대별로 할당된 작업을 계속 실시하라」이 소리를 들었을

때 너도 나도 두덜대었으. 「정말이지 공군에 삽자루 쥐려고 왔나? 사역하러 왔나 이정도 해두지」 그러나 작업장에서 일하다 보면 일과가 끝나는줄 몰랐던 것이요.

S형 특히 S형과 잊어지지 않는 일이 생각나오. 무념고 진여를 어느날 불덩어리같은 태양이 바로 우리의 육신을 휘감을 때 그 날은 운동장 스탠드 금잔디심기 각 대대별 경쟁이었으. 형과 나는 반스바람으로 잔디를 자르는 일이었으. 땀으로 목욕을 하면서 한창 팔라가다가 형의 삽이 잘못 팔러 내 오른쪽 엄지 발가락을 약간 다쳤던 것이요. 그 순간 형은 너무 당황하여 「임마 어디야 어디」 그 눈동자를 휘둥거리면서 런닝셔스를 찢어서 잡아주고 서로 바라보며 웃었던 일이 었그제갔으. 그리고 대대장님이 아이스케키를 두 개씩 나누어 줄 때 삼초도 안 되어 삼켜버린 기억도 생생하오. 이런 벽산 시련 속에서 기지는 날로 참신되어 가고 인간의 피와 땀의 댓가를 증명해주었던 것이요. 그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하여 이제 그만이겠지 했는데 또 기지건설이라는 지시었으. 그러나 사나운 마음 강철같은 젊은이들의 투지

앞에는 엄청난 대자연도 인간의 도전에 굴복했던 것이요. ○○기지건설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피와 땀을 빼앗겼다 하지만 이 황무지에서 요탐의 아름다운 새 기지를 우리의 손으로 장식했다는 그 시련은 시간들이 말해 줄 것이요.

S형! 형은 지금 떠나고 없지만 이곳은 어디보다 더 멋이 있고 노력으로 꾸며진 보라매의 보금자리요. 형이 떠나던 그 다음 달 유월, 이곳은 온통 장미빛으로 물들었고 썩썩하게 자라난 푸른 나무, 푸른 잔디로 일색되었던 것이요. 간드러진 유월의 미풍에 포플라의 나무 잎이 흔들릴 때 내 마음은 한량없이 감격하였다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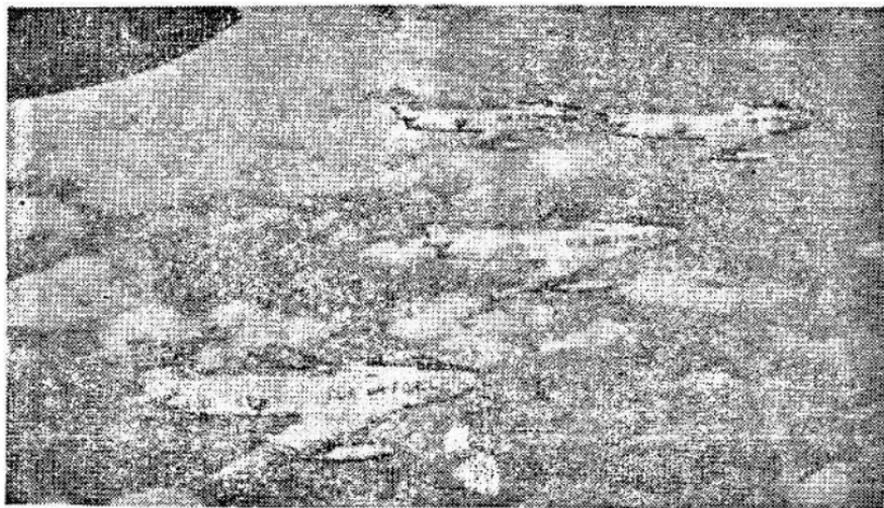
S형. 진실한 ○○기지의 개척자. 그리고 선구자임을 이 글로서 매듭짓겠오. 인차 한 번 찾아주세요. 알찬 보람이 있었던 그날을 아실려면 꼭 찾아주세요. 그리하여 우리 기지 산보나 합시다. 텅텅한 대궐잔을 들어가면서 옛우정을 나누어 봅시다. 요즈음도 건설은 계속되고 있오.

은빛의 날개가 구만리 창공을 누비던 서 하얀 비행운의 꼬물선을 그리고 자상에는 약진의 ○○기지 해머소리가 호남의 뿔을 때아리치고 있오. 장엄하고 줄기찬 새 역사의 창조자인 S형의 전투를 비오며 이만 펜을 놓겠오.

신의 가호와 행운을!

## 박대통령 문언록에서

◇...우리는 지금 새로운 민족사의 문턱에 서 있다. 이 새로운 민족사는 밝으로 호혜평등의 위치에서 가슴을 펴고 세계 무대에 진출하여 민족의 영광을 차지하고, 안으로 우리의 지상과제인 조국근대화 작업을 하루 속히 성취함으로써 자립과 번영을 누릴 통일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동제목=

## F-86F 단독 비행 유감



중위 김 종 환

“기수들지 말고 Power 줄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 당겨 줘” 고막을 진동시키는 음성. “그대로 있어, Power 서서히 줄이고” “방향유지”

평범한 언어 같지만 사회의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고 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꼭 따라야 하는 말이다.

× × ×

비행운의 꿈을 키우며 자라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 임관 후 하루 하루의 비행조작에 몰두하다 보니 벌써 일년이 되었다. 졸업 후 내가 전투조종사가 되기 위해 L-19을 탔고 김해에서 T-28A 훈련을 통해 조그마한 비행이란 천학을 감득하여 얼마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그동안 뜻하지 않았던 비행사고로 선배, 동료들의 값비싼 생명의 기록한 죽음을 보았고, 내자신 비상사태도 당해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기록한 죽음을 빌바탕으로 선배님들의 가르침 속에서 제트항공기(T-33A)를 타기 시작하였고, 여기에서 제트 항공기의 특성과 항공기가 무엇이라는 것을 조금은 배웠다. 이러한 중등 비행을 마친 나는 오늘에서야 F-86F를 처음 내 손으로 조종하는 맛을 보았다.

F-86F Jet 전투기. 우리 한국의 영역을 방위하는 항공기이다. 그동안 중등비행과정에서 T-33A를 조종하면서 전투기를 조종하는 것을 부러워했고 나도 저것을 빨리 조종했으면 하는 욕망이 있었다. 중등 비행과정에서는 교관님과 동승을 하여 직접적으로 나의 조종을 수정해 주시고 비상사태는 손수 처치해 주셨다. 그러나 F-86F는 내 혼자서 적기를 상대하여 격추시키야 하고 적지를 폭격해야 하며, 내 눈으로 내 정신으로 모든 경우를 신속 정확하게 판단 처치해야 한다. 오늘 나는 비행생활 후 처음으로 F-86F를 내

손으로 공중에서 비행 후 무사히 착륙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비행기를 조종했는지 비행기가 나를 태워 줬는지 못느낄 정도로 무척 긴장한 1시간, 무척이나 긴 시간같기도 했다. 브레이크를 받고 처음입는 G-슈트를 입고 좌석에 앉은 후 시동을 걸었다. 온몸이 긴장과 초조감으로 땀으로 젖었다. 얼굴에 흐르는 땀이 입 속으로 흘러 들어가 짝살한 미각을 일으켰다.

환주루에 정대 후 모든 계기 점검이 끝난 후 마이크로 준비완료라는 신호를 보냈다. Mice로부터 "No 2 Take-off"라는 무소리가 들렸다. Power 100%rpm 상태에서 Brakes를 놓으니 항공기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내 몸이 바짝 오그라든다.

방향유지 철저라는 교관님의 소리에 다시 한 번 내앞을 확인하며 계속 전진했다. 한참 후 "Back presswe"라는 Mice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조종간을 당겼다. 무척 긴 시간이 흐른것 같았다. 환주루가 시야에서 없어지며 보이는 것은 파란 하늘 뿐이다.

좌석만이 외파로 떨어진 것 같으며 날개도 안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 항공기의 동체는 전부 없어졌나 할 정도로 착각할뻔 했다. 얼마 후 “No 2 Climb check”하는 장기로부터 신호로 정신을 가다듬고 기체에 천천히 손을 대고 계기를 살폈다. 모두 정상상을 지시해 주고 있었다. 그리고 내 자세를 천천히 살폈다. 이제서야 서서히 날개도 보이고 자세도 알 수 있었고 또한 옆에서 나란히 나는 교관님의 항공기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나 혼자 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승리의 쾌감을 맛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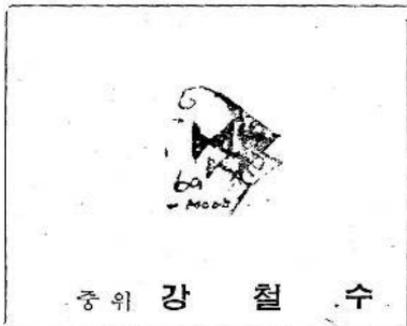
착륙하면서 Mice controller의 당겨라 발쳐라 하는 유도를 받으며 1시간의 비행을 끝마치고 무사히 착륙하였다.

전투 조종사! 내 앞에 서서히 나가 오면서 크게 확대되어진다. 남이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 끝없는 푸른 창공, 그곳이 우리가 잡드는 영원한 보급자리이며 만없는 무생물체를 데리고 생활한다. 비록 많은

못하지만 우리는 이 항공기를 내용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 내가 화를 내면 비행기도 화를 낸다. 그래서 조종사는 누구나 자기의 애기와 무언(無言)의 대화를 속삭일 수 있다.

우리는 비행기를 좀더 알고 좀더 가까이 사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다. 오늘날 모든 전쟁에서는 머리의 지식과 기술의 복합체에서 나온 작전만이 승리의 첩경이다. 우리 새끼 조종사들의 앞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가 많다. 우선은 기술의 연마와 지식의 습득이다. 탐과 정신의 일치, 여기에 전적 필살하는 기술을 연마하여야 한다. 이에 나도 대열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좀더 F-86F 항공기를 알고 기술을 단련하기에 탐을 흘려 알찬 조종사가 되고자 한다.

자랑스러운 조종사의 상징인 조종용장을 달고 처음 전투기를 조종한 내 이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국가안전을 위해 모든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단련하는 전투조종사의 보람을 느끼고자 최대의 노력을 다짐해 본다.



중 위 강 철 수

오늘따라 일찍 눈을 떴다. 엷서너도 늦어서야 잠을 청했지만 이처럼 시들터 지는 것은 첫 Chase의 긴장감 때문이리라.

눈을 감더라도 관심이 쏠리는 하늘은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여섯갈래 창문으로 마주 바라다 보인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동녘은 유리보다 더 맑고 푸르다.

창 문턱에 서서 하늘을 응시하며 빨간 머플러를 목에 두르는 손 끝은 떨린다. 이것이 비행의 시작이다. L-19, T-28, T-33의 비행을 통해 비행의 연륜도 두 해를 가까이 하지만 오늘 F-86F 첫 Chase를 맞이하는 마음은 새롭기만 하다.

G Suit를 입고 조종석에 앉은 자세

가 영성하다. 어딘가 좀 잘못된 때가 있는 것 같다.

에당초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할 때부터 마음은 착륙에 있었으므로 침착성을 잃었음에 분명하다.

시동을 걸고 활주로상에 정대할 때까지도 마음은 한결같이 착륙뿐이다. 마치 착륙하러 비행하는 것처럼. 막상 이륙점검이 끝났을 때는 세계는 완전히 바뀐다. 당면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은 이륙에 집중되고 착륙의 생각은 폭음과 함께 Final에 남긴채 속도가 증가된다. 뒷 비행기의 교관님께서 항공기를 부양시켰음에 틀림 없다.

기수가 들리면서부터 조종간을 놓고 고도 기체가 안정될 때까지는 나도 모르게 지났다. 그저 갑자기 눈 앞에 담벼락이 확 닥치는 느낌이었을 뿐 옛날 나를 위해 수고 해주신 T-28, T-33 교관님의 힘으로 조종간을 휘두른 것이다.

심호흡을 하고난 손에는 조종간이 미끄럽다. 아침 브리이핑시에 이륙중

의 비상에 대하여 몇번인가 되풀이로 처치법을 배웠으나 내 손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순간에 비상이 일어났다면 비상인지도 모를 것이고, 무의식 상태만 영원히 계속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1초 아니면 2초 사이였다. 정말 순간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통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들은 높고 넓을수록 정답다. 그래서 하늘의 사나이는 하늘을 좋아한다. 지금은 2피트 상공.

이 공간은 내가 2년여를 싸워온 일터라 이제는 안도감을 갖고 계기를 접점할 수 있고 내가 항공기를 조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저상에서 해야만 되었던 모든 기계 취급은 빠짐없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도 조종사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생각은 착륙 때문에 아주 자신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머리를 돌려 비행상을 쳐다 본다. 활주로는 보이지 않고 강으로 갈라진 대지는 편편해서 아무 테라도 착륙할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관찰이다. 착륙에 사로잡힌 혼돈의 결과다. 하늘이 좁은 우리들에게는 십리길 활주로가 세 걸음 길이다.

첫 걸음에 Hard landing을 피해야 되고 두번째 걸음은 앞만 보고 세번째 걸음은 멈추거나 비상이 예상되는 짧은 시간 급한 걸음이다. 이러한 생각이 화살처럼 머리를 스쳤을 때 교관님은 착륙연습을 지시하신다.

벌써 결정적 시간이 다가온 것이다. 한 번 연습으로 완전히 실패를 했다. 고공에서 했기에 망정이지 활주로에서 했다면 활주로 밑으로 3층을 내려갔을만한 고도를 손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착륙을 의문시하는데 불과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공포로 뒤범벅이다. 연습을 한 번 더해 보겠다는 말조차 입밖에 낼 용기가 없다. 조종간을 쥔 손은 점점 더 굳어져 갈 뿐이다.

이제 내 마음은 조종간을 잡는 것보다 교관님의 지시에 더 집중이 된다. 이륙시 항공기가 나를 배워줬던

기억처럼 또 다시 항공기에 의존하려  
는 생각이 든다.

귀에 들려오던 교관님의 음성은 차  
츄츄 흐려지고 다른 비행기의 작륙을 유  
도하는 불안한 소리가 점점 더 세차  
게 들려온다.

안 보이던 활주로가 실낱처럼 나타  
나기 시작하더니 “당겨”하며 고향치  
는 위급한 소리에 활주로가 갑자기  
커지고 내가 바로 “당겨”를 들어야  
할 차례다. Final에 선 나는 Center  
line을 매달리듯 쳐다 본다.

한번 복행을 했었던 것은 이제껏 없  
킨 공포를 완화시켜 주었고 고향소리  
로 유도받던 비행기들도 부사하게 착  
륙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일면으  
로 자신을 부여하기도 했다.

Center line을 따라 기수가 활주로  
를 반분하는 동안 나도 분명히 “당겨”  
하는 고향소리를 들었다. 그때 나는  
당겼는지 밀었는지 얼마만큼 당겼기  
에 활주로의 두 걸음체를 무사히 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 T-28, T-33훈련의 보람을 음미  
할 수 있었을 뿐이다.

엔진을 끄고 Helmet를 벗을 때 작  
록은 생각나지 않는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티없는 하  
늘처럼 마음이 홀가분하다.

개선의 활개를 띄며 팔간머플러를  
풀면 창문에 별빛이 초롱하다.



최 명 상

푸른 꿈을 하늘에 심고자 에씨는 보  
람이 있어 중등비행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냥 부럽게만 보이던 빛나는  
Wing을 가슴에 단채 MTD(F-86F 정  
비교육)교육을 받으며 대전으로 향하  
는 길은 기쁨과 함께 자랑스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는 훈련보다는 전투기를 탄  
다는 긍지, 교관과 동승이 아닌 단좌  
기라는 생각들은 마치 금방 복격이라

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 것 모양 가슴은 부풀어져 갔다.

많은 기대 속에 하루 하루 익혀가는 F-86F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은 활기를 주었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 스스로 의욕을 불려 일으켜 갔다.

계획된 교육 일정에 따라 Blind cockpit check을 끝내고 Ground taxi에 이어 내일에는 첫 Chase를 나간다는 발표가 있을 때 마음 속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결심이 세워졌다.

T-BIRD보다 Cockpit이 좁고 여백까지 입어보지 못했던 G-suit를 입는 것 밖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막상 잠이 늦도록 오지 않는 것은 나만의 과민한 신경 탓일까!

15, 16 비행대대에서도 많은 Solo flying의 경험이 있는대도 첫 Solo와 똑 같은 기분을 갖게 되는 이유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기분이란 점이였다.

T-28이나 T-33은 교관과 동승을 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어느 정도 익숙시킨 후 Solo 비행이 있지만 F-86은

처음부터 단독 비행이란 점이 조금은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낙하산도 매지 않은 채, 조그만 조종실수로 무한의 공간 속에 하나의 위성이 되어 어찌던 영원히 이 지구상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를 우주 비행사들을 생각할 때 나의 이 조그만 공포(?)는 비교도 안 될까? 없는 Landing pattern을 반복해서 버리 속에 그리며,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

시간나는 대로 R/W control에 나가서 동기생들을 안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아왔고 그 소감을 들어 왔지만 내가 가장 당황했던 때는 Air borne 직후였다.

Direction control에 전신경이 집중된듯 Backpressure의 시기를 놓치고 뒤 Chase 교관님의 지시로 당기기는 했지만 막상 부양하니 허공중에 혼자 솟은듯 자세 파악이 힘들었다.

분명히 혼자 일해도 Chase 교관님의 Advise는 마치 후방석에 앉아 계신듯 정확하고 친절했으며, Climb check를 끝내고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크게 한

연후에야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언젠가 양쪽에 붙어 다니던 Tip tank가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내가 지금 6.25동란 중 맹활약을 한 하늘의 명호 SABRE를 타고 있다는 후련한 실감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뿐, 공중에 올라가면 언제나 연습하던 LAZY-8, Chandelles도 잘 그려지지 않았고, 처음 겪는 G-suit은 Pressure는 마치 뱀이 잡기는 듯 그리 좋은 기분은 아니었다. 특히 16500'상공에서의 Simulated landing은 고부나 고도손실을 많이 가져와 가장 중요한 Landing이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수없이 들어오던 「당겨라」 「잡쳐라」 「Power 줄여라」 등이 콧전에 들어오는 듯 했고 Stick을 잡은 손이 굳어질수록 의식적으로 긴장감을 풀어야 했다. 몇 번이고, 밤늦도록 머리 속에 그려보고 또 실지로 Cockpit 속에 매달려 Stick을 붙잡고 연습하던 시늉들 그것이 과연 실제 조작과 맞아 들어갈 것인가.

활공산을 넘을 때 벌써 도착한 Chase

기의 유도할는 소리는 더욱 주의를 촉구시켰다.

모든 조작은 내가 분명히 했고 Landing도 내가 하긴 했지만 정신없는 사이에 이미 비행기가 활주로상에 닿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 같다. 그때도 활주로를 개방 후 Taxiway를 따라 돌아 올 때는 관중없는 환호성, 소리없는 환희로 가슴은 가득하고 마치 개신장군모양 호뭇함을 느꼈다.

그러나 어느 코판님 말씀대로 "Chase 항공기는 Final에서 던져진 Ball"과 같다는 생각을 할 때 결국 나는 엄마손에 매달려 첫 걸음마를 끝마치어 린애에 불과하지 않을까?

다행히 Emergency의 사태가 발생치 않았고 아무 실수 없도록 많은 애를 써주신 코판님과 정비사님들에 깊은 감사함을 드리며 하루 빨리 유능한 하늘의 Ace가 되기 위해 오늘도 나는 가쁜한 마음으로 Line에 나선다.



김 회 동

평소에 계획하고 상상한 것이 실제로 옮겨질 때 보통은 조금씩은 틀리기가 일쑤이고 또 틀린다고는 하여도 비슷하게 틀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렇게 생각과 실재가 어렵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조종사의 직업외는 없는 것 같다.

무턱대고 모두가 멋지고 훌륭한 조종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생도가 졸업기가 다가오고 비행기 탈난이 다가오면 그때는 멋지고 훌륭한 조종사가 되는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위선 초등훈련 입과 만이라도 하게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행히 입과라도 되면 또 다시 Solo만 나간 뒤에는 어떻게 되어도 좋으련만 하는 생각으로 좁아지거나 또

그것 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어도 좋으니 T-28만이라도 수료하면 더 바랄 것이 없노라는 식으로 또 생각은 바뀌어지고마는 것이다. 얼마나 T-28을 수료하고 싶었던지 당김이 엉망진창인 학생을 앞에 두고 교관님께서 너 이놈 비행기 타는 것 그만둘래 아니면 골통을 부셔 버릴까 하고 호령하니 골통을 부셨으면 부셨지 비행기는 타고싶다는 생각으로 말없이 고개를 숙여서 앞으로 내밀던 생각이 난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던 이런 과정을 T-33에서 똑같이 보내고 바야흐로 늘 바라던 F-86을 탈 난이 작우만 다가오자 T-33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치 86이란 아가씨와 선불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86을 걸 눈길해 왔다.

터놓고 만나 보려니 딱지라도 맞을 것 같은 겁이 나서 감히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간은 사정없이 지나가서 일벌 견에 ○○때대에 들어오니 가뜩이나 겁이내고 조심스럽던 차에 첫신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좌향좌의 구령을 선두로 86 주위

를 뛰어 들고 오라는 명령이었다. 열을 맞춰 틀면서도 연신 한눈은 시커멓게 처든 중동이와 금 봉어처럼 벌리고 있는 입을 보고 좀 잘 친했으면 하고 기원을 했던 것이다.

첫 Chase를 나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매일 기재취급을 하면서 Cockpit가 비좁게 붙어있는 계기판을 들여다 보며 열심히 하나 하나를 눈에 익혔다. 찾기힘드는 Pitot s/w위치를 아는가 했었더니 이번에는 저상택시가 시작되었다.

좌고 누르기 힘드는 Steering botton을 보옥인양 꼭 누르고 있으려니 중간 손가락이 처음에는 떨리려니 늦게는 떨리지도 않고 아주 마취되어 무감각이 되어 버린 때가 많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 넓은 Taxi way에 그렇게 저속으로 똑바로 갈 때는 조금씩 놓았다가 늘려도 될 것을 그것을 놓아 버리면 금시에 가던 비행기가 반대로 돌아서 버릴것 같은 마음에서 절대로 손이 죽어지는 한이 있어도 안 놓겠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이다.

이런 시간이 몇 번 지나고나니 정말

이번에는 대망의 Chase 때가 오고 말았다. 팬스, T샤쓰 갈아입은 것은 물론이고 깨끗이 지난밤에 목욕한 손에 새 장갑으로 분단장하고 제발 훌륭히 첫 Chase를 마쳤으면 하는 마음으로 웃음도 삼가 해 가며 교관님의 Briefing을 마치고 G-suit를 입고 나가니 스스로 우주 조종사라도 된 것 같은 마음으로 비행기에 탔다.

몇 번 연습해 본 Start engine 이었는데도 Chase하는 날은 마치 무엇을 잊어버린 채 Start engine이 될 것 같아 확인에 또 확인을 해야 마음이 놓였다. Run up check가 끝나고 교관님께 완료보고를 하기가 무섭게 자 Steering 꼭 쥐고 Take off하는 구령이 아련히 먼 소리로 들려왔다. 이렇게 되니 이젠 안 뜰 수도 없고 뜨자니 무섭고 그렇지만 하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하며 Brake를 놓아 버리고 말았다. 다행히 Run way 중앙선을 따라 굴르는 구나 했더니 이게 웬일이냐! 완전히 이것은 언덕위 벼랑위에 혼자 동튼 것 같아 아찔했다. 정말 당황했다.

아마 그때 교관님이 자세좋다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면 생각으로는 완전히 Rocket로 수직 상승하는 줄로 알아 비상 처치를 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저경에 이내 Gear up하는 구령이 정신을 번쩍들게 했다. Gear, Flap을 올리고 T-33식으로 Trim을 뒤로 아주 적적 몇 번 썼더니 이것은 아주 오산이었다. 마구 치솟는 항공기. 아차 싶어서 그때야 앞으로 Trim을 썼는데 생각하면 뒤로 쓴것 배 이상으로 앞으로 눌러야 겨우 자세가 맞은 것 같았다.

이렇게 하여 공역위 25m에 도달하여 이제 내가 F-86 위에 앉아 있구나 하고 옆으로 눈을 돌려 보니 멋지게 작도져서 떨어있는 Wing이 아주 멋있었다.

두번째는 Landing하는 차례다. Take off도 그랬지만 Landing은 더구나 안 하고는 못배긴다. 수없이 들려오는 MIC 소리에 따라 Final rall out을 하고 나니 Run way control에서 I get 하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하여 내가 L/D 할지는 기억이 안 난다.

타기는 혼자서 탔지만 이것은 완전히 내 정신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Parking을 하고 Cockpit에서 나와 대대로 들어올 때의 순간은 그 넓은 광장이 모두 나를 환영해 주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환영식장처럼 보여 연신 어깨가 으쓱으쓱해졌다.

어쨌든 이제 Chase는 끝났고 F-86을 타는 것은 사실이다. 생도 때 가졌던 생각이 T-28 처음 입과서부터 첫 Chase 나갈 때까지 줄어들더니 지금은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다.

언젠가 훌륭한다고 생각했던 10.1 행사 Show team의 비행술과 평소애 생각해보던 조종사로서 조국의 창공을 지켜야 하며 적은 숫자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과 더불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갖가지 포부와 상상으로 가슴은 부른다.

찬란히 빛나는 서광처럼 선명하게 비치는 새벽처럼 나는 조종생활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지금 것 보다 더욱 훌륭한 항공기가 나를 부를 것이고 나는 또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 평신도 운동의 성서적 근거



김 재 준

<한국신학대학 명예학장>

▲ 특집 · 평신도 운동 ▼

## 1. '생활 종교'

평신도는 생활인이다.

평신도는 생활을 창건하고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생활진선에서 분투하는 생활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실생활에서 유리된 모든 것은 평신도에게 공헌할 수 없다.

기독교는 생활의 종교다. 우리는 흔히 '종교생활'이란 말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종교생활'이라면 종교가 생활의 한 부분이요, 그 진부에 간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

오히려 종교생활이라면 실생활과는 다른, 실생활을 초월한 어떤 비현실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생활에서 유리될수록 더 훌륭한 종교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가 '생활종교'라고 할 경우에는 실생활을 떠나서 기독교일 수가 없는 '생활 곧 종교' 종교 곧 생활인 기독교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움과 같다." (마 7:23) 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의 말씀을 '산' 사람을 말함이다. 예수의 말씀 '데로' 살았다는 말과도 다른 것이다. '데로'는 말씀을 일단 추상화,

객체화하고 그것을 표준으로 삼아 자기의 삶을 거기에 맞추려는 노력이어서 하나의 율법행위로 되어 버린다. 그러나 말씀 ‘을’신다는 것은 그 말씀 곧 삶이라는 것으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말씀을 ‘산다’는 것과 동시에 취해지는 행위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했다. 우리가 예수라는 분과 ‘말씀’과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는 없다. 예수라는 삶의 주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말씀’이다. 아니 그 주체 즉 ‘예수’라는 그 분이 그대로 ‘말씀’이다. 그의 종교는 생활하는 종교, 생활종교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삶이 그대로 기독교였기 때문이다. 기독교란 것이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데 그가 그의 삶을 거기에 맞추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활종교다. 그것은 예수의 종교요, 예수를 믿는 종교기 때문이다. 바울의 종교도 생활종교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갈 2:20)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니”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다”(빌 1:21, 롬 14:18)했다. 그의 생활이 곧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를 산 사람이다. 그의 기독교는 그의 생활종교였다.

종교 생활과 종교적이 아닌 생활이 그의 삶에서 서로 딴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활 전부가 그의 종교였던 것이다.

## 2. 창조하는 종교

생활종교는 창조하는 종교다. 왜냐 하면 창조성 없이 생활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 제일 컷 버리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하는 귀절을 발견한다. 사도신경 첫머리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되어 있다.

하느님은 창조주시다. 없는(無) 태서 있게(有)하고 있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하느님이시다(요 10:10 그리고 그 창조된 만유(萬有)를 “심히 좋다!”하셨다(창 1:31). 이 창조주 되시는 하느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다(창 1:26). 이 존재 양식에서 설명하려고 애써 왔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설명보다도 인간의 기능면에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평신도적일 것이다. 즉 우리도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닮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형상’을 이해하자는 것이다. 성경에 “하

느님은 거룩하니 교회도 거룩하다.” “하느님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데 20 : 7, 마 5 : 48) 한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느님이 창조주시라면, 우리도 창조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하느님처럼 ‘절대무(絕對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만들어 내지 못했던 물건을 만들어 내고, 지금까지 조금 밖에 없던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내며 지금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창조적인 인간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세계에서 뿐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악이 선으로 고쳐지고 막혔던 인간 관계가 열려지고 죽음의 전세에 눌렸던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체험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거대한 재창조생활인 것이다. 나무 없는 산과 언덕에 나무를 심는 것도 창조적인 생활이며, 염소며, 토끼를 기르는 것도 그런 것이다. 집을 좀더 쓸모 있게 짓는다든지 번소를 세 방법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것도 창조적인 생활이며,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믿는 의미에서 충분히 생활종교의 행위인 것이다.

### 3. 역사의 종교

하느님은 인간에게 좋은 역사(歷史)를 만드라고 하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 때에 애굽에서 불러 내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그 나라가 하느님의 공의와 공휩을 본받아 하느님의 축복의 나라로 되어서기를 원하셨다. 선지자들을 보내서서 잘못을 견책하기도 하셨고 장차 메시아를 이 나라에 나게 하셔서 천하만국을 구원하시려는 약속도 하셨다. 그 나라가 하느님 앞에 범죄하고 물이키지 않을 때 심판을 내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잡혀가게도 하셨다. 그러나 결코 버리지지는 않으셨다. 구약을 잃어가노라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나라’ 일에 관심이 크시고 좋은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열심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를 옮겨 전사하고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한다. 역사적 종교는 역사를 위한 종교로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이 주신 삼천리 금수강산을 벗기고 한켠고 해서 산과 언덕이 벌거벗고 논과 밭이 모래밭으로 화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 앞에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

리가 부정하고 부패하여 수탈과 뇌물과 불공평과 사기와 억압으로 우리 역사를 더럽힌다면 그것은 하느님을 반역하는 더욱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8·15에 하느님께서서는 이 땅에 모든 대적을 깨끗하게 털어 버리고 본래의 강산 그대로 우리에게 돌려 주셨다. 6·25에 공산당이 침략해 왔을 때, 전세계 자유의 젊은이들을 불러 들여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대적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에게 이 나라를 찾아 주셨다. 그리고 허물어진 테룬 다시 세우는데 만 나라의 도움도 보내 주셨다. 우리가 하느님의 백성이면서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공물을 베풀어 주신 이 나라를 황폐와 불의와 부패로 채우고, 다시 만 나라에 더럽힘을 받게 한다면 더 큰 심판이 내릴까 두려운 것이다. “내 백성을 안위하라” (사 40 : 1) !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까지 괴로움의 극(極)을 헤메는 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모든 불의와 부패를 파헤쳐서 하느님의 의(義)의 태양빛에 소독하는 것도 우리의 할 일이다. 세상일에 무관심하고 혼자서 천당 꿈에 도취하는 생활은 비역사적인 행위며, 자기의 안일을 위하여 악을 보고도 침묵을 일삼는 것도 비역사적이어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산다. 강산이 황폐하고 생각없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푸른 빛을 모조리 활아 버리는 데도 구경만 하고 나무 한구루 심지 않고 말 한 마디 하지도 않는다면 그것도 하느님의 책망에 해당하는 게으른 중의 행위다. 이 나라는 우리의 생활장소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할것 없이 이 나라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의무다. 명신도의 역사 참여가 신앙생활 아닌, 세상 생활의 한 여가(餘技)인 것같이 생각하는 것은 ‘생활종교’인 기독교에서는 도저히 시인될 수 없는 것이다.

#### 4. 성육신의 종교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시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 : 28) 하셨다. 하느님께서 첫 인간에게 한 아름다운 동산을 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창 2 : 15) 하셨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건사해 준다’는 뜻이다. 폭군처럼 맘대로 죽이고 학대하고 하라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께서 좋다”고 하신, 만물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창세기 2장 19절의 광경은 인간과 생물이

얼마나 친근했던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번 즉, 에덴동산을 “다스리너……” 한 말은 ‘밭 간다’는 말이다.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동산을 ‘개발하고 수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이 더 좋은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발달시킬 책임을 갖고 있다는 첫 귀결이라 하겠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본래의 모습인 ‘하느님의 형상’ 대로 간수하고, 자연을 진사하고 개발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동산을 발갈고 지키며, 하느님의 사랑과 공의대로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할 일이었으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모든 일을 위한 생명의 근원인 하느님을 배반하고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하느님으로 치켜 올린 것 때문에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느님 관계가 그 정도(正道)를 상실하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자기 분열을 또한 통일할 수 없어 그 삶의 과정에는 비극이 계속되고 죽음이 그 종말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라기 보다는 인간 실존의 현실을 분석한 ‘말씀’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 안에서 ‘아담’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탐자’와 같이 타락된 인간을 하느님께서 먼저 찾아 다시 돌이키려 하셨다. 구약시대에는 예언자와 제사장, 임금, 지혜의 사람들을 이르켜 그때 그때에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히 1:1-2).

그러나 마감에 하느님께서서는 성자(聖子)를 이 역사 안에 태어나게 하셨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요 1:14) 했으며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이 마리아에게서 아기로 되었다(마 1:20)고 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나 ‘성령’이 ‘아기’가 되었다는 것이나 다 같이 “하느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방향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보통 종교의 방향이란 것은 속에서 해탈(解脫)하여 열반(涅槃)으로 들어간다는가, 인간이 신선이 된다는가, 실생활에서 승화(昇華)하여 신인일여(神人一如)의 신비경에 소요(逍遙)한다는가 하는 것들이다.

인간이 인간됨에서 떠나 인간 아닌, 인간 이상의 신적인 세계에 통하는 것이 종교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향은 그와는 정 반대다. 하느님이 인간이 된다. 하늘에서 땅으로, 하느님의 나라도 ‘하늘’에서 ‘땅’에 임한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가 아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하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이다. 사랑(아카페)은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향한다.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는 방향이 이 성육신 종교의 첫째 교훈이다. 다음으로는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인 것이 육체화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진리’와 ‘길’이 ‘몸’이 됐다.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 말을 청산유수같이 잘 한다고 소문이 났다. 그러나 그 ‘말’이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육신의 종교인 것이다. ‘말’이 ‘몸’이 된다. 그 ‘말’을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게 된다.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역사 안에서 사실화하는 때에만 성육신적인 종교 신자로서 떳떳한 것이다. 그런 신자가 역사 안에서 꿈틀거릴 때 역사도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 5. 화해의 종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는 ‘화해’를 위한 일을 하셨다. 인간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자기 그림자를 신화하며 멸망으로 미끄러져 가는 이 역사의 현실에서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를 이루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교만하여 담을 쌓고 지내는 이 현실에서 인간과 인간이 화해해야 할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몸’(말씀 그것인 죄 없는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쳤다. 그것이 십자가로 표징되었다. 십자가의 위에서 아래로 세로 그 선은 하느님과 인간이 화해하여 통하게 된 것을 상징한다. 또 하나 가로 그 선은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여 서로 통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 하느님과 인간(하늘과 땅), 인간과 인간이 가로 세로 교차된 그 교차점에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못박았다. 속죄 사랑으로 하느님께 바친 제물, 속죄 사랑으로 인간에게 바친 봉사— 이 무한대의 사랑 안에서 하늘과 땅은 서로 만났다.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음이라”(고후 5:18-19)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느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들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느니라… (엡 2:11-16) 이 두 성경 구절은 하느님이 인간과 화목하시고 인간이 인간과(이방인과 유대인 즉 전 인류) 화목함을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종교는 ‘화해’ 또는 ‘화목’의 종교다. 그리스도가 ‘화해’를 위하여 그 ‘몸’을 제물로 바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를 따르려는 신

자가 서로 담을 쌓고 서로 저주하고 불신자를 이방인시하여 교제를 꺼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후 15:18)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후 5:19)고 똑똑히 일러 주고 있는데, 즉 화목하게 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엄숙한 직책인데, 우리가 이것을 파괴하면서 잘난 체할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화평의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마 5:9)인 것이다. 한국교회의 평신도는 이 점에서 확신을 갖고 교회 일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평화운동에 정진해야 할 것이다.

## 6. 봉사의 종교

예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본래의 인간다운 인간, 즉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으로 물이키려고 오셨다. 그것을 위한 그의 생활규범은 섬기는 일이었다. 상대방을 섬김으로써 자신의 생활내용을 떳떳하게 하고 피차의 인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역사 안에서의 그의 ‘인간상’(人間像)은 ‘고난 받는 중’(사 42:1-4, 53:1-9)이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복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막 10:45)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막 10:43)고 하셨다. 이 봉사의 길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므로 예수께서는 마간 만찬 때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사면서 이 교훈을 되풀이하셨던 것이다(눅 22:24-27; 요 13:4-9, 13-15). 예수께서는 모든 인간을 섬기셨으나 특히 병자, 가난한자, 죄인, 창기, 세리 등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 천대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의 ‘의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그들을 천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겸잡다는 바리새인들보다 인간다운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죄인이며 타락자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그런 자들임을 알고 마음에 겸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 조문을 저켰노라고 하느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했다. ‘섬김’을 생활규범으로 삼으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스스로 교만하여 왕자연(王者然)하는 인간들을 높이 평가할 까닭이 없는 것이었다. 지금의 기독교도 봉사의 종교임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죽기까지 봉사했다. 그런데 우리는 거리에서 인사를 받고 연회에서 상좌를 원하고 모임에서 ‘감

두'를 탐내고 세상에서 영광을 즐기려는 방향으로 달려 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겠는가? 초대교회는 충실하게 봉사와 수난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은 다음부터는 교직자가 귀족의 대접을 받고 교회가 국가 권력의 중요한 구조에 들어 있었으므로 자연히 '종'의 모습에서 '상전'의 위세에로 옮겨진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단연 그리스도 자신의 봉사하는 종교에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눌린 자, 가난한 자, 고민하는 영혼, 억울한 피해자, 그리고 병자, 소외자로 흉탄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들의 목자로 그리스도처럼,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섬기는 나날을 보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가장 확률있는 진도요, 거짓 없는 기독교며 진실한 신자로서의 증거일 것이다. 그리스도 증언은 이 길을 정로(正路)로 삼아야 한다. 빌립보 2장 5-8절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친다.

## 7. 교회와 세상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탄생했다(사 1-2장). 교회 역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몸의 체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했다(엡 1:22, 23, 롬 12:5). 역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역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이시면서 인간을 찾아 오셔서, 인간에게 봉사하시고 그 인간을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몸으로 속죄 제물삼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코오스'를 다시 계속하라는 것이다. '영광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서 신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역사 안에서는 오직 '수난의 종' 그리스도를 따를 뿐이다(빌 2:5-8 골 1:24). 이제 그리스도와 세상과 교회의 순서를 검토해 보면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요 3:16). 여기 나타난 순서는 하느님이 '세상'(인류 사회 전체)을 사랑해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 결과로 '믿는 사람'(교회)이 생겨났다.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해당하는 바탕을 가진 생명을 산다는 것이다(cf 요 17:3). 그러면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세상-교회'의 순서다. 그러나 교회가 로마제국의 국교로 되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충분한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순서는 ‘그리스도—교회—세상’의 차례로 되었다. 그리스도는 만사에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입한다는 것이다. 그레고리 황제 때 같은 경우에는 군왕과 황제도 교회의 최고 성직자인 교황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세상 국가가 점점 강해지고 국가주의가 맹장하면서 교회는 이에 눌려 오히려 세상에 손을 댄 것보다도 교회 안에 농성하여 자기 옹호를 피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순서는 ‘그리스도—교회—천당’의 차례로 되고 세상에 대한 진실한 참여 의식과 책임감은 교회에서 탈락되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런 단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겪고, 하느님 없는 현대문명이 몰락의 고민에 몸부림치는 진후 세계에서는 교회가 다시 이 새상이란 ‘탕자’를 찾기 시작했다. 하느님의 사랑은 오히려 집에 있는 맏아들보다도 집 떠난 ‘탕자’에게로 쏠린다. 우리 안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도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모습이다(눅 15: 11—32, 3—7). 그래서 세계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본래의 순서로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세상—교회’—‘그리스도—교회—세상’의 순서를 반복하는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교회안에 우리를 불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 온갖 선한 봉사를 하게 하신다. 여기서 ‘봉사’란 것은 종래의 전도사업도 포함한 의미에서나— 신자는 교회를 봉사한다. 그러나 그 종극의 목표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봉사하는데 있다. 물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 내어 교회에 들어와 연합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에 보내어(요 17: 18)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의 지체로 세상에 나가는 때, 지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몸 가는 곳에 지체가 가는 것처럼 교회는 그와 함께 간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한다. 지체없는 몸이 존재할 수 없고 몸없는 지체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 ‘시체’의 일부로 되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회와 교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섬기는 길을 우리도 따른다는 ‘생활’에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섬기며 죽기까지 부장하는 생애(빌 2: 8), 그 뒤에 오는 하느님의 갚아주심, “이러므로 하느님이 그를 저극히 높혀……” 한 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천당’의 지복(至福)상태다.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세상에서의 충실한 봉사생활이다. 그 생활이 끝나면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우리의 종막을 고하는 것이 신앙의 순결일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뿐이다.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함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3) 했다. 우리는 그의 신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믿을 뿐이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있어 그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하실 것을 기도 중에 약속하신 것이었다(요 17:24).

## 8. 봉사의 윤리

① 우리는 각각 자기 처소에서 봉사할 것을 생각해 내야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가르치셨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네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다(눅 10:25-37). 우리는 우리의 처소에서 얼마든지 선한 사마리아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② 우리가 당장 실현할 수 없는 큰 봉사의 꿈을 꿀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꿈이 크다는 의미에서 목전에 봉착한 작은 봉사를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이 맡겨진다(마 25:21, 23).

③ 누구를 도울 때 따지고 캐고 한 다음에 도울 것이면 돕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우선 무조건 치료에 착수할 의무가 있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④ 자기가 무슨 선행을 했다고 그것이 알려지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한 때에도 그것을 받드시 알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은 비성서적이다(마 6:1-4).

⑤ 선한 일을 ‘시작’할 때부터 너무 ‘효과’를 노리지는 말아야 한다. 가능한 최선의 효과를 거두야 할 것은 사실이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의 행위 자체가 그 목적이며 그 결과인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아무 일이나 방편이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전도(傳道)의 방편일 수도 없다.

⑥ 그러나 유효하게 봉사하기 위하여는 많은 연구와 경험이 서로 교환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게 배우며 진실하게 의견을 나눠야 한다.

⑦ 우리의 봉사는 개인으로도 할 수 있는 데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지만, 집단적으로 봉사하는 데도 진심으로 협력해야 하며, 목적만 좋은 것이면 누가 하는 일이란 간에 가능한 최선의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국제기구인 경우에는 우리는 정성껏 협동해야 할 것이다.

## 9. 끝 마감을 위한 말

기독교는 생활종교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강건하고 확장하여 삶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그 방향이다. 역사에서 신비에로 도피하거나 현실에서 관념으로 승화(昇華)하거나 세속에서 교회에로 농성하는 소극 후퇴의 방향은 삼가야 한다.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적극적이다. 죄에는 의로, 미움을 사랑으로, 죽음을 부활로, 분열을 통일로, 무상(無常)을 영생으로 이기고 이겨 건설하는 종교다. 동양에서 처럼 고식적(姑息的)으로 미봉하는 현세 윤리에 머물거나 유(有)에서 무(無), 생(生)에서 죽음으로 체념하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역사 안에서 '사건'을 만들어 내고, 일상 시민생활에서 '까집'의 화재로 반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종교다. 그러기에 '생활종교'요, '물질종교'(William Temple)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각 개인의 혼에 이루어지고(갈 4:19) 우리의 그리스도 증언이 사랑과 봉사로 우리 역사 안에 구체화하여 우리 역사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면, 기독교 무용론이 어디서 나오며 교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는가? 성경에는 여러 갈래의 지류(支流)가 있어 서로 다소 방향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말한 것은 성경의 중심을 이룬 생명의 주류에 속하는 것임을 확언해 둔다. 백 오십만 평신도의 분투를 빈다.

## I. WCC 암스텔담 대회

## 이전의 평신도 운동

## 평신도 운동의 발자취

엄밀한 입장에서 평신도 운동을 살펴보면 구약시대에서부터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모세 이후 유대교는 제사종교가 되어 법칙과 의식만을 존중함으로써 평신도들의 활동을 제약하게 되었다.

이렇게 됨에 따라 종교는 부패하고 힘을 잃어 무기력하게 되고 말았다.

한 예를 들면 제사장 엘리 가정의 부패상이다. 이에 따른 반응으로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평신도들을 대변하여 부패를 지적하고 정의를 확립하여 종교의 생명과 사명을 찾았다. 이렇게 해서 예언자 종교가 확립되었는데 이와 같이 생명있는 종교가 된 것은 현대용어로 표현하면 평신도 운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평신도들로서 자발적인 운동을 하여 생명있는 종교로 회복하고 사회 정의를 세우며 민족 운동을 하였다. 한 예를 들면 선지자 나단은 목숨을 내대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왕의 불륜을 지적하고 충고를 하였던 것이다.

그후 다시 레위인, 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등이 교권을 남용하고 교직 중심의 종교를 형성하여 권위와 위신과 허세에 치중하였으므로 다시 종교는 쓸데 없는 것으로 전락해 버렸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고 이 교권주의자들을 향하여 걸으라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으로는 썩어서 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회칠한 무덤이라



박 광 재

<전 NCC 평신도국 간사>

고 반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시고 민중 속에 파고 들어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을 해방시켰다.

이것이 다름 아닌 평신도 운동의 정신이며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후에 Roman Catholicism이 기독교를 변질시키는 파오에 떨어지게 됨에 따라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생긴 것이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다. 이 초대 교회는 교권이냐 교리냐 의식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선교와 친교와 봉사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종교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다시 찾게 되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후 2,3백년이 흐르는 어간에 교회는 교권과 교리에 치중하여 분열의 역사만을 보여 준 뿐만 아니라 교직중심의 종교로 떨어져 가는 경향이 되었다. 이렇게 됨에 따라 급변하는 정황 속에서 교회는 사명을 다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뜻있는 크리스천들은 세상 안에 있는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겠다는 자각을 가지고 교회의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운동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19세기에 일어난 자발적 평신도의 운동체로서 YMCA, YWCA, W S C F 등이 있다. 나는 이 운동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자 한다.

(1) 19세기 후반기에 영국은 자본가의 착취와 사회악의 맹창과 윤리적 타락으로 모든 사회가 어지러워졌으므로 뜻있는 청년들은 자성을 하였던 것이다.

그 중에도 1844년 런던에서 Gouge Williams씨의 주동으로 12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와 성경 연구회를 가지며 청년의 나아갈 길을 찾았다. 이것이 YMCA 운동의 초석이 된 것이다. 1855년 파리에서 YMCA(Y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세계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 참가한 회원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 대표 99명이었다. 참석한 대표자들의 연령은 17세에서 30세까지의 청년들이었다.

YMCA의 이념을 말하면 처음엔 청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데 있었으나 중도에는 청년들의 정신적이며, 지적인 면을 강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청년들의 육체적 건강 문제를 중요시하여 체육면에 치중하게 되었다.

다시말하면 YMCA는 청년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이 세 가지 면을 다 강조하여 완전한 인간형성을 하므로 기독교적 사회를 건설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는 말

이다.

이러한 운동이 우리 나라에도 1903년에 평신도 운동의 한 형태로서 발족하여 민족 투쟁 운동과 민족문화 건설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복음 전파 운동에 큰 뒷받침을 하였으며 지금도 하고 있다.

### (2) 평신도 운동의 한 형태로서 YMCA 운동이 있다.

이 운동은 1855년 영국에서 두 가지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얼마 후에 YMCA로 되었는데 그 하나는 크림미아 전쟁에서 돌아온 간호원들을 위하여 기숙사 설비를 해 주고 직업교육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들 상호간의 도움을 증진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단이 모이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이 전 세계에 번져서 마침내 1894년에는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미국 등 여러 나라 YMCA가 한 자리에 모여 세계 YWCA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에는 1922년에 뜻있는 젊은 기독교 여성들이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 YMCA 운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평신도로서 이 운동을 시작하여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과 낡은 습관과 미신타파에 힘을 썼으며, 기독교 복음전파에 측면적 공헌을 많이 하였다.

이들이 하는 Program은 일정한 것이 아니지만 그 중심 목적은 자, 덕, 체로써 사람들이 원만히 장성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며 온 세계 여성의 기독교적 친선을 통하여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 (3)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운동은 SCM 운동이다.

이 운동은 1866년 Mount Hermon, Massachusetts에서 모였던 Inter Collegian Summer Conference에서 시작되었다. 이 모임이 진행되는 도중에 100여명이 넘는 기독교학생들이 기독교 복음전파를 위하여 외지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이 서약을 통하여 이들은 완전히 하나로 뭉쳐졌으며 하나의 동지로 결속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 운동은 회원들의 힘있는 친교를 통하여 회원들을 한데 얽히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 친교는 크리스천 Unity라는 큰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이 운동은 SVM(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형태로서 급진적으로 북미, 영국, 구라과 전체의 대학에 퍼져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나아가서 이 운동은 세계적인 운동으로 번져서 1895년에는 Sweden에서 WSCF

(World Student Christian Federation)을 창립하였다. 이 운동의 지도자로서는 John R. Matt 목사로서 이 SVM 영향으로 IMC(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의 기초가 되는 세계 선교사대회(World Missionary Conference)가 1910년 스코트랜드 에딘버러에서 개최되었다.

이와 같이 평신도 운동의 한 형태로서 SVM 이 시작되어 에큐메니칼 운동에 박차를 가하여 큰 영향을 끼친 것을 우리는 보며 기쁘게 생각한다.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1948년에 들어와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공헌을 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세 평신도 단체의 운동은 세계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에큐메니칼 운동을 자극하였으며 전통에 젖어 있는 교회를 각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번천하는 사회 속에 있는 교회의 생명과 사명을 다시 찾도록 하는 교회의 자각을 불러 일으켰던 것이다. 이와 같은 교회의 자각 현상이 1948년에 역사적인 WCC 암스텔담 대회에서 구체적으로 형성하게 된 것이다.

## II. 암스텔담 대회 이후 평신도 운동

암스텔담 대회 이전까지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YMCA, YWCA, WSCF 운동 등을 하여 교회와 사회에 저대한 공헌을 하였지만 「평신도」란 용어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질 않았다.

그러나 「평신도」라는 용어가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 것은 1948년 WCC 암스텔담 대회 도중인 것이다. 이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한 분과위원회에서 「평신도」문제를 주제로 진지하게 토의하고 이 토의 내용을 본 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또 WCC 후원으로 세계 각 나라에 평신도 문제에 관한 기관이 조직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WCC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회의 보고와 제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대회의 이와 같은 관심있는 결의와 영향으로서 여기 저기에는 평신도 운동 기관이 다음과 같이 많이 창설되어 평신도 운동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제2차 대전에 패전한 독일 교회는 나라를 재건할 것을 모색한 나머지 1945년 4월에 물러 박사의 주선으로 「에반제리칼 아카데미」를 세웠다.

그리고 이 운동은 1948년 WCC 암스텔담 대회 이후 더 활발하여 졌다고 본다. 에반젤리칼 아카데미의 목적은 토의와 근본적인 반성과 연구의 장소이다. 이것은 평일의 생활선상에서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서 만나 그들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 그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의 자유 안에 있는 생활의 통일을 얻는데 봉사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에반젤리칼 아카데미는 동·서양에 20여개나 창설되어 활발하게 교회와 사회를 봉사하고 있다.

1949년에는 하노버에서 키르헨타그(Kirchentag)대회가 트리그라프(R. Von Thadden-Trieglaff) 박사의 주선으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대규모의 모임으로서 약 10만을 헤아리는 독일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7,8일간의 훈련과 교육을 받는다.

「이케르헨다크」운동은 한 에큐메니칼한 전망에서 운영하여 가고 있으며 일면 크리스천들이 이 세계와 문제 속에 직접 파고 들어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의 장소를 찾는 것이 운동의 목적이라 볼 수 있다.

도한 이들이 바라는 것은 급격하게 변천하는 사회 속에 있는 교회가 그 제도와 전통과 경험의 향수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선교 방법과 봉사의 형태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주길 바라고 있다.

1951년에는 뱃볼에서 구라카 평신도 대회가 열렸으며 1952년에는 버팔로우에서 미국과 캐나다의 평신도 연합대회가 개최되었다.

스위스 보세이(Bozsey)에 있는 에큐메니칼 학원도 평신도 운동의 깊은 기초와 넓은 기반을 주기 위하여 창설되었다. 얼마 후에 에큐메니칼 운동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지금도 평신도 문제는 보세이 학원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남아 있다.

이 외에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약 130개의 평신도 운동 센터를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허락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다만 아래 몇개의 중요한 평신도 센터의 이름만을 제시한다면 스위스의 매네르돌프(Mannerdorf), 화란의 세상에 있는 교회(Kerk en Wereld), 스웨덴의 시그투나(Sigtuna), 스코트란드의 아이오나 커뮤니티 Iona Community) 등등이다. 물론 각국에 있는 평신도 운동 센터는 그 나라의 특유한 환경과 지도자들의 개성에 따라 각각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방법이나 강조점이 각각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또 달라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다 함께

일치되고 있는 점은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고 봉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사는 직장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르게 살도록 하느냐 하는 작성을 불러 일으키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평신도 문제는 세계 교회의 큰 관심사가 되고 평신도 운동은 점점 부르익어 가기 시작하면서 WCC 제2차 대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평신도 운동에 관한 세계교회협의회(세계)의 가장 힘찬 움직임은 1954년에 반스톤에서 열린 제2차 WCC 대회이다.

이 대회의 제6 분과위원회에서 「평신도 곧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토의를 하였다.

이 분과위원회의 보고에 의하면 다음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열을 떠어 토의를 하였다.

그 하나는 평신도 사도직(Lay Apostolate)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952년 독일 빌링겐 대회에서도 직업적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자도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강조했다. 즉 평신도의 선교적 사명은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론 세상에 전하는 일에 총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 WCC에반스톤 대회의 제6 분과 위원회에서도 평신도 사도직, 곧 하나 하나의 그리스도인은 그가 곧 증인이요 선교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외침은 평신도 신학의 참된 골자요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신약성경(요 2:39-51)을 보면 예수님의 부름받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 선교한 일과 한 가지로 부름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선교한 일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평신도 사도직을 실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중요하게 논의된 것은 WCC 기구안에 평신도국을 설치하는 일인데 이 명칭을 Department on Laity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Department of Laity로 하느냐는 논쟁이었다. 여기에는 of 와 on이라는 말의 해석이 문제이다. of의 경우는 평신도들이 모여서 평신도의 문제만을 취급하며 해결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WCC 는 on Laity로 결정을 함으로써 평신도의 근거는 평신도들만이 모였거나 평신도에 의해서 무슨 일이 추진된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들이 교회의 생명과 사명에 있어서 차지해야 할 위치를 강조하는 일과 이 사실에 대하여 교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밝히었다. 그래서 결국 1954년 제2차 WCC 에반스톤 대회시에 WCC 안에 정식 기구로서 평신도국(Department on Laity)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이야말로 놀랄만한 일이며 현대 교회사에 있어서의 괄목할만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WCC안에 평신도국이 설치된 후 평신도 운동은 더욱 활발하게 조직적으로 전개되어 세계 여러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EAC C에도 평신도국이 설치되고 세계 각국의 NCC 안에도 평신도국이 정식 기구로서 설치되었다. 뒤늦은 감이 있었으나 필연적인 여건으로 1962년 2월 NCC 제15회 정기총회 때에 한국기독교연합회 안에도 평신도국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실은 한국 교회의 사명완수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참으로 다행한 일이며 또 놀라운 사실이다. NCC 안에 평신도국이 설치된 후 다섯 차례에 걸친 평신도 운동 연구회를 개최하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런 연구회를 통하여 평신도 운동에 대한 제동을 하였으며 한국 교회의 평신도 운동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지금 한국에는 10여개의 평신도 운동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은 한국 교회의 혁신과 교회의 새로운 선교 자세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력을 쏟고 있다. 길 잃은 나그네가 방향을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자식을 가지고 방향을 찾아 목적지를 향해 희망과 즐거움의 발길을 옮기는 것처럼 오늘의 평신도 운동은 한국 교회의 자석이 되어 앞으로 민족의 희망과 즐거움이 될 것을 바라며 굳게 믿는 바이다.

### 철의 장막 안에서 새어나온 이야기

소련의 지도자들은 소련을 노동자의 낙원이라고 크게 선전한다.

한번은 외국으로부터 온 여행객이 소련 노동자에게, 요새 세월이 어떠냐고

물었다. “매단히 낫습니다. 물론 어제 보다는 못합니다 만은, 내일 보다는 매단

히 낫습니다” 이것이 그 노동자의 대답이었다.

# 평신도의 위치와 사명



이 상 철

<한국기독교 장로회 목사>

## I. 평신도의 위치

여기에서 밝혀 보려는 평신도의 위치란 것은 제도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가지는 평신도의 법적인 위치를 뜻 함은 아니다. 오히려 조직된 교회 속에서 교회법에 의하여 주어졌던 평신도의 위치가 상실하고 있는 더 근본적인 의미—— 이것을 성서적 혹은 신학적인 의미라고 할 수도 있겠다——를 도로 찾아 보자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관한 이해를 보다 깊이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교회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하기에는 우리는 다행한 시대에 태어난 셈이다. 그것은 이 세기는 바야흐로 교회 혁신운동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재검토하려는 평신도의 위치는 이 교회 혁신운동을 통해 나타나는 교회의 자자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교회의 혁신운동이 평신도의 위치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평신도 운동이라는 연쇄반응적인 운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세계 가는 곳마다에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혁신운동은 어떤 방향을 보이고 있는 것인가 함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혁신운동의 기본자세

를 표시하는 슬로건이 몹시 근본적이고 철저한 것이라는 것을 엿보게 된다. 즉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자.”라는 슬로건이 바로 그것이다.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지양하고 무엇을 강조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교회 혁신운동의 내용을 제시 하여 주는 것이다.

첫째로 교회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며 또 교회당이라는 건물 속에 갇혀 있는 조직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분 안에서 한 지체 혹은 형제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모였을 때는 “모여 있는 교회”(에크레시아)로 나타나고 각각 자기 처소나 직장에 흩어지면 “흩어져 있는 교회”(디아스포라)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흩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체들 속에서 발견되는 교회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교회는 각각 다른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함께 모여서 그들의 받은 은사를 서로 나누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유기체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은사를 서로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단은 계층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피차가 연속되어 한 몸을 세우는 생명적인 조직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교회의 이해는 각자가 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로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고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교회의 혁신운동의 방향은 성서적인 진리를 토대로 전체 교회가 바른 자세를 가져 보자는데 있고 평신도들은 이 교회의 새로운 자세운동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현실 속에서 그들의 중요한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자세를 모색하는 교회의 생활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고 그 두 가지 형태 속에서 평신도가 가지는 위치가 어떠한 것인가함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모여 있는 교회”(에크레시아)에서의 평신도의 위치이다. 이 모여 있는 교회를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혹은 형제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조직된 교회는 그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조직이란 형태를 전적으로 배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는 바와 같이 직업적인, 전문적인 교역자와 평신도들이 교단의 법적인 제도에 의거하여 함께 교회에 속하여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직 속에서 하나의 문제로 제

기되는 것은 전문적인 교역자와 평신도와의 각각 다른 위치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성서는 이들 교역자와, 평신도를 구별함이 없이 “하느님의 백성” 혹은 “신도”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신도가 곧 교회라고 한다. 역사 안에 있는 교회들은 종종 평신도들을 교회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존재로 생각하려 했다. 이와 같은 생각 속에서 은연중 교회는 어떤 특수층의 특수한 직능으로 조직되어 있고 거기 모여오는 신도들이 특수층들의 활동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잘못된 생각이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그가 교직자이건 평신도이건 구별할 것 없이 다 하느님의 신도이며 그들은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 것이다.

그러나 교역자와 평신도 사이의 다른 점은 그들이 각각 다른 직능을 가진다는 점이다. 즉 그들의 차이는 직능적인 차이이지 계층적인 차이나 은사에 있어서의 차이가 아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교직자와 평신도가 각각 맡은 다른 직능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자. 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의 직무(Ministry)를 계승하는 것은 목사나 전문적인 교역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이다. 그리스도의 직무를 계승한 것은 교역자가 아니라 “교회”이다. 즉 그리스도의 직무는 전체 교회에 위촉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직(祭司職)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의미가 깊은 것이다. 목사나 전문적인 교역자는 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신도들을 돕기 위하여 있는 것이고 실지로 주동적인 그리스도의 직무 수행자는 신도들이다.

이와 같은 교역자와 평신도의 관계를 한스 웨버는 평신도는 전투하는 병정과 같고 교역자는 그 병정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또 그들의 시중을 드는 식사당번과 같다고 했다. 물론 교역자는 종종 참모직을 겸하는 수는 있다고도 했다. 이렇게 보면 모여 있는 교회에서의 평신도의 위치가 얼마나 주동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신도의 중요한 위치는 그것이 권리를 중심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책임을 중심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모여 있는 교회의 주동적인 요소인 평신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은사를 경험하고 또 나누는 사람들이다. 이 은사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교회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부름을 받고 또 그의 직무를 위촉을 받았으며, 동시에 여러 가지로 형편이 다른 사람들이 다 한 하느님 안에 있으면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산 증거를 이 다양성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흠어져 있는 교회에서의 평신도들의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평신도의 위치는 모여 있는 교회에서 보다는 흠어져 있는 교회에서 더욱 뚜렷하며 중요하다. 흠어져 있는 교회에서의 평신도들은 그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장소에서 그리스도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성직자들이다. 또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처한 세계를 위해 전파하도록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가 손수 보여주신 이웃을 위한 종의 직책을 기쁨으로 자진하여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흠어져 있는 교회에서의 평신도들의 직책의 확립과 수행에 있어서 비로소 모여 있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뚜렷해 지는 것이다. 즉 흠어져 있는 교회의 산 활동을 가지지 못하면 모여 있는 교회는 마치 전선 없는 군대와 같아서 그것은 마치 갇혀 있는 용사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관면에서도 흠어져 있는 교회를 이룩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위치는 교회의 생명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평신도들은 모여 있는 교회와 흠어져 있는 교회 사이를 연결시켜서 양쪽이 다 약동하는 생명체로 존속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즉 이들은 복음과 세상과를 만나게 하여 또 그와 같은 만남에 자신들을 개입시킴으로써 복음의 진가와 세상의 요청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다.

끝으로 현대 교회는 그 자체의 혁신과정에서 위에서 말한 비와 같은 평신도의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건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이 평신도의 중요한 위치를 바르게 평가하고 또 인정하지 못하면 현대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평신도의 재발견 없이는 교회의 혁신은 무의미하고 교회의 혁신 없이는 현대 교회는 이 시대를 위한 사명을 다할 길이 없음을 생각할 때 평신도의 위치의 중요성은 실로 저대한 것이라고 하겠다.

## I. 평신도의 사명

첫째로 이 세기의 평신도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사명은 교회로 교회되게 만드는 당사가 되는 것이다. 오랫동안 교회는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교역자들에게만 맡겨져 있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신학이라는 특수한 학문을 전공하고 예배당이라는 한정된 사회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그 성격 형성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코 폐단이고 또 이와 같은 교회는

흔히 세상과는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 교회가 되었다. 그리하여 독선과 이상주의적인 것과 비현실적인 생리를 질게 지니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교역자에게보다는 평신도들에게 더 많은지도 모른다. 그 까닭은 그들이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를 고수하지 않고 직무 유기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주체성을 도로 찾고 책임 있는 봉사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서는 때 비로소 교회가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교회는 비로소 참 교회가 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 교회협의회 총무 비서르 후트는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라는 말은 교회로 하여금 하느님의 나라를 향해가는 하느님의 백성들의 집단이 되게 하며 이들을 통해서 주의 날에 나타날 하느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람들에게 파시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 일이 있다. 그리고 그는 에반스톤에서 보였던 세계교회협의회 대회의 보고서의 한 귀절을 인용하여 그의 말을 부연하였다. 즉 “하느님은 순간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고 우리를 가운데서 역사하신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의 교회를 영원히 새롭게 계속해서 재창조 하시며 특히 그 믿음과 순결과 자기 희생과 용기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진실되게 믿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로 교회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 믿음은 날마다 인간들의 생활 전선에서 시달리는 평신도들에 의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형성되며 이런 신앙의 체험을 가진 이들이 주동적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는 때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다.

물체로 평신도들은 자신들을 분산된 교회의 분신으로 자각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교회의 분신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평신도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기타 생활의 장소에서 교회의 분신으로써 산다는 말은 단순히 크리스천의 미덕을 보여 준다든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산다든지 하는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적극적으로 제사직이나 선교사의 자각을 가지고 자기가 처해 있는 직역(職域)을 자기의 교구로 선정하고 그리스도가 남긴 직무를 감당해 가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와 같은 일상 생활의 장소를 하나의 교구로 삼는 일은 현대 사회가 기능적인 사회로 변해 가는 현상을 고려할 때 그 의의가 큰 것이다. 즉 현대인은 어떤 지리적인 지역을 중심한 이웃관계를 가지고 살기 보다는 그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이웃 관계에 중점을 두고 살고 있다. 그러기에 교회는 과거와 같이 지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인구의 집결이나 밀도를 살펴서 설치되어

가지고는 그 사명을 다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현대인의 이웃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직역을 고려하여 교구 활동의 계획이 수립되어야 효과를 거두는 수가 많다.

세계로 평신도가 분산되어 있는 교회의 문신이라고 할 때 그들의 구체적인 인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임무의 하나로 평신도는 부르심을 받고 파송된 선교사라는 것이다. 흔히 선교사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전문적인 교역자들이고 평신도는 그런 의미의 소명은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자들 전체에게 선교사의 직책을 주신 것이다. 믿음에 들어오는 것을 명백히 하는 교회의 예식은 세례식이다. 신자들은 이 예식이 자기들을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성별하여 주는 예식이라는 의미에 항상 간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예식은 그들을 성별할 뿐 아니라 성별하여 파송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세례식은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하여 성별하는 예식이다. 그러기에 모든 평신도들은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선교사의 임무를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평신도들의 선교사로서의 자각은 현대 교회에 있어서 꼭 중요한 것이다.

현대 교회는 “교회는 곧 선교이다”라는 말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표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자기 표현은 주님께서 일찌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 19—20)하신 말씀이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 18)고하신 말씀 등의 참뜻을 재확인 하는 것이다. 즉 선교하는 일을 교회의 여타가치 사명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던 것을 지금은 선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을 “평신도들이 곧 교회이다”라는 말과 관련시켜 생각하면 “평신도들은 곧 선교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선교사이다”라는 자각은 또 다른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인간생활의 모든 경우와 장소가 다 선교의 기회가 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일상생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된다. 즉 인간의 일상생활에 관여하는 것이 곧 선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전세계적으로 크리스천은 이미 소수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각이다. 즉 믿는 자가 총동원되어도 우리의 선교지대는 너무도 광대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3퍼센트를 넘지 못하며, 한국의 경우도 7퍼센트를 넘지 못하는 크리스천 인구

할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평신도 진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당연하고 절박한 문제이다.

네째로 교회의 분신으로 분산되어 있는 평신도의 또 하나의 임무는 섬기는 자라온 것이다. 이 섬기는 자라는 말은 신약성경의 집사(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다. 이 말의 원뜻은 식탁에서 봉사하는 사람(웨이터) 혹은 종이나, 봉사자들을 가리킨다. 이런 이원적인 관련에서 보면 섬기는 자가 된다는 말은 곧 종으로 자처한다는 뜻이다. 종은 인간 생활의 가장 구질구질하고 천한 부분의 일들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그리고 종의 직책은 인간 생활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봉사는 인간 생활의 여러 분야에 관계된다. 즉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을 돌보는 직책이다. 최근 교회는 종종 “교회는 곧 봉사이다(디아코니아)”라고 주장하는 말을 듣는다. 이 말도 “교회는 곧 선교이다.”라는 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책의 한 가지를 나타낸 말로 보다는 교회의 본질을 표명한 말로 들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종」이라고 선포 하였고 “은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고 왔다”고 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회는 곧 봉사이다” 하는 말은 깊은 성서적 근거 혹은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이 「봉사」라는 말이 인간의 일상생활 혹은 흔히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세속적인 생활에 더 많이 관계된 말이라는 점을 주목해야겠다. 즉 봉사자 혹은 종으로서의 평신도들은 기꺼이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고 그것들의 향상을 위해 봉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교회는 종종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엄격히 구별하려고 하고 그 거룩한 일의 종류는 교회당 안에서 찾고 속된 일의 종류는 교회당 밖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고 믿는 자는 거룩한 일에 관여하되 속된 일은 멀리해야 된다고 믿으려 한다. 이리하여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도피하여 예배당 안으로 후퇴하려는 유혹에 사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시요, 그의 사랑은 전체 피조물 위에 부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주권은 문화, 경제, 정치, 예술, 과학 등 온갖 인간 생활 분야에서 엄연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그러기에 평신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 이런 모든 인간의 일상생활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곧 하느님의 통치에 가담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근대화를 모색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크리스천들의 생활 태도는 이 국가의 미래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그것은 이 크리스천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통하여 이 민족의 온갖 생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새겨져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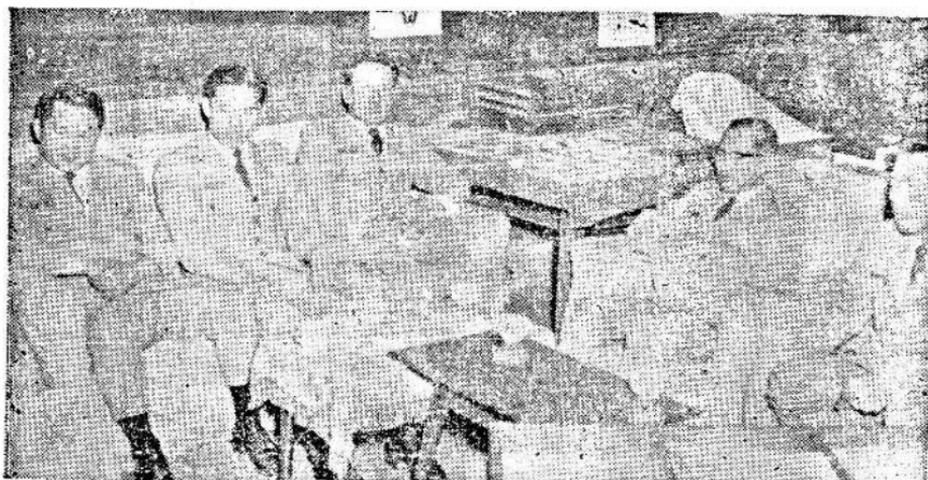
◀좌담회▶

때 : 1969. 5. 19.

곳 : 공군본부 군종감실

사회 : 이영렬 군목

# 『기독교교회활동』



참 석 자;

김	원	용	소	령
이	용	봉	소	령
김	두	식	군	목
전	경	은	대	위
장	덕	수	대	위
이	형	국	중	위
조	순	자	문	관

기록 : 최 원 진 군목

— 기독교교회 활동에 관한 좌담회  
를 5월 19일 개최한바 있는대 본  
지에서는 대화형식의 기술을 피하  
고 서술식으로 내용을 간추려 적었  
다. 그리고 서부에는 독자들의 이  
해를 위해 기독교회의 소개도 간  
단히 곁들여 보았다. —

기독교장교회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이 「사도신경」을 신앙신조로 받아들인 초교파적 모임을 말하며 통칭 OCU(Officer's Christian Union)라 일컫는다.

이 OCU의 조직은 국제적인 것이며 1959년 미국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1961년에는 독일에서 제 2회 총회를, 1964년에는 화란에서 제 3회 총회를, 1967년에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제 4회 총회를 가진 바 있으며 1968년에는 제 5회 총회를 영국에서 개최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OCU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받아 회원간의 기독교적 친목을 증진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와 전도활동을 하며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참고삼아 한국기독교장교회 회칙중 제 1장 총칙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제 1조; 이 모임은 한국기독교장교회라 칭한다.

제 2조; 기독교장교회는 대한민국 국군 장교 및 이에 준하는 기독교신자로서 구성하며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조직한다.

제 3조; 기독교장교회는 회원의 기독교적 친목을 증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와 활동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회원은 항상 경건한 기도생활과 규칙적인 성경연구를 함으로써 깊은 신앙을 견지하며 힘써 복음을 전도하고 군목사업을 지원하며 필요하면 민간교회를 원조한다.」

이와 같은 취지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기독교장교회는 1956년 12월 8일에 준비위원회를 발기하여 1958년 6월 1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바 현재에는 약 3천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공군은 약 500명). OCU는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적인 것이며 우리 한국에서만도 10년을 넘는 전통을 갖고 있는 이상 이미 그 기반이 잡혀 있고 목표가 뚜렷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회원들 각자의 목적의식이 흐린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기적 모임으로 그친 것 같으며 팔목할만한 활동들을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우선 모이기라도 해야 할 터인데 피차 업무에 분망한 관계로 회집상대도 양호하지 못한 형편이며 모임내야 간단한 예배를 드린다는가 성경공부를 한다는가 친교를 이루는 것으로 그치는 것 같다. OCU의 목적중 회원상호간의 친교도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군무를 통하여 선교의 역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봉사적인 면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역사해

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OCU가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  
던 것은 결코 아니다. 자체 내에서는 회  
원들간의 친목을 이루고 피차의 신앙심  
을 일깨우고 봉사적인 면에서도 극빈자  
수재민 이재민 구호라든가 사이트의 유  
치원 원조라든가 부대운영의 고등공민학  
교를 지원하는 일들을 했으며 기타 군목  
업무에 직접간접 많은 협조를 하여 왔  
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주로 계속적인  
사업이 못되고 열성있는 회장이나 임원  
등의 전속 및 전역 등으로 중단하는 일이  
허다했으며 몇몇 임원들의 이동으로 회  
원들의 수도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아직  
완전한 체도에 OCU가 오르지 못한 것 같  
은 인상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모이거나 활동하는데 있어서  
핸디캡은 첫째 피차 공무에 바쁜 탓이요,  
둘째 거리관계, 셋째 임원들이나 회원들  
의 이동, 넷째 조직의 미비와 프로그램  
의 결여 등이라고 보았다. 하여튼 OCU의  
발전을 위해서는 먼저 정기적으로 모여  
서 좋은 프로그램을 세워 계속적인 사업  
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주로 OCU가 주최하여 지휘관  
의 환영예배나 조찬기도회를 가졌던 것  
은 지휘관에게 신앙에 대한 관심을 다시  
금 갖게 하고 설교라도 한번 들려준다는

의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  
만 만일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정  
치적인 것이거나 아부근성에서 나왔다면  
잘못된 것이며 타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모임에서나 활동을  
하려면 재정문제가 대두되는데 OCU의  
활동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은 주로 회원들의 회비  
로 운영이 되는데 회비징수에도 회원들  
의 성의가 없는한 애로가 많으며 회비사  
용의 응분한 보고로써 감청을 받아야 한  
다. 물론 월예회나 총회시 회계보고를  
통하여 회비사용의 보고를 듣기는 하지  
만 얼마나 가치있게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느냐가 문제이다. 보람있는 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면 회비납부뿐  
아니라 특별헌금을 하여서라도 그 사업  
을 추진할 의욕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대개의 경우를 보면 회비로써 간단한 중  
교서적이거나 교제신문을 구입해서 분배한  
다든가 회원들중 진급이나 전속 및 전역  
시 회식을 한다거나 상호간의 친목을 위  
해 다과회를 갖는다거나 기타 전도사업  
이나 구호활동이나 군목업무협조 같은  
것을 하는데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지회에서는 60% 정도가  
회원 각자에게 회비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며 나머지 40%가 회운영이나 사업

중에 쓰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자기지에서는 총회본부활동에 관심을 갖고 총회부담금도 적기에 상납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OCU는 유기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총회본부와 밀접한 관계를 항상 유지해야만 더 활발히 대의명분을 세우며 일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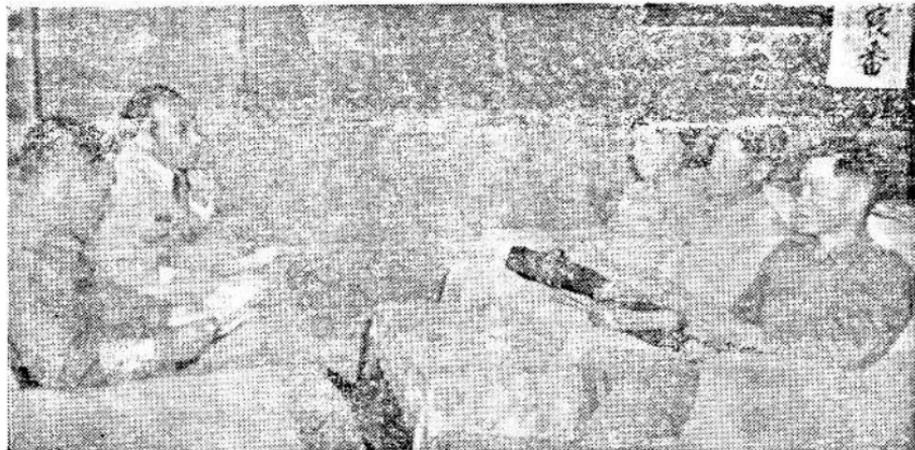
재정문제를 논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프로그램하에서 보람있는 사업만이 전개된다면 회비징수나 특별모금이 좀더 원활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이미 상술한 바와 같이 대의명분 있는 좋은 프로그램은 OCU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OCU와 군중업무의 관계를 논해 본다면 상호관계가 종적이냐 횡적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OCU와 군목과의 관계가 YMCA 같은 기관이 교회와 관련 갖고 있는 듯이 동등한 위치에서 횡적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내의 청년회 같이 예측적인 위치에서 종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OCU와 군목과의 관계는 이상의 어느 면에만 해당된다고 말할기보다 차라리 양면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OCU는 군목과 협조하여 보람있는

활동을 추진해 나가는 면에서는 횡적인 대등한 관계일 것이며 신앙적인 면에서는 지도를 받고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면에서는 종적인 종속의 관계라고 보았던 것이다.

나시 말하면 조직과 제도와 행정은 독립되어 있으나 신앙적인 면과 종교적 행사에 있어서는 군목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군목의 지도라고 하는 것은 봉건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봉사하고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OCU에서는 대개 군목을 교문으로나 지도군목으로 추대하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횡적이면서도 종적인 양면이 병행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 하여튼 OCU와 군목은 피차 존경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다. 그리고 OCU의 제도나 행정조치 등은 더 연구를 하여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 OCU 총회에서 모든 지회를 원만히 관리하고 효과적인 행정조치가 수행될 수 있는 이상적인 제도로 발전을 해야 한다. 하여튼 OCU의 이상적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회원이 피차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견해였다.

# 신우회 활동



▲ 참 석 자; 하 사 : 김 준 태  
 하 사 : 유 재 록  
 병 장 : 안 창 선

기록—하사 : 이 준 철

## 1. 목 적

신우회란 회칙에 영내사명으로 신앙을 토대로한 기독교인 상호간의 친목과 봉사활동, 전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같은 목적의식에 대하여 임원들은 어느 정도 뚜렷하나 회원들에게는 분명하지 않다.

신우회 활동은 신앙생활의 보존, 훈련 및 선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체

적으로 자신의 신앙활동엔 힘을 쓰고 있지만 선교활동엔 등한히 하는 편이다.

좀더 회원 각자가 신우회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겠으며 크리스천으로서의 증거와 신념을 가지고 직장에서나 내무생활을 통하여 솔선실행이 아쉽다.

## 2. 기구상 성격

군종업무가 전체 군인의 정신적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때 신우회는 영내 사병들의 신도클럽으로 군종업무 가운데 일부분인 종교활동으로 군목체제 안에서 복음활동을 해야 한다.

### 3. 활 동

특수계급사회에서 영내생활을 하고 있는 신우회는 시간적, 경제적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자체 내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헌신예배를 드리고 민간교회와 자매결연을 통한 군·민친선과 성도의 교제를 가지며 전역자, 환송회, 환송예배를 가짐으로 신우회가 그들을 향한 관심과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결심을 도와주고 있다.

또한 순회예배를 통하여 각 부대를 순회하며 회원 상호간의 결속과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우들과 대화하며 병상에서 교생하는 환자들을 위로하며 문화활동으로는 회지를 발간하여 회원들의 신앙, 문예, 특기 등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등 활동을 하고 있다.

### 4. 성과와 반성

지금까지 신우회 활동은 신우회에 관심을 가지고 집회에 잘 출석하는 회원들

을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다.

그러나 회비는 공제하지만 출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에게 좀더 많은 관심과 알맞는 과제를 마련하여 신우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하겠다.

신우회 활동이 기성신자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출석을 연락하는데 우리들 주변에는 사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휴식을 하고 있는 잠재적 신자와 군 생활을 통하여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우들이 적지 않은데 저들에게 대화의 기회마저 닫혀진채 신우회 활동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앞으로의 계획

지금까지의 활동을 경험으로, 임원중심의 활동을 지양하고 회원 각자에게 신우회에 대한 관심과 신앙 과제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겠다.

군·민친선 배구대회, 성경퀴즈대회, 음악감상 등 다방면의 계획으로 상호친목 정서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6. 문제점과 해결방안

가. 제대, 진속으로 인한 후진양성의문제  
병소에 후배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후임자를 물색, 경험을 갖도록 기회를 모색한다.

나. 교회의 집회문제(일시와 방식)

일시는 일요일 오전에만 예배하여야 한다는 기성관념을 지양하고 현재 부대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을 택하며, 집회방식은 설교를 듣기만하는 일방적인 방법을 지양하고, 좌담, 토론, 신앙간증을 통하여 서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면 좋겠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이 예배의 전부라 아니고 회원 자자에게 프로그램을 주어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와 비록 환경에 의해서 불감하는 회원들에게도 계속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겠다.

다. 공사교같은 경우에는 기지교회 활동이 사실상 사관생도를 중심으로 된다.

그러므로 회원의 예배참석하는 수의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앙문제에 대한 과제를 주고 관심을 가지며 상호 진밀한 연락을 요한다.

라. 기지교회 예배에 대한 개방문제

현재 부대실정으로 일요일에는 대부분 외출하고 잔류자는 하급자로서 전날 야간초소 근무 후 취침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실상 예배참석 인원이 적게 마련이고 군복님과 신우회 임원들은 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다. 현상 유

저로 외출자가 귀대하여 기지교회에 참석할 수는 있으나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고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외출자들에 대한 예배를 민간교회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였으면 한다. 물론 임원들이 사전에 민간교회와 교섭을 하여 예배후 청년회와 간담회 등 교제의 시간을 준비하면 더욱 좋겠다. 잔류자를 위한 군복활동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니 적은 수효이지만 좌담 또는 신앙토의로 예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7. 결 론

신우회 활동은 영내사병들의 신도클럽활동으로 외부로부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며 예배참석을 위하여 교감병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며 계급적으로 내무반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게되면 당분간(?)은 생각도 못한다. 고참이 되면 대부분 매주 외출에서 격주 외출이 되므로 사실상 기지교회에 일요일 예배참석 인원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신우회 활동은 지금까지의 방법을 검토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활동을 모색하여야 될 것이다.

## 행 동 적 고 백

이 영 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이해는 귀납적인 「공정」이라기 보다 오히려 연역적인 「독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는 옛날의 문서나 교리로 빚어 놓은 「석교」가 아니다. 「진리」가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현실에 간여하고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연 현상, 그리고 우리들 생의 신비로운 발전 등은 결코 화석된 「교리」의 마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의 단면인 것이다.

이렇게 살아서 현재에 행동하시는 하나님께 향한 인간의 응답은 오직 진실한 고백이다. 현재 우리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수없이 고백한다. 그러나 그 고백은 입에 붙은 「주문」처럼 되어 버렸다.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갖고 있는데 신께 대한 고백은 다만 입만 가져고 한다면 여기 무엇인가 잘못이 있는게 아닐까?

행동적인 고백, 그것은 두뇌와 육체, 말과 행실이 함께 되는 고백인데 그것은 신이 행동적인 신이시기에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닐까? 행동적인 고백의 양태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것이다. 그 고백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거기 십자가를 세울 작오를 갖고 우리는 마땅히 동적인 반응을 아려야 할 것이다.

교리상의 고백, 관습적인 구설, 그런 반응이 아닌, 신께 향한 진실한 「행동적 고백」, 이것은 능력 없는 세대일 수록 더욱 바람직한 요건이다.

—성서연구—



# 『창 조 주 하 나 님』

최 원 진 군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장 1절)

이 성구는 성경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며,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다. 기독교에서 신앙하는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에서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다른 것은 다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성구를 믿지 않는다면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코케르닉이나 갈릴레오나 다윈같은 이들의 학설로 기독교의 창조설이 타격을 받는 것 같았으나 새지식은 신앙을 없이하지 못하고 도리어 자극시켜 더 자라게 했던 것이다. 옛신앙의 귀감을 벗은 이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업을 사방에서 더 밝혀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조의 신앙이란 모든 생명의 기초가 하나님이사라는 믿음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과학만능(科學萬能)의 슬로건이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과학으로는 풀 한포기 꽃 한송이의 생명을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의 신비는 인간 스스로 풀 수 없으며 아무리 고도

의 과학으로도 생명자체는 창조해 낼 수 없는 것이다. 아마 그것은 인간이 피조물인 이상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인간이 만든다는 것은 이미 창조되어진 세계에서 기존하는 물질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은 어디까지나 유(有)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무(無)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기에 창조주라 말할 수 있으며 생명자체를 만드셨기에 조물주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우주는 의식없는 세력이나 생명없는 물질이 우연히 모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의식적 창조의 결과인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서로 맞도록 뜻있게 만들어진 것이다. 만일 이 창조의 신앙이 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진화되었다면 이 우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우주는 허무한 수수께끼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의 시계가 제시간을 지키며 바늘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 우연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만드기가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하물며 이 우주가 질서 정연히 움직여 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명히 창조주가 계시고 그 창조주가 섭리하신다는 믿음에서만 우주의 신비, 생명의 신비가 풀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특성들, 말하자면 그의 영원하신 힘과 신으로서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핏

제한 여지가 없습니다(로마 1:20)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솜씨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다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적인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을 범하면서 일을 하느냐고 비판할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신 것이다.

그러나 이 창조의 역사는 물질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는 인간의 마음을 새롭히시고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그 계속적인 하나님의 창조사업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역사를 수행하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양심이 마비되고 인격이 무너지고 취생몽사하여 죽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죄사함을 받고 양심이 바로 서고 인격이 건설되며 새로운 소망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창조적 역사를 수행하신 이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고 그리스도가 밝히신 바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일체라고 믿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창조적 구원사업은 곧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적인 창조사업을 수행하시지만 장래에는 완전한 창조사업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창조의 역사를 미래에 완성하시는 모습을 요한 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

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로부터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서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처음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복마른 자에게는 내가 생명을 샘에서 거저 마시게 하겠다.」(제시록 21: 1~6).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자의 완성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럼으로 현재에는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에서는 항상 희망이 넘치는 것이다.

### —— 철의 장막 안에서 새어 나온 이야기 ——

철의 장막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미국이 와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리라 믿고 있다.

루마니아 서울 부카레스트에 사는 한 시민은 공산압제 밑에서 사는 것 보다는 자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밧줄이나 독약을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한 계교를 꾸었다.

그래서 그는 공산당두목의 하나인 야나·포커라는 여인의 집앞에 와서 「포커를 타도하라, 민중의 원수인 포커를 죽여라!」고 소리 소리 질렀다. 이렇게하면 경찰이 와서 체포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경찰이 오기는 왔다.

그러나 그를 총살하는 대신, 경찰은 그를 껴안으며 기쁜 목소리로, 「친구, 미국사람들이 벌써 왔습니까?」고 물었다고 한다.

★... =5분 설교= ...★

예  
수  
그  
리  
스  
도  
와

하  
나  
님

△요한 14 : 6 ~ 10▽

김 두 식 군목

자연종교, 씨신종교, 우상종교 등의 발생은 인류의 하나님께 대한 갈망에서 생겨진 것이다.

이와같은 사이비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해매이는 종교였으나 하나님이 창조 인간을 찾지 구원하시는 종교를 주셨다. 지금부터 1960년전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인간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으니 바로 그 분이 인류 전체가 갈망하던 「예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예수는 연사의 지극성과 세계연대의 중심이 되실다.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생겨진 시력기원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국가는 물론이고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진영에서 까지도 시력기원을 연대로 쓰고 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지요 활동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구약 성경의 어디를 찾아 보아도 하나님의 존재여부를 논의한 곳은 한 군 베도 없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 안에서 기쁨의 송가를 불렀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신」이신 교로 「신」이 아닌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중 한 사람인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나를 본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셨다.

「빌립」의 의문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허다한 사람들의 심중에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의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왔다. 그래서 많은 사이비 종교가 발생하였다.



하나님을 분수도 없고 논리학적 방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없다.

유한한 인간은 보이는 「현상세계」만을 지각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길 외에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방법은 없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이상의 힘으로 살고 있다. 밤에 잘 때 전등 스위치를 끄고 잘 수는 있으나 심장의 스위치를 끄고 잘 수는 없다. 우리가 잠자는 심장은 쉬지 않고 일분에 70여번을 뛰고 있고, 되는 13초 동안에 온 몸을 한바퀴 도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니 이 힘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일일의 종교가 「하천풍언」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일이 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전기가 오는지 안오는지 소켓트를 만지면 알 수 있다. 전기가 오는 소켓트는 만지면 찌르르하고 전류를 느낀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소켓트를 만지면 하나님이 느껴진다. 만일 느낄 수 없다면 전기가 통하지 않든지 고장이 난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신 고로 영안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하나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을 「학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을 말한다면

①우주론적 증명—우주의 존재와 인과법칙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②목적론적 증명—우주만물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임과 같이 만물의 계획과 목적을 보아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

③실체론적 증명—인간의 마음에 있는 종교심 즉 인간이 자기 이상의 어떤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아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방법.

④도덕론적 증명—이 논증은 독일의 철학자 Immanuel Cant가 시작한 학설로 「실천이성비판」이라는 그의 저서 가운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이론이다.

# 소련의 군사전략 ⑦



중  
형  
•  
이  
종  
화  
〈  
편  
역  
〉

## (2) 제 2차 세계대전

제 2차 세계대전은 전쟁수행 방법의 개발에 커다란 추진력이 되었다.

세계의 제국주의가 준비하고, 가장 호전적(好戰的)이며 적의(敵意)가 있는 분자—서쪽의 나치독일과 동쪽의 군국주의 일본—에 의해 시작된 제 2차 대전은 제 1차 대전 참가국의 2배에 해당하는 61개국을 전쟁의 도가니로 끌어 들였다.

제 2차 대전은 6년간 계속되었다. 무력전, 특히 독·소전선의 전투는 역사상에서도 보기 드문 극렬성과 잔인성이 개재되어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개전(開戰)에 앞서 제 2차 대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준비란 정치·사상·경제·군사의 분야에서 실시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군사상의 준비가 가장 적극적이었다. 초기 제 2차 대전에 있어서 나치·독일은 완전히 무장하고 배치한 100개 사단 이상의 육군, 약 4,500대의 항공기, 그리고 강력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도 약 100개 사단과 2,6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제 2차 대전에 앞서 일련의 국지전(局地戰)과 무력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것으로 파시스트국가와 군국주의 국가는 자기나라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그 무기·장비의 효력을 시험했던 것이다.

나치·독일의 전략은 「슈리이펜」과 「제크트」(Seekt)의 걸전교리, 적군의 격

별뿐만 아니라 주민, 공업, 운수, 도시의 저멸을 꾀하는 「루멘돌프」의 전면전쟁 이론, 「플러」(Fuller)와 「구메리안」의 기계화 부대전과 전차전의 이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이더한 모든 사상은 전격전(Blitzkrieg or Lightning War)이라는 나치의 이론에 통합되었던 것이다.

침략제국주의 국가는 미리 상세한 전쟁계획을 수립하였다. 개전벽두 나치의 전쟁계획은 폴랜드를 격파하고, 초기에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점령하고 동방에 대하여 독일을 안전하게 해 두자는 것이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다음은 주력을 영국과 프랑스에 집중하고, 프랑스, 벨기에, 폴랜드를 점령해서 영국을 봉쇄하여 서방에 대하여 독일을 안전하게 한다. 그 후 소련을 공격하여 1941년 가을까지 소련을 격파하고 그 후 독일은 식민지역 확장의 길을 연다는 계획이었다. 독일은 소련을 분쇄한 후 북아프리카, 중동지역 인도, 서부유럽에 남은 여러 국가, 대서양의 여러 섬을 점령하고 최후에 미국을 공격하려고 계획했다. 이런 꿈의 계획이 실현되었다면 나치·독일은 완전히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치·독일은 전쟁을 계단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도했다. 그 제1단계는 대병력의 지상부대와 항공부대에 의한 단일한 작전에 의하여 폴랜드를 한꺼번에 분쇄한다는 것이었다.

국경선의 좋은 이점을 살려, 나치·독일의 통수부는 바르샤바에 대해 서남, 북서, 북방에서의 집중공격을 계획했다. 주공격은 많은 전차와 기계화부대를 가진 제10군을 가지고 서남방에서 지향되었다. 독일은 이 계획을 불과 18일을 가지고 실행하였다.

히틀러는 덴마크를 점령하고 노르웨이를 탈취한 후, 프랑스와 영국의 공격을 준비하였다. 프랑스에 대한 독일 통수부의 최초의 전쟁계획은 북부 벨기에와 폴랜드의 남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지향되어 마저노선을 우회해서 연합군 주력을 북방에서 격파하여 다음에 파리를 공격코자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얼마 가지 않아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 2월, 『작전』(Operation Sickle)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쟁계획이 채택되었다. 이 계획은 만슈타인(Manstein)장군의 제안(提案)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1개 집단군을 목색부르크, 알단, 북부 프랑스를 거쳐 영·불해협 연안으로 지향하며, 연합군 주력을 남방으로부터 차단하며

이것을 북부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격파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2개의 집단군은 연합군을 북부벨기에와 플렌드로도 마지노선에 연합하여 압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프랑스로 깊숙이 공격할 것을 계획했다. 독일은 이것을 전부 수행하는데 45일간 소요되었다.

히틀러는 프랑스의 패퇴 후 영국의 본토침입의 준비를 시작했다. 『강치 작전』(Operation Sea Lion)은 영국본토의 상륙작전과 그 점령을 기도한 것이었다. 상륙작전의 준비는 1940년 9월 15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전력(戰力)의 증대를 두려워한 히틀러는 영국본토 상륙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나치·독일의 수뇌들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 먼저 소련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결심했다. 히틀러는 영국에 도전하기에 앞서 그 병력과 장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해서 대소전을 한 후 영국에 침입할 것을 결정했다.

독일은 세계정파의 싸움에 있어서, 소련에 대한 전쟁은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했다. 독일의 서부전선에서의 군사상의 승리가 그들을 우쭐하게 만들었다. 현실의 정세를 무시하고, 사회주의국과 그 군대의 힘을 과소평가한 독일 최고통수부는 1개월 반이나 3개월 사이에 국경지대에서 소련군의 주력부대를 분쇄하여 소련국민의 계속적 항쟁의지를 다비시켜, 1841년 가을까지 불가하(河)의 선까지 진격하여 소련국민을 항복시킬 것을 계획했다. 이것이 『바바로사 작전』(Operation Barbarossa)의 요지이다.

이 계획에 의하면 주공(主攻)은 포레이시예의 북방으로 지향하여 중앙집단군과 북방 집단군의 2개 집단군을 가지고 일반방향을 스몰렌스크와 레닌그라드로 향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남방 집단군은 포레이시에 남방의 키에프를 공격한다. 다음에 중앙의 독일군은 빨리 모스크바로 향하며 진격, 남방으로 진격하여 돈바스를 점령한다.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전차 17개 사단과 기계화보병 13개 사단을 포함한 190개 사단, 3,410대의 전차, 5,000대의 항공기가 준비되었다. 중앙 집단군이 전차 9개 사단을 포함한 50개 사단으로 형성된 최강의 병력을 가진 부대였다. 이태리, 핀란드, 루마니아, 항가리가 나치·독일에 가담했다.

제국주의 일본의 배신적이며 침략적인 계획도 또한 대대적인 것이었

다. 일본의 최종목표는 동남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어서 영국, 플랜드 및 영국의 식민지를 탈취하고 나아가서 소련의 동부지방을 점령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의 전략계획은 중국본토를 점령할 때까지 중국에서 전쟁을 계속하여 다음에 강력한 관동군을 만주에 집중하여 독일의 성공이 좋은 기회를 가져오는 경우 소련을 공격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필리핀, 타이, 버마, 말레이 및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기 위해 미국함대의 주력에 기습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일본은 미국태평양 함대를 격멸, 또는 일시적으로 무력화시킨 후, 구암과 웨이크섬을 점령, 아류산열도에 침공하여 뉴기니아와 솔로몬의 여러 섬의 점령을 기도했다.

이상의 사명을 수행한 후, 일본은 태평양과 남방해역에 있어서 전략적 수세(戰略的守勢)로 옮겨 그 주력을 소련에 지향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1941년 12월부터 1943년 3월 사이에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침략적 파시스트진영이 제2차 대전을 실시하는 전략적 계획이었다. 전쟁의 실체가 증명된 바와 같이 이러한 계획은 전혀 모험적인 것이었다. 파시스트진영은 이상의 계획을 달성하는데 충분한 힘과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파시스트진영의 지도자들은 적의 간담을 싸늘케 하며 저항의지를 마비시키기 위해 주로 기습공격에 의존하며, 공격자의 이점을 최고도로 이용코자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어서의 무기개발의 수준과 추축국(樞軸國)들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항공부대와 장갑부대에 의하여 그들은 전쟁의 초기, 준비가 없는 적에게 기습공격을 가하여 커다란 성공을 획득했다. 파시스트국가는 적국에 앞서 전시경제체제로 옮겨, 군대에 더 훌륭한 기술장비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었다.

이 전쟁에 있어서는 적에 앞서서 군대를 전개하는 것이 중요했다. 나치·독일은 적에 앞서서 비밀리에 군대를 전개했다. 공격 초기에 있어서 독일군은 이미 전투의 준비를 갖추어 적당하게 전략적, 작전적 배치로 전개하며 주력은 주공방향에 집결되어 있었다. 이것은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에 의하여 침략국들은 개전시에 있어서 커다란 군사상의 이익(利益)을 획득했다.

파시스트진영은 적진영 결속의 결여를 틈타서 적을 작개 격파할 수 있

었다. 먼저 폴란드와 노르웨이를, 다음에 프랑스, 벨기에, 폴랜드를,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와 헝가리를 격파했다. 서구제국의 점령 후 소련이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영·불·미 연합군의 전략적 목표는 독일과 일본을 소련에 대항시켜 자국 군대의 대부분을 소련, 독일 및 일본이 소모되어 대전 후 세계 이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건을 명명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까지 예비로서 남겨 둔다는 것이었다. 서방측 연합의 지도자들은 이상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깊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심중히 전쟁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제2차 대전의 발발시, 프랑스가 25개 사단만 보유하고 있었고, 영국과 미국은 전투준비가 된 6개사단씩만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하다.

폴랜드는 전쟁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독일군에 대하여 다만 33개의 사단과 여단을 총당하지 않았으며, 이것은 형식적으로 독일 국경 부근에 배치되었다. 폴랜드는 예비대를 동원하여 편성하고, 군대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 이더한 모든 조건은 나치 육군의 작전을 쉽게 만들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宣戰)을 포고함에 있어서, 독일이 소련을 공격할 때까지 마지노선의 배후에 멈추어 있을 계획이었고, 양국은 소련에 대해 독일의 공격이 빨리 실시되기를 백방으로 주선하였다. 개전 후 3주간에 프랑스는 110개 사단을 동원하고, 영국은 5개사단으로 구성된 원정군단(遠征軍團)을 동원했지만, 이더한 대병력은 다만 23개사단의 독일군에게 눌러 행동을 취할 수 없었다.

영·불진영의 통수부는 D계획이라고 불리는 수동적 전략을 전개하기로 했다. 그것에 의하면 연합군은 독일의 공격개시를 기다려 군대를 전선(戰線)에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만약 독일군이 벨기에에 침입한다면 영·불군의 주력은 벨기에의 방위를 위해 벨기에 내에 파견하기로 되어 있었다. 앞단지역은 독일 기계화부대가 통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독일군의 주공방면(主攻方面)의 방비는 허술하였다. 영·불의 작전계획 D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를 배반하는 계획이었다. 그 계획은 많은 시유법의 여러 나라에 재화(災禍)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40년 5월까지, 영·불진영은 142개사단과 3,000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3,000 대의 전차는 대부분 야전사단에 분할 배속되었다. 또 2,500 대 이상의 항공기도 보유하고 있었다. 독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영·불군사지도자들은 D 계획에 의해 군의 주력을 벨기에 국내에 투입했다. 이것은 독일이 바라는 바였다.

제2차 대전 발발시에 있어서 서방측 연합국의 전황(戰況)이 불리함을 알게된 영·미의 수뇌자들은 전쟁의 재계획을 시작했다. 1941년 봄, 『레인보우 5』(Rainbow 5) 계획이 작성되어, 일본의 진주만 공격 후에 이 계획은 실시단계에 들어갔다. 이 계획에 의하면, 영·미진영의 주력을 대서양과 유령대륙이 전장(戰場)에 집중키로 되어 있었다. 이 주력의 당면사명은 연합국의 영토를 방위하고,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다음에 얼마 후 독일과 이태리를 공격하기 위해 대서양에 병력을 전개한다는 것이었다. 알아 들 것은 이 독일과 이태리에 대한 공격시기는 아직 미정이었다. 항공부대와 해군부대는 해상병참선의 보호를 맡고, 독일과 이태리에 대한 공중공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제2차 대전의 위협이 가까와짐에 따라, 소련은 침략을 격퇴할 국가적 준비를 해야만 했다. 공산당의 지도와 전쟁전의 5개년 계획하에 소련인민의 노력은 각종의 무기와 장비의 제조에 필요한 강력한 공업의 기반을 만들었다. 전쟁전 수년간에 붉은 군대는 개편되고 확충되어 그 군사력은 상당히 강화되었다.

소련은 파시스트 침략자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와 군대의 태세를 갖추는데 커다란 오산(誤算)을 범했다. 새로운 군사무기, 특히 전차, 항공기, 대전차 무기와 대공무기의 대량생산이 따르지 못했다. 그래서 파시스트의 육군부대는 최초 적군(赤軍)에 대해 무기의 면에서는 우세하였다. 적군(赤軍)은 전투의 경험이 없고, 훈련을 받은 고급사령부의 참모도 없었다(특히 작전과 전쟁지도의 단계가 그러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스탈린의 개인숭배에서 기인한 탄압의 결과에 의한 것이었다. 군대의 훈련도 제2차 대전 초기에 사용된 전투방법이 반드시 적합한 것도 아니었다. 소련군의 재편도 저적부진한 상태로 진척이 더디었다.

1941년에 접어들면서 소련은 적어도 당분간 파시스트 기습공격의 가

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가령 전쟁이 발발한다 하여도 그것은 선전포고(宣戰布告) 후 공격해 오든가 혹은 무경고 공격이 되던 최초의 군사작전은 일부의 엄호병력이 일정한 기간(약 15일에서 20 일간)에 실시키로 하고, 주력부대의 방어진지에의 배치와 전개와 전투에의 참가는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래서 소련의 계획은 다만 제 1선 부대를 사용하여 서부 국경선을 엄호하고 이것을 수비하는 것으로 멈추고 있었다. 이러한 부대가 독일군이 침입하여 올 경우, 이것을 구축하고, 소련군의 동원과 전개를 엄호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목표하에 국경군관구는 정연하게 엄호부대를 국경 가까이 배치하고, 그 병력의 밀도(密度)는 50킬로 정면에 대하여 평균 1개 사단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방위태세마저도 전쟁발발시까지 준비가 충분치 못하였고, 사단의 일부가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사단의 잔류병력은 훨씬 후방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 엄호부대 외에 국경의 군관구는 국경선으로부터 후방 30~600킬로의 중심에 걸쳐 소부대와 사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대는 어느 것이나 국경까지 병력을 신속하게 이동하는 수송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우기 주력은 포레이시에의 남방에 집중되고 있었으나, 파시스트군은 포레이시에의 북방에 주공(主攻)을 가해 왔다. 독일군의 침략에 대응하는 작전상의 전쟁계획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나치·독일에게 대단히 유리한 조건이었다. 이것은 전쟁초기에 있어서 전투경과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왔다.

소련군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적절하게 준비를 갖추지 못한 이유의 하나는 스탈린의 군사 및 정치정세의 판단이 틀려 있었다는 것과 개인 승패가 낡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 이것은 국방인민위원부와 적군참모본부(赤軍參謀本部)의 실패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하고 있다. 즉 시기(時機)를 잃지 않고 붉은 부대에 경계태세를 명하고 전략전개(戰略展開)를 실시하고 국경군관구를 완전히 먼 곳에서 엄호계획에 의하여 방어태세를 취하는 것을 소홀하게 했기 때문이다.

침략국측은 본질적으로 다른 많은 국가에 대하여 실시한 바와 같은 기습공격의 방법을 사용했다.

나치·독일은 소련에 대하여 300~400킬로의 중심(縱深)에 걸쳐 비행장, 대공시설, 시가, 부락, 정류장, 다리, 부대의 전개지구, 지휘중추를

목표로 하여 집중적으로 항공부대의 기습공격을 가했다. 이 기습공격은 여러가지 무기를 사용한 전력이 없는 병력에 의한 것으로 소련의 항공기와 지상부대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고, 소련의 몰락한 대공시설(對空施設)을 압도하고, 국경 가까운 철도와 도로에 의한 소련군의 행동을 혼란케 만들었다.

소련군은 기습공격을 격퇴하는 준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파시스트의 군대는 전진함에 있어서 커다란 저항을 받지 않았다. 독일군은 개진적두 전략적주도권을 쥐고, 계공권을 획득했다. 독일군이 소련 영토 깊숙이 침입했다는 것은 소련군의 여러 부대의 동원과 전개를 방해했다. 특히 리도와니아, 벨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방해는 컸다. 이것은 국경지역에서의 소련의 경계를 파괴하고 말았다.

전쟁초기부터 소련군은 다음과 같은 대단히 복잡하고 책임있는 일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적의 진격을 저지하고, 파시스트의 공격부대에 손해를 입히고, 적으로부터 전략적 주도권을 탈취하고 국가의 중요한 중추부와 지역을 방위한다는 것이었다. 군대를 전개시켜 전투에 투입시키고 공업 시설과 물자를 전쟁의 위협을 받는 지방으로부터 소개(疎開)를 하고, 나치의 전격작전(Bitzkrieg)을 분쇄하기 위해 소요되는 군수산업을 개발하고, 전쟁의 추이(推移)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조건을 만들어야 했다.

이러한 과업을 완수하기에는 장기간에 걸쳐 피나는 투쟁이 필요했다. 겨우 1941년 말에 이르러 나치의 진격은 모스크바전투에서 저지되었다. 히틀러가 계획했던 전격작전은 분쇄되었고, 붉은 군대가 수세(守勢)에서 공세이전(攻勢移轉)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기전투에서 소련군의 실패는 주로 독일군이 여러가지 면에서 소련군보다 유리했다는데 기인한다. 나치·독일은 소련보다 강력한 자원(資源)과 기술의 기반을 가졌고, 전시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있었고, 그들의 장비는 우수하고 또 필요한 전투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독일은 대부분이 유럽을 파시즘의 지배하에 두어 자기네에서 유리한 좋은 시기에 소련을 공격할 수 있었고, 히틀러는 소련이 단독으로 있을 때 소련에 대하여 주력을 투입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독일은 기습공격의 효과를 이용했다는 이점(利點)을 가지고 있었다.

제2차 대전 초기, 영·미진영은 태평양에서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그것은 일본군에 의한 기습공격과 영·미진영의 전쟁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과 대일전의 초기, 영·미진영이 수동적인 수세전략(守勢戰略)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태평양에서의 전쟁개시에 있어서 독일군도 마찬가지로 기습을 행했다. 일본군은 진주만의 미해군기지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좋은 기회를 택했다. 이 일격은 태평양에 있어서 미군부대를 크게 약화시켰다. 그와 동시에 일본은 같은 요령으로 필리핀과 홍콩을 공격하고, 타이와 말레이반도에 침입하여 태평양에 있는 많은 영·미군 기지를 점령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초기에 있어서 승리를 획득했으나 신속한 승리를 획득하는 계획에는 실패하였다. 미국을 항복시킬 수는 없었다. 전쟁은 장기화되고, 일본의 항공부대와 해군부대는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 일본의 침략자들은 동남아시아의 점령한 여러 국민들로부터 예기치 않았던 완강한 저항을 받았다. 특히 일본은 중국에서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군의 작전은 다음의 두 가지 기본적인 형(型), 즉 전략적인 공세와 수세가 있는 것이다. 지상부대가 전략적인 공격과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항공부대와 해군을 포함한 다른 부대가 지상부대의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전략적 공세는 군사작전의 기본형이며, 적의 전선(戰線)을 돌파하고, 적의 주력을 격파하고, 적의 방어선, 국내의 깊숙한 지역이나 정치중추를 점령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돌파를 수행하기 위해 대량의 포병, 항공기, 전차, 보병이 좁은 지역에 집결되었다. 보병부대의 전진에 앞서 강력한 포병과 항공기에 의한 공격준비의 포 폭격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제1차 대전의 경우보다 포 폭격의 시간이 훨씬 길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다음에 보병사단이 전차와 더불어 계속하여 포병의 지원과 항공기의 저공지원(低空支援)하에 적을 공격했다. 적의 전술 방어선의 돌파 후는 강력한 전차부대를 전투에 투입하여 중심깊게 그 공세의 전과확대(戰果擴大)에 사용되었다. 대규모의 공세작전이 작전 내지 전략목적의 적부대를 분단하고, 포위하여 격멸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었다. 소련의 전략적 공세는 크게 개발되어 독일군의 전략적 수세를 압도할 수 있었다.

제2차 대전 초기에 있어서 붉은 군대는 주로 전략적 수세를 취했다. 이 기간 중 소련군의 수세는 독일군의 공세보다 약했다. 그러나 1942년 말에 이르러 소련군의 수세는 독일군의 공세를 압도할 수 있게 되었다. 1943년에는 소련군의 전략적 수세는 클루크스의 돌출부에서 나치군의 강력한 공세에 견딜 수 있었다. 그로부터 종전까지 독일군은 전략적 규모에 있어서나, 작전적 규모에 있어서도 한 번도 소련군의 수세를 압도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방어전지론 본질적으로 돌파할 수 없었던 제1차 대전과는 대조적으로 제2차 대전에 있어서는 공세(攻勢)가 수세(守勢)보다 우세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량의 전차와 항공기의 사용이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전차와 항공기는 수세측을 압도하여 전쟁에 기동적 성격을 부여했다.

항공부대는 제2차 대전에서 전략적으로 중요성을 발휘했다. 항공부대의 주력은 항공전과 결전장에서 지상부대의 지원에 집중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교전국은 서로 많은 항공거리가 짧은 폭격기, 공격기, 전투기를 자유로이 사용했다. 제공권 획득을 위한 전투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다.

지상부대와 해군부대와와의 합동작전을 위해 항공부대 외에 항공거리가 긴 전략항공기가 제2차 대전 중에 출현하여 전략부대의 계획을 실시하는데 사용되었다. 미·영국은 특히 강력한 전략공군을 가지고 있었다. 전략공군은 지상부대의 작전지역을 넘어서 사용되었다. 그 작전은 후방의 경제중추, 운수, 주민, 정치조직을 목표로 하고, 적의 군사와 경제상의 잠재력을 파괴하고, 적의 후방을 혼란시켜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에서 결정적인 성과는 기대하지 못했다. 당시 적의 본국을 완전히 파괴할 만한 강력한 파괴수단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제2차 대전의 초기에 있어서도 전쟁의 전략적 목적은 전략항공기의 사용만으로 완전히 달성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작전 특·소간의 전투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커다란 항공거리의 항공기는 소련에서 별로 개발을 보지 못했다.

미·영국은 이 문제에 관하여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

양국은 이태리의 두헤(Dohet)장군이 주장한 항공전 이론을 채용했다. 오랫동안 독일에 대한 영·미의 적극적 전면작전은 도시와 공업목표의 폭격이었다. 독일군도 대규모의 공중공격을 영국 및 다른 유럽국가에 가했다. 유럽의 대도시 전부가 폭격도 받았다. 독일군의 폭격에 의한 손해는 더욱 막대한 것이었다. 미·영의 신문은 항공기의 사용에 의하여 독일은 폭쇄(爆碎)되어 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영의 전략공군의 작전이 대독승리(對獨勝利)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였다. 미국인마저 이것을 시인하고 있다. 케네디대통령의 군사고문 테일러대장은 『제2차 대전 중 전략폭격은 나치·독일의 군수공업의 파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것은 최후의 승리에 공헌은 하였지만 결정적 요소는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부로디(Brodie)교수도 『제2차 대전 중 도시폭격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이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했다.

독일의 경제는 커다란 손해를 입었지만, 전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완강한 전투를 지원할 수 있었다. 미국의 크롤리·클레이튼 위원회는 (Crowley-Clayton Commission)는 독일의 증전시에 있어서 전기계제조 공업은 개전시보다 더 큰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의 확증을 잡았다. 정부의 공장은 100에 대하여 10~15는 사용할 수 없었으나 용광로와 코오크스로는 상하지 않았다. 미국의 자료에 의하면 항공기 공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도 독일의 군용기(軍用機)의 생산은 1945년까지 착실하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1943년 11월에 953대의 전투기가 생산되었는데 1944년 4월에는 1,224대, 그해의 7월에는 1,855대가 생산되었다.

미·영항공공격의 다른 하나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았다. 그것은 독일 국민의 사기를 저상한다는 것이었다. 확실히 독일인들은 공중공격 때문에 비교적 심한 손해를 입었지만 그들의 대항전력은 공중공격으로 좌절되지는 않았다.

제2차 대전 중에 있어서 전략공군의 발전과 원폭(原爆), 초기의 장거리 미사일의 발명은 무기를 가지고 직접 적국 내륙의 깊숙한 곳의 경제, 정치조직, 주민의 공격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전장에 있어서 공

세와 수세 외에 새로운 군사작전의 형태가 있다는 기반을 나타낸 것이었다.

소련의 인민, 경제, 교통통신을 적의 공습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이미 제2차 대전 중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었다. 이 보호의 임무는 방공부대에 가해졌으며, 이 부대가 전략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방공부대와 대공포병전투기, 레이더장치 등의 방공무기는 방공의 방법과 더불어 제2차 대전 중 크게 개발되었다.

제2차 대전 중 대서양과 태평양에서는 대규모의 해군작전이 실시되었다. 대서양의 해군작전은 주로 해상병참선의 유지를 위해 실시되었지만 한편 태평양의 해군작전은 주로 미국 대 일본의 비교적 큰 해군과 항공부대와 비교적 적은 지상부대 사이에 벌어졌다.

제2차 대전의 초기, 교전국은 해군작전의 실시를 과거의 전쟁에서와 같이 전형적인 근거리포격전을 하는 수상함선(전함과 순양함)의 대부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항공기와 잠수함의 효용은 전함과 순양함이 왕년의 이점을 잃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항공모함이 전함과 순양함의 지위에 대치하게 되었다. 이 항공모함은 공중과 잠수함으로부터의 공격에 피해를 받기 쉬우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해전(海戰)은 항공기동부대(航空機動部隊)간의 충돌로 변했다. 전투는 주로 항공기에 의해 실시되었다. 그 항공기의 목적은 적의 잠수함, 수상함정, 항공부대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잠수함은 적의 전투함선과 수송선의 공격에 많이 사용되었다. 집단을 형성한 잠수함이 해안의 무선에 의한 유도하에 이동 경계망이나 적의 선박·선단에 대한 공격에 사용되었다. 큰 전함 상호간의 근거리포격전은 제2차 대전에서 볼 수 있었으나 이미 과거의 것이 되었다. 해상의 전장에서 기뢰전(機雷戰)과 대규모의 수륙양용작전이 널리 사용되었다.

영·미진영은 대규모의 수륙양용작전에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작전의 중요성은 독일군과 일본군이 다같이 열세하여 커다란 저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다. 수륙양용작전은 오랫동안의 준비를 필요로 했다(예컨대 시실리섬에는 6개월, 북부 프랑스상륙에는 15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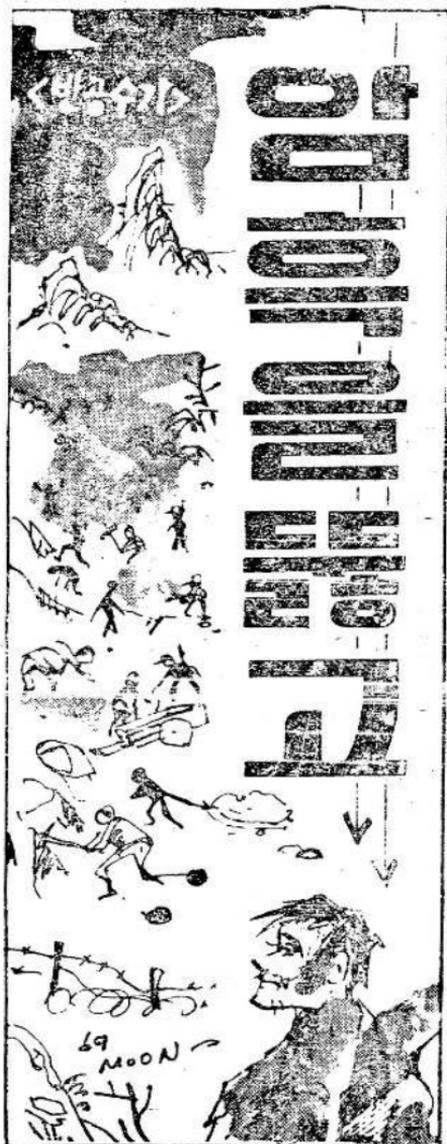
전술한 종류의 군사작전 외에 적의 배후에서 지하공작과 광범한 빨치

산전법이 제2차 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하여 승리를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소련영토 내의 적의 점령지에서의 빨치산전은 전쟁의 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빨치산전법은 주로 배후에 숨은 행동과 수색작전의 형태로 행하여졌다. 적수비대, 중요목표, 후방보급선을 적은 병력으로 공격한다든가, 빨치산부대가 적의 예비대와 전투를 한다든가 또 적의 배후 깊숙이 빨치산 대부대를 가지고 침공 등을 실시했다. 빨치산부대는 적의 배후를 교란하고, 많은 적부대의 주력을 자기편으로 견제하였다. 빨치산전법과 지하공작은 특수하고 또 중요한 군사행동의 한 형태가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제2차 대전의 군사작전의 기본형태는 주로 항공부대의 지원하에 지상부대가 행한 전략적인 공세(攻勢)와 수세(守勢)였다. 적의 배후에 대한 전략항공작전과 적의 공중공격에 대한 본토의 방위작전도 해상에서의 군사작전도 대규모로 실시되었으나 제2차 대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중요성은 가져지 않았다.

역사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침략국가는 통상 신중하게 사전에 전쟁을 준비하고, 병력의 전개에 있어서 가상적국을 선정하여 기습을 가치고 전쟁을 개시한다. 이것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국주의의 나치·독일, 제국주의 일본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공격을 받은 적국보다 커다란 이점을 얻었다. 침략국가는 최초 언제나 공세로 나와 때때로 성공을 거두었다. 공격을 받은 국가는 통상 그 공격에 반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수세(守勢)를 취하지 않을 수 없어 주도권을 다시 찾는데 오랫동안의 전투를 치뤄야만 했다. 이것은 제2차 대전 초기 영·불·미·소가 놓인 위치였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은 당초 두 개의 세계대전에 개입하는 것을 피했다. 그들은 제1차 대전에는 종달단계에서 참전했다. 제2차 대전에서 미국은 다소 빠른 시기에 참전해야만 했다. 그러나 미군이 참전한 시기는 적이 이미 약화된 상태가 된 전쟁의 말기에 가까웠다.

제국주의자의 시대에서의 전쟁은 점차로 대규모로 되었고, 문자 그대로 세계적으로 되었고 더욱더 격렬함을 보하여 왔다. 초기 제국주의시대의 전쟁에 있어서는 전투는 주로 전장에서 군대 상호간에서 실시되었다. 그 후 군사작전의 목표는 넓혀지고, 철선 후방지역, 주민, 경제 및 정부조직을 포함하게 되었다. <계속>



이 상 옥 [2]

난뛰는 공산당원들의 행동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소위 해방되었다는 이 나라가 술한 지  
식인을 저버리고 남의 집 머슴사리하던  
사람이 아니면 존락에서 가 자(字) 뒷다  
리도 그럴 수 없던 무식한 사람들만이  
난뛰어야 하나...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에 맹종(盲從)하여 민족  
을 흡혈(吸血)한 친일파(親日派)라면 몰  
라도 그 세상에서 월급쟁이 노릇을 했  
기가 심지어는 중학교만 나와도 친일파  
로 몰아대는 세상이니 이 어찌된 영문  
일까?

일제 때 일본에 가서 공부만 했다면 부  
르호아의 아들이라고 몰아 세워 두문불  
출 심지어는 잡아다가 가누는 판이었다.  
어쨌든 생각할수록 하심하기 그지 없  
었다.

(설마... 설마. 제 아무리 무식한 늑  
들을 좋아하는 공산주의라고 해도 과도  
기니까...)

하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물론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는 속담을  
나는 잘 알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땅의 해방자를 자처한 소련군이 이렇게  
무지(無智)스럽고 막된 정치를 하지 않  
으리라고 믿었다.

어려서부터 공산주의자란 농민과 노동  
자를 위한답시고 최저생활을 하는 그들

까지 착취한다는 것을 나는 잘 듣고 있는 터였다.

나는 제정 때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였다. 일인(日人)인 선생은

소련의 공산주의는 마수(魔手)다.

왜 그들을 마수라고 불으느냐 하면 그들은 온 세계를 붉게 물들리려고 한다.

그 붉은 마수는 온 국민의 재산을 마구 약탈하여 노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골고루 나누어 먹기식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지도자는 하나도 일하지 않고 메ათ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표면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다고 한다.

실은 노동자 농민, 즉 가장 권력없는 서민층 것까지 메ათ아 먹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붉은 공산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기억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사람이 본 「공산주의 관(觀)」이겠지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었다.

왜냐 하면 설마 이 땅의 「해방의 은인(恩人)」을 자처하는 그들이 해방시켜 준 땅에서 무지막지한 놈들의 안하무인(眼下無人)적인 망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과도기의 망동을 얼마 안 가서 바른 질서로 잡혀질 줄로만 생각했다.

평양에 나타난 김일성  
그때도 설마에 속아서

나는 마치 자기의 세상을 만난 듯 남뉘는 공산주의자(대부분 지방에서 저하운동을 하던 자)들의 행동에 아랑곳 없이 나의 선배와 스승을 찾아 공부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집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은 걱정이 없었다.

공부란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였다. 책을 빌려다 보고는 마주 앉아 토론(討論)하는 것이 교작이었다.

나는 우선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다.

그들이 말하는 소위 당사(堂史: 불해 키키 당사)도 읽어 봤다. 공산당의 「광플렛」은 쥐어지는 대로 읽어 버렸다.

공산주의 이론(理論)을 알아야 공산주의 사회에서 출세(?)하든지 아니면 공산주의자와 대결하여 싸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때, 즉 1945년 10월 14일

교향 길주(吉州)의 곳곳에는,

『김일성장군 환영만세!』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장군 환영만세!』

라는 표어와 「플래카아드」가 나붙기 시작했다.

평양에서는 소위 김일성장군 환영 시민대회가 열렸다.

그런가하면 「로마넝코」 소련군사령관을 「평양 정치위원회」를 열었다는 등 온통 김일성 「붐」을 조성했다.

흔락했던 북한 주민들은 30대의 청년 「김일성」을 부각시켜 정신적인 단합을 꾀했던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김일성」이란 이름 석자는 부모들로부터 가끔 들었다.

항일투사(抗日鬪士)로서.

그러나 그렇게 들어오던 김일성이 가 그렇게 새파란 젊은이인 줄이야 그 누가 알았느냐 말이다.

『아니다. 김일성은 이제 70도 넘었을 꺼야. 그게 어느 때 사람인데. 아무리 어렵도 할아버지 나이는 됐을 꺼야.』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의 이야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金成柱)라고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련은 일제 때 항일투사로

혜산진(惠山鎭)지구를 무대로 활약하던 진짜 김일성을 북한주민에게 재상 부각시켜 정신적인 지주(?)로 삼으려 김성주를 김일성으로 둔갑시켜 평양에 끌어온 것이다.

사실 「김일성」이란 이름은 제정 때 평안도 사람들보다 함경도 사람들의 귀에 더 익었으리라.

그것을 함경도지방의 공산당의 지하운동이 치열했기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북한에 들어 온 김일성이 가 소위 「평양시 환영대회」에서 연설했다는 연설문이 이미 거리에 나붙기 시작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수천 년래의 저주할 폐단인 당파싸움과 파벌투쟁부터 뿌리 뽑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민주주의적 입장에선 전 민족을 굳게 통일하는 민주주의통일전선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민주전국 의욕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하여 민주주의적 통일전선을 가져야 하겠다.』라는 장문의 벽보가 머리를 뒤로 젖힌 젊은 김일성의 사진과 함께 벽보(壁報)에 나붙었다.

나는 거리를 가다 군중에 끼어 무심코 눈을 돌려 읽어 왔다.

그 참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다.

당파싸움이니, 파벌투쟁, 민주전선이  
니 하는 말의 뜻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  
었다.

사실 우리 나라의 역사에는 거의 까  
막눈이 없었으니, 이해할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벽보」를 지금 다시 들  
이켜 생각해 볼 때 이 얼마나 허구  
(虛構)에 차고 허황된 소리인가 말이다.

당파싸움과 파벌투쟁은 과연 누가 먼  
저 저질렀으며 「민주주의」니 「민주전국」  
이란 말이 그의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모름지기 이는 자기가 전개할 당파싸  
움이나 파벌투쟁을 연설했다고 해도 과  
언은 아니리라.

또 그가 말한 소위 「통일전선」이란 것  
이 앞으로 그가 전개할 당파싸움에서 모  
든 당(黨)을 공산주의에로 이끌어 가겠  
다는 흉악한 설계가 서있었기 때문에 그  
를 한데 묶자는 예시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내 세운 「통일전선」  
이란 공산당이 관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내외에 전시(展示)하기 위한 가면(假面)  
이었다.

공산당의 독재를 은폐하기 위해서는  
공산당만이 존재할 수 없었다. 다른 정

당도 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면극이 필  
요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러한 정당들은 소련  
군정이나 그 정책과 김일성 당에 추종하  
는 보조적 정당이어야 했다.

소련의 군정을 반대하고 그들이 내세  
운 허수아비 김일성을 반대하고 나서는  
정당을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비록 공산당은 아니더라도  
만들어진 정당은 공산주의 노선을 이탈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간계(奸計)는 김일성  
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드시 소련 군정의 공산화 정  
책에서의 일환(一環)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다.

### 갈광질광하는 민중들 내가 택할 길은 어디

그러니까 1945년 10월 12일, 이북 5도  
대회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소련의 「치스차코프」대장과 「멘코프스  
키」중장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  
했다.

「…반일적(反日的)이며 민주적인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결성 및 그 활동을 허가한다」라는 취질이 든 성명서였다.

그때 나는 이 성명서를 두 가지 저의(底意)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 하나는 먼저 말한 바와 같이 공산당의 독무대(獨無臺)가 아님을 내외에 전시키기 위한 수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 집단과 그 움직임을 알아서 사찰(査察) 내지는 정탐(偵探)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결사(結社)를 보장한다면 소련 군정은 이러한 발표와 동시에 수 많이 사칭할 정당 사회단체의 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들이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북한 노예화 정책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반일적이에요, 민주적임은 물론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제시하고 나선 여러 정당의 신청자들이 암암리에 투옥(投獄)당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방직후 지방에 산재했던 중견 문화인들이 모여 조직한 예술문화협회(藝術文化協會)조차 그 활동에 제지를 받고 말았던 것이다.

소련군정의 야심은 결코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우당(友黨)을 만들되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한 두개 정도 허용하여 그것으로써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데 있었다.

따라서 소련이 생각할 때는 김일성이 그 첫째로 손 꼽히고 이에 동조하는 우당을 만들어 가지고 형식상의 셋이고 네 개의 정당을 표면에 내놓겠다는 심산이었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결코 북한의 소련군정은 단일 정당으로 독재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방에 시위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이러할 때의 김일성의 심정은 모름지기 민족지도자였던 조만식(曹晩植)씨를 제일 제략이었다.

김일성은 조만식선생의 제자인 최용건(崔庸健)과 김 책(金策)을 민족주의자로 가장시켜 조만식에게 접근시키는 한편 그 자신도 같이 당을 조직하자고 꾀었다.

조만식 중심의 민족진영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그들 때르의 다른 심산이 있기에 1945년 11월 3일 「조선민주당」의 창당을 보았다. 이 때 공산주의자들은 소위 보조당의 출현을 비웃었지만 「조선민주당」은 창당초부터 공산

당의 꺾죽각시 노릇을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그들의 애초 생각과는 무척 빛나가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가뜰서 공산당을 미워하는 북한 동포들은 조만식 중심의 이「조민당」이 창당되자 불과 두 달 사이에 당원 20만을 입당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조민당」은 공산당의 양강진 화살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 내의 사정을 공공연히 알 수 없었던 슬한 북한 동포들은 잘 광질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요 간에 표면상의 구호는 모두가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또 동포를 위한다는 것이었다.

혹연 「조민당」이 민족진영의 정당으로 곳곳이 버티고 나갈 것인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래서 나 자신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또 이때 선택도

『아직은 몰라. 정당에 들어가는 것만이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말이다. 좀더 두고 사태를 보는게 좋을꺼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서 무엇이 바쁘다고...』

기회주의자는 아니었어도 너무나 갑작스러운 세상의 변화와 또 지나친 외국인의 총칼 앞에서 나라를 찾고 민족을

찾는다는 심판이니 진정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정말 좀 두고 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나도 책 읽기에 여념이 없었다.

### 반탁이나 후견이나 비 로소 정신차리고

1945년 12월 27일, 소위 「조선공산당」에 이어 창건된 「조선민주당」이 한창 기세를 올리고 당원을 모집하고 있을 때였다.

그때 이른 바 「모스크바」 3상회의가 「한국에 관한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한국의 민주발전을 국제적으로 원조하겠다는 때는 자타가 이의 없었으나 제3항에 규제한 4개국에 의한 5개년간의 신탁통치(信託統治)에는 균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리하여 거족적(擧族的)으로 「반탁운동(反託運動)」이 벌어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들도 반탁운동에 나서 공산 의곽단체의 이름으로 반탁력보까지 내 걸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를 신앙처럼 생각하고 날뛰던 소위 당 간부들도 집회를 열어 반탁운동에 열을 올렸다.

도시고 농촌이고 할 것없이 반탁을 위해 날뛰던 그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소련이 앉장 서서 만든 것이므로 공산당은 절대 지지하라.』라는 지령이 내려지자 들끓던 그 태도를 바꾸어 찬탁운동(贊託運動)에 나섰던 것이다.

이리하여 1940년 1월 2일. 소위 공산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언명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그것이 소위 『모스크바 결정 지지공동성명서』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일부 식견있는 북한 주민들의 분노를 사져 앓을 수 없었고 나아가서는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들에게까지 불편한 그들의 태도에 의아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결국 그들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내려지자 「반탁」만이 이 민족의 살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소련의 지령에 의해 이를 찬성하고 나섰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 자신도 정치가 뻔인지도 모르고, 아니 이미 벌써 그 세력권은 「모스크바」의 시녀(侍女)가 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이리할 때 소련군정은 『신탁통치는 후

견제(後見制)다』라고 고집했다.

다시 말하면 해방으로 갓난 이 땅을 5년 동안 뒤에서 봐준다는 것이었다. 갓난 아기니까 걸어다닐 때까지 부모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부 식층에서는 소련의 그러한 감언이설(甘言利說)에 현혹됨이 없이 반탁을 내세우고 싸우기 시작했다.

아니 이것이 제기가 되어 북한 동포들은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끼리도, 아니 친구끼리도 이때부터 자연히 두 파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반대냐, 찬성이냐로서 그의 사상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당황한 소련군정은 종래의 수단을 포기하고 민족진영의 인사들을 찬탁에 이용하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추방 내지는 숙청할 것을 자오로 나눴다. 그 첫 희생자가 조만식선생이었다.

그들은 그를 앉장세우고 민족진영까지 찬탁에 동원시키려 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1월 5일 조만식선생을 감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러한 눈치를 차린 민족진영의 지도자들은 탈출하기 시작했고 그렇치 못한 이는 숙청, 두옥, 추방을 당했던 것이다.

반탁 때문에 「조민당」은 일대 숙청 선  
풍이 불었다. 마침내 그 「조민당」은 공  
산당의 「프락치」였던 최용건을 당수로  
앉혔다.

그 당시부터 북한의 모든 정당, 사회  
단체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절대  
지지한다.」하고 나섰던 것이다.

소련 군정의 총 칼 앞에는 꺾일 수  
없었다.

이때부터 뜻 있는 북한 주민들은 자유  
를 찾아 월남하기 시작했다. 해방되었다  
는 새 세상(?)이 오히려 일제(日帝) 밑  
에서 살던 것 만도 못 할 징조가 역역히  
내다 보였다.

30대의 김일성이가 철 모르고 소련군  
정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데 구역질을 급  
치 못했다.

모름지기 이때부터 소련군정이나 김일  
성은 민족진영을 추방하고 공산독재 정  
권을 수립할 제약을 세웠으리라.

그것도 그런 것이 소련에서 길러 온  
어린 김일성만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고  
분고분 들으니까 같은 값이면 풀치를 썩  
일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리라.

단독「괴뢰집단」탄생으로  
민족분열을 깨닫게 돼

비록 남과 북이 38선으로 가로 막혀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오래 갈(지금 생  
각하니) 장벽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  
했다.

남에 미군들이, 북에 소련군이 진주하  
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이  
나라의 해방을 도우러 왔기 때문에 곧 남  
북이 통일되어 우리의 진정한 민주정부  
가 수립되리라 믿었던 것은 비록 나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동포가 모두 그렇  
게 생각했으리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모스크  
바」 3상회의 결정의 찬·반으로 옥신각  
신텐 약 한 달 뒤인 1946년 2월 8일이  
었다.

소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北朝鮮  
臨時人民委員會)」라는 새로운 괴뢰집단  
이 창설된 것이 아닌가.

아마 이 나라 백성이었다면 이 민족이  
나 이 강토의 분열을 바라지 않았으리  
라.

한 민족이 한데 뭉쳐 함께 살아간다  
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피수 김일성과  
그의 일파는 이 땅의 양분(兩分)을 서슴

치 않았던 것이다.

당시 북괴가 자랑삼아 내 세운 것은 「임시인민위원회」는 임시적인 지방행정 기관에 그치는 조직이 아니라 중앙집권적 집권기관으로서의 김일성 단독 정권이었던 것이다.

김일성은 이 단독 괴뢰집단을 조직함에 있어서 우선 그 안을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받기 제출한 양으로 꾸렸다.

당시 정당이란 김일성이가 이끌던 소위 「공산당」을 위시해서 중국 연안파「延安派」의 독립동맹(獨立同盟)의 화신인 「신민당」, 최용건이가 이끌던 「조선민주당」 그대다가 천도교(天道敎)의 김달현(金達鉉)을 내세워 급조한 「청우당」이었다.

그 외곽에 청년동맹, 직업동맹, 여성동맹 등 십 여개 사회단체를 만들어 내세웠던 것이다.

모름지기 소련군정은 그들의 분할 노예화 정책보다 김일성의 분할 공산화 야망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그들은 이른바 「북한 동포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걸었다.

이와 같이 북한 지역에서는 분할 공산화야망이 실현되고 있을 때 남한에는 미군정의 자문기관이라고는 하나도 없

었다.

군정 사령관의 자문 자격으로 협조한다는 민주의원(民主議院)이 생겨난 것도 북괴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한 일주일 뒤였다.

또 한 가지 소련군정이 김일성 일파로 하여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성급히 조작케한 것은 얼마 뒤에 열린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르는데 미·소공동위원회(美·蘇共同委員會)에서 통일정부 수립에 있어서 북한이 실현한 모든 공산개혁제도를 반영 내지 기정사실화하지는 상투적인 수법에서 었다는 사실을 뼈 놓을 수 없으리다.

하나의 행정기관이 북한에만 설치됐다는 것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해방된 이 땅을 분할시킬 징조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이 갔다.

공산 괴뢰집단은 소련군정을 업고 단독으로 분할 공산화하겠다는 것을 소위 「임시인민위원회」 조직으로 더욱 노골화시켰던 것이다.

설마설마하면 나는 이것을 보고 해방된 내 조국의 장래를 절쳐 왔다.

그러나 그러한 무한대한 장래가 어떻게 되리라고는 조금도 짐작이 가질 없었다.

『천만에 영원한 38선이 된다면 서울

구경 다하게. 임시적으로 있겠지. 5년간 두면 한다지...』

다시 말하면 당시 북한 주민들은 신탁 통치를 지지하면 5년 후 통일된 민주국가가 태어날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 5년 후에 6·25동란이 일어났지만...)

어차피 남의 힘으로 해방될 조국이 36년 동안도 참았는데 5년이야 더 못 참으리라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백성들의 선망(羨望)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실에 추종하면서 내일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게 백성의 소치가 아니겠는가.

### 나의 길을 가련다. 뜻 맞는 동지규합

북한 땅에서 해방을 맞이한 사람만이 느끼는 이상 체취였다.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것은 일제 때 들어 보았지만 몸소 겪은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학우(學友)들을 찾아다니며 해방된 내 조국의 앞날을 토론해 왔다.

공산주의가 옳다고 나서는 놈은 그 시간부터 상종하질 않았다. 그리고 나의 의견에 동조하는 벗들만을 규합했다.

그리고 길주 땅에 있는 농업학교와 공업학교, 그리고 고급중학교, 여자중학교의 학생 간부들을 나는 자주 접촉해 왔다.

물론 나보다 나이어린 후배들이었으나 그 이룬이 정연한 동지들이 여럿이었다.

또 그 학생간부의 대부분은 제정 때부터 실력과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공적이었다. 지주(地主)는 아니더라도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제정 때 중학교에 진학한 그들이고보니 해방 후에는 가정적으로 시리를 맞는 벗들이 많았다.

직장에 나가던 이버지나 형님들이 일 자리를 잃는가 하면 땅을 가지고 소작(小作) 시키던 집은 세상이 공산사회가 됐다고 해서 추곡을 가져 오지 않아 싸울 수도 없어 굶주리는 증농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자녀들은 학교가 개학하자 대부분이 학생회인 소위 「청년동맹」의 간부로 활약했다.

(물론 후에는 가정성분(家庭性分)이 나쁘다고 쫓겨났지만...)

나는 이들에게 손을 뻗었다. 싸움은 계급(어떤 층계를 말함)을 지나거나 동지(同志)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나는 깊이 깨달았다. 독불장군(獨不將軍)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이미 학교는 졸업했기 때문에 나에게 는 조직된 동료 가 있을리 만무했다.

이리하여 나는 우선 농림학교 4학년 간부 중 민정환(閔貞漢)군을 만난 기회가 있었다.

그는 당시 공산당에 반대하여 친도교에 몸을 두고 청우당(靑友黨)에 속해 있었다.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청우당이고 신민당(뒤에 공산당과 병합됐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민당으로 생각한 것이 옳은 줄로 생각했다.

또 평양의 소위 피퇴집단에서는 그들은 모든 위성 우당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지방에서는 공산당에 반대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민정환동지는 「청우당」의 마종민(馬鍾敏)씨에 사사하고 있었다. 마종민씨는 의지가 굳고 패기 방장한 민군에게 민족주의 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제교육을 받은 그의 머리에 새로운 민족사상을 고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민정환군은 나의 뜻에 감탄하여 동지

적 규합을 맹세했다.

이리하여 내가 알게된 첫 동지가 농림학교의 민정환, 이명재(李明在), 안재필(安在弼) 그외다 공업학교에서 이 옥(李旭)씨 등과 사상적인 교우를 가지게 된 셈이다.

이 때부터 우리들은 반공(反共)을 뜻한 동지라면 청도교, 청우당원이거나 조민당, 신민당원이거나 한 것 없이 뭉쳤다.

각 학교마다 동조하는 동지를 규합하여 적화(赤化)에 철저한 선생 배척과 학교마다 조직하기 시작한 소위 「민주청년동맹」 내의 공산계열 학생의 발언권(發言權)을 봉쇄하자는 것이 그 첫 과제였다.

당시 공산당은 공산당대로 학교 내의 「공산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산당」원이 선생을 시켜 학생들에게 「프락치」를 넣었다.

때문에 학급에는 두 세명의 「공산당」주구들이 끼어 있어 그들 대로 조직을 확대 강화하는 판이었다.

사실 그들은 하나의 당을 끼고 또 시대적 배경으로 확장하고 있었으나 당시 학생들의 동향은 「공산당」쪽 보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 많이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거리마다 마을마다 일자부식

하던 미술들이 판을 치고 공산주의를 외치는 판이고 또 38선을 연구화하려는 당시의 움직임(박탈을 후견이라고 한 뒤부터)은 학생들에게까지 공산당에 대한 불평을 쌓았던 것이다.

김일성의 전시(展示)효과는 당시 북한 주민으로 하여금 완전 불안상태에 빠뜨렸다.

이러한 때의 3월 5일.

그들은 소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창설된지 한 달도 채 못되어 「토지개혁(土地改革)」을 선두로 소위 「민주개혁」을 감행하여 온 북한의 재산과 주민의 생명을 한 싹처럼 같이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농토(農土)를 마구 빼앗는가 하면 마

술의 정미소(精米所)나 제재소(製材所)는 국유화(國有化)란 명목으로 무상 압수하는 것이 아닌가.

어제까지 굶주리던 게으름뱅이가 해방의 덕택으로 정미소 책임자가 되는가 하면 중국 땅에 아편(阿片)장사를 하다 붙잡혀 징역하던 놈이 파출소 주임이 되어 마구 총칼을 휘흔드니 세상은 요저경같았다.

그러나 젊은 혈기는 죽지 않았었다.

젊은 혈기는 뚝을 즐 았았다.

이것이 1946년 5월 김주농립학교를 중심으로 정로동맹(正路同盟)사건이 있다.

바로 이 사건이 관북에서의 반공운동을 조직화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계속>

## 박대통령 문헌록에서

◇……한 개인의 생명과 명예는 짧지만 민족의 생명과 역사는 길다.

◇……오늘 한 시간의 낭비와 지체는 후일 10년의 락후를 가져 올 지도 모르며, 오늘의 단합할 줄 아는 지혜는 타일 위대한 응비를 가져 온다.



▲...「공군」지를 엮다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절의 불감증 환자가 된 것만 같다.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벌써 '70년도의 신년호 원고를 필자에게 귀찮도록 독촉을 해야 하니 계절을 미리 당겨서 산다고 할까...

▲...창 밖의 플라타너스—

한 잎이 떨어지면 또 한 잎이 떨어지고, 낙엽은 꼬리를 이어 포도위에 뒹군다. 자연의 섭리—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류년의 「아듀」!를 예고하는 거겠지...

혹한의 겨울이 문턱에 다달았다. 전후방의 전우들, 다정한 벗 S와 공군지를 아껴주시는 독자들 나같이 몸조심 해주시길...

▲...특집을 「군과 인간관계」로 꾸몄다. 읽을거리가 있을 것으로 자부(?)해 본다. 수다한 인원으로 이룬 한 조직체 내에서의 인간관계란 협조와 사랑, 그리고 단결만이 필요불가결의 요건이 아니겠는지...?

▲...지난 번 「공군창설 20주년 특집」호는 내용을 공군대가족 일색으로 다루었다. 독자들로부터 꾸짖음이 아닌 호평을 받고보니 동심으로 돌아가 어깨가 으쓱... 먼저 필자들에게 감사를 드려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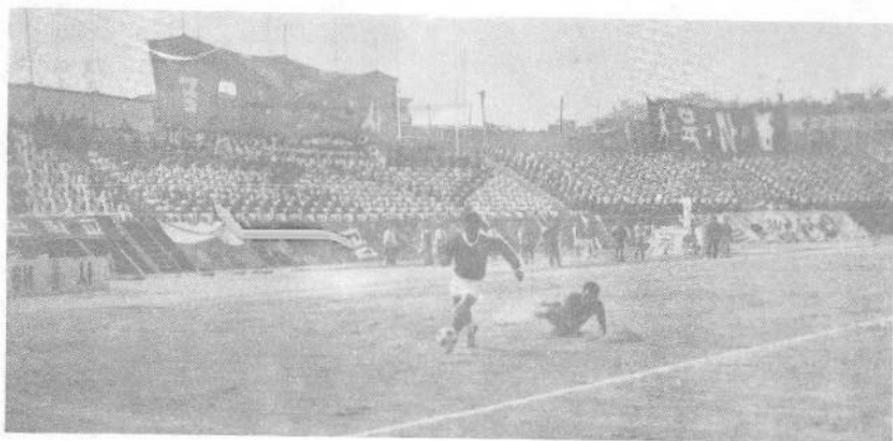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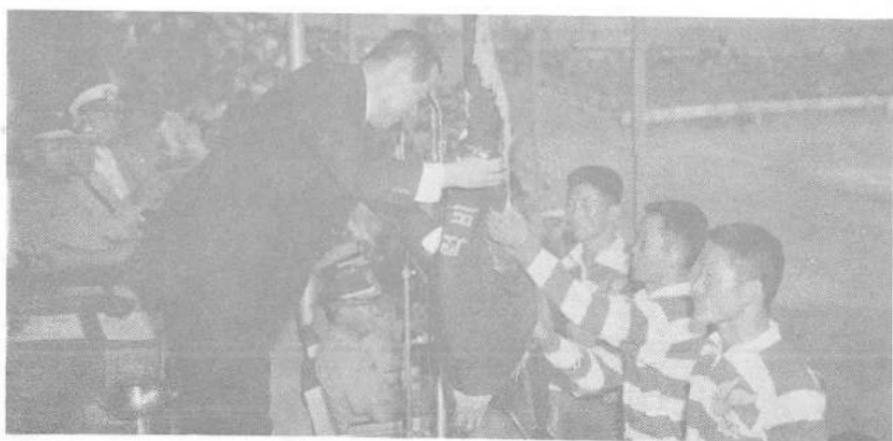
▲...머지않아 다시다난했던 1969년과도 작별을 고향한다.  
새해에도 알찬 원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준>

9월 20일부터 3일간에 걸쳐 효창구장에서 거행된 제 16회 삼사 체육대회에서  
공사가 종합우승을 차지, 삼연승의 패권을 획득함.

상: 대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받고 있다.

중: 공사대 육사 축구대항

하: 공사대 해사의 럭비대항





전투태세완비

전력증강

전기연마

즉각반응

인화단결

술선실행

공지일체

기강확립

